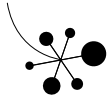


“가차 증등”

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






구성과 활용법


『생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 표시를 하고, 보조단에 보충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 교과서 따라잡기

‘교과서 따라잡기’의 내용을 학습한 후 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1~2 문제 정도 출제하여  **어려워요** 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교과서 확인 문제 ▶

‘교과서 따라잡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법 지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해결사** 에는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내용들 중에서 재미있는 질문들을 골라 수록하였습니다.

◀ 문법 지식 넓히기

정답과 해설 ▶

‘교과서 확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답과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1.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	2-1, 3단원	4
--------------------	----------	---

2. 말소리

(1) 음운과 음운 체계	2-1, 3단원	8
(2) 음운의 변동	3-1, 4단원	12

3. 단어의 구성

(1) 단어의 짜임	1-2, 2단원	16
(2) 단어의 형성	2-2, 2단원	19
(3) 품사	3-2, 5단원	23

4. 단어의 의미(어휘)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1-1, 4단원	34
(2) 동음 이의어, 다의어, 관용어	1-2, 5단원 2-2, 2단원	38

5. 문장

(1) 문장 성분	3-2, 2단원	42
(2) 문법 요소	2-1, 6단원	50
(3) 중의적 표현	3-2, 2단원	58

6. 이야기

(1) 상황에 맞게 말하기	1-1, 6단원	62
(2) 발화의 기능	2-2, 5단원	67

7.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71
(2) 한글 맞춤법	3-1, 2단원	76

8. 남북한의 언어 차이

(1) 남북한의 언어 차이	3-1, 6단원	81
----------------	----------	----

▶ 정답과 해설		86
----------	--	----

1. 언어(言語)

음성이나 문자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과 체계

2. 언어의 특징

- ① 자의성: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의미(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 ② 기호성: 언어는 음성과 뜻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기호 체계이다.
- ③ 법칙성: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인 문법이 있다.
- ④ 창조성: 언어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 ⑤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⑥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생성), 변화하기도 하며(발전), 없어지기도 한다(소멸).
 -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낼 말이 필요하다.
 - 예 자동차, 전화, 우주선, 디스켓, 햄버거, 컴퓨터, 인터넷 등
 -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던 말도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한다.
 - 예 지달, 어사, 지갑, 영감, 생원, 살우비 등
 -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경쟁하다가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의 말은 자연히 사라지거나 덜 쓰인다.
 - 예 즘-천, 온-백, 벗-친구, 7 램-강, 범-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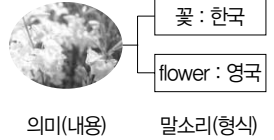
3. 언어의 기능

- ① 정보 전달의 기능: 정보나 지식을 전달한다. 예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 ② 지시적 기능: 다른 언어의 뜻을 풀이해 준다. 예 네모는 네 개의 모로 된 평면이다.
- ③ 친교적 기능: 듣는이나 읽는이와의 친교의 수단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 ④ 미적 기능: 예술 작품에 사용되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예 내 마음은 호수요.
- ⑤ 지령적 기능: 듣는이나 읽는이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명령한다. 예 문을 닫아라.

4.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의사 전달의 기본적인 도구이다.
 -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과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다.
- ② 언어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같은 지역에서도 사회적인 신분, 학력,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③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한다.
 -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억양, 어휘, 문장 유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④ 언어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사회 구조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 노년층은 젊은 시절에 익혔던 언어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말과 발음, 어휘, 문법 등에서 차이가 난다.

● 언어의 자의성(임의성)



● 문법의 뜻

- ① 말소리, 단어, 문장 등을 쓰는 일정한 규칙
- ② 말의 일정한 규칙을 학문적, 교육적으로 기술한 체계
- ③ 언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

●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한 말

- 지달: 말(馬)이 힘부로 뛰지 못하게 발을 묶어 놓는 기구
- 어사: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아 지방에 파견되었던 임시직 관리
- 지갑: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만든 갈고리를 사슴 가죽으로 엮어싼 뒤 칠을 한 갑옷
- 영감: 정3품과 종2품의 관원
- 생원: 조선 시대 때 소과인 생원과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
- 살우비: 화살이 비에 젖지 않도록 전동을 덮어 씌우는 덮개

1 언어의 특징 중에서 다음 <보기>의 일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보기
철수는 할머니가 계신 일본에 가게 되었다. 배가 고픈 철수는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일본인 종업원에게 “여기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업원은 알아듣지 못했다.

- ① 법칙성 ② 기호성 ③ 사회성
- ④ 역사성 ⑤ 창조성

2 국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규칙인 문법이 있다.
- ② 말소리와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 ③ 음성과 뜻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기호 체계이다.
- ④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변화하기도 한다.

3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언어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 ② 언어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③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한다.
- ④ 언어는 의사 전달의 기본적인 도구이다.
- ⑤ 같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달라지지 않는다.

4 다음은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변한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 원인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 즈른, 온 ㉡ 지달, 여사 ㉢ 자동차, 디스켓

- (1)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의 탄생으로 태어난 말 :
- (2) 과거에 있던 대상이나 개념이 사라져 현재는 쓰이지 않는 말 :
- (3)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경쟁하다가 세력을 잃어 사라지거나 덜 쓰이는 말 :

5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정현 : 친구야, 안녕?
일성 : 응, 그래. 밥은 먹었나?

- ① 미적 기능 ② 친교적 기능
- ③ 지령적 기능 ④ 지시적 기능
- ⑤ 정보 전달의 기능

 어려웠어요

6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언어의 특성에서 역사성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 ②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 ③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④ 옛날 사람들과도 의사 소통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 ⑤ 중의적 의미로 쓰이는 낱말들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7 다음 대화에서 ‘진영’이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말을 바꾸어 쓸 때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영 : 영호야, 개우지 좀 빌려 줘.
영호 : 어? 개우지? 난 그런 거 없는데.
진영 : 에이, 거짓말! 그럼,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무엇이니?
영호 : 뭐? 이게 지우개지 왜 개우지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고를 내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
- ③ 상대방과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 ④ 대화를 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 ⑤ 모르는 말에 대해 사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 언어의 세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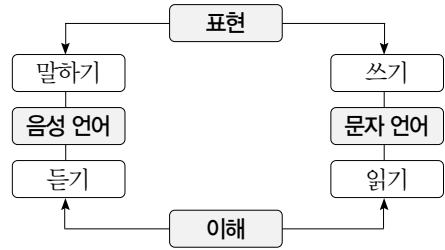
1. 언어의 분류

- ① 교착어 : 뜻을 나타내는 말(명사, 어간 등)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조사, 어미 등)이 붙는 언어
 - 예)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 ② 굴절어 : 어형의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접사를 덧붙여 문장 속에서 단어가 가지는 여러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 예) 영어, 불어, 독일어
- ③ 고립어 : 단어의 위치에 의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 예)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 ④ 포함어 :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뒤에 인칭을 나타내는 접사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말이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언어
 - 예) 아메리카 인디언어, 에스키모어

2.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전달이나 감정 표현의 수단 중 가장 정확하고 신속함 •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 교양 수준 등을 드러냄 		
차이	매개물	음성 언어 소리(청각에 의존)	문자 언어 문자(시각에 의존)
	시간, 공간	제약을 받음	제약을 받지 않음
	상대의 의사 반영	즉각적	즉각적이지 못함
이점	보조 수단	손짓, 몸짓, 표정, 억양, 어조 등	문체, 표현 기술 등
	수정	불가능	가능
점	전달 내용	비교적 쉬운 내용 전달 가능	복잡한 내용도 전달 가능
	전달 방법	직접적(상대를 직접 마주 대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함)	간접적(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함)

3. 언어 활동의 영역



❖ 언어의 특징 ❖

1. 언어의 분절성

- ① 언어 형태의 분절성 : 언어는 여러 단위로 나누어지고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예)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나눌 수 있고,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 형태소, 단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② 언어 의미의 분절성 :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 예) 실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분석을 해 보더라도 색깔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지개 색깔을 일곱 가지로 분절하여 표현한다.

2. 언어의 추상성

‘추상(抽象)’이란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상당한 수준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을 전달한다. 다만, 고유 명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 ‘꽃’이라고 부르는 ‘진달래, 개나리……’ 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체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꽃’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추상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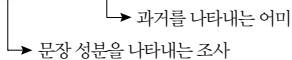
❖ 국어의 특징 ❖

1. 국어의 어족

국어는 형태상으로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첨가어(교착어)**이고, 계통상으로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설 단계이다.

① **첨가어(교착어)** :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한다. 주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였다.

예) 철수가 책을 읽었다.



② **알타이 어족** : 알타이(Altai)란 아시아 대륙의 한 산맥인데, 그 산맥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여러 언어들을 포괄하는 어족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한다. 크게 튀르크어군, 몽골어군, 퉁구스어군의 세 어군이 있다.

③ **알타이 어족의 공통 특질과 그 의미** : 알타이 어족의 공통 특질로는 모음 조화, 어두 자음군의 제약, 자모음 교체 현상의 배제, 어간과 접미사의 기계적인 연결, 접미사의 단일 기능,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의 부재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질들은 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데, 아직은 분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음운의 특징

① 음운 대립(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이 존재한다.

예) ‘ㄱ, ㄲ, ㅋ’, ‘ㄷ, ㅌ, ㅌ’, ‘ㅂ, ㅃ, ㅍ’

② 국어의 마찰음은 ‘ㅅ, ㅆ, ㅎ’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많지 않다. (파열음 > 마찰음)

③ 음절 끝에 오는 파열음이 파열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받[받]

④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나 ‘ㄹ, ㄴ’이 오지 못하는 두음 법칙이 있다.

예) 로인(×) → 노인(○)

⑤ 모음 조화 현상이 있다.

예) 잡다 - 잡아 - 잡아서 / 접다 - 접어 - 접어서

3. 어휘의 특징

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삼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 **고유어** : 감각어와 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하였다.

• **한자어** : 고유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빈자리를 대신해 주지만, 이미 존재하는 고유어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 **외래어** : 해방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특히 발달해 있다.

예) aunt →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4. 문법의 특징

①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 교착어

②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나타나는 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③ 다양한 높임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Q1 어족이 무엇인가요?

A 어족은 영어로 ‘family’라고 나타냅니다. 언어의 가족이란 뜻이지요. 사람도 형제끼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데가 있듯이 언어도 닮은 언어가 있는데, 그러한 언어를 묶어서 한 어족이라고 한답니다.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설 단계이므로 지금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2 언어의 자의성과 언어의 사회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언어의 자의성이 언어 자체의 특성이라면, 언어의 사회성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은 각 언어마다 그 표현이 다릅니다(자의성).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독일어로 ‘Ich liebe dich.’라고 말한다면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회성).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 언어가 한 사회의 약속으로 수용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1. 음운(音韻)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공 : 종 → ‘ㄱ’과 ‘ㅈ’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짐

2. 모음(21개)

혀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발음 방법에 따라 단모음(10개)과 이중 모음(11개)으로 나뉘며 모두 울림소리이다.

① 단모음 :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나뉜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	앞(전설 모음)		뒤(후설 모음)	
	등글지 않은 입술 모양 (평순 모음)	등근 입술 모양 (원순 모음)	등글지 않은 입술 모양 (평순 모음)	등근 입술 모양 (원순 모음)
높음(고모음)	ㅣ	ㅑ	ㅡ	ㅜ
중간(중모음)	ㅑ	ㅓ	ㅕ	ㅛ
낮음(저모음)	ㅑ		ㅏ	

② 이중 모음 :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으로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3. 자음(19개)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혀져 목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 입술소리(순음), 혀끝소리(설단음),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목청소리(후음)로 나뉜다.

②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에 따라 :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

㉠ 울림소리 : 콧소리(비음) - ‘ㄴ, ㅁ, ㅇ’, 흐름소리(유음) - ‘ㄹ’

㉡ 안울림소리 :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소리나는 위치		두 입술 (입술소리)	윗잇몸과 혀끝 (혀끝소리)	센입천장과 혓바닥(센입 천장소리)	여린입천장과 혀 뒤(여린입 천장소리)	목청 사이 (목청소리)
소리의 성질						
안울림 소리	예사소리	ㅂ	ㄷ, ㅌ	ㅈ	ㄱ	ㅎ
	된소리	ㅃ	ㄸ, ㅆ	ㅉ	ㄲ	
	거센소리	ㅍ	ㅌ	ㅊ	ㅋ	
울림 소리	콧소리(비음)	ㅁ	ㄴ		ㅇ	
	흐름소리(유음)		ㄹ			

● 사전 배열 순서

자음 (19개)	ㄱ ㅋ ㆁ ㄷ ㅌ ㄹ ㅂ ㅃ ㅅ ㅆ ㅈ ㅊ ㅍ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
모음 (21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 ㅣ

● 국어의 자음자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음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읇
ㄱ	쌍기역	ㅃ	쌍디귤
ㅃ	쌍비음	ㅆ	쌍시옷
ㅆ	쌍지읒		

● 조음

성대에서 입술에 이르는 음성 기관이 어떤 음성을 내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를 취하고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

① 조음 기관 :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관

② 조음 위치 : 장애가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좁혀지는) 자리

③ 조음 방법 : 소리를 내는 방법,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1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모음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② 모든 음운은 목청의 울림에서 나온다.
- ③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수 있다.
- ④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다.
- ⑤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2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으로 묶인 것은?

- ① ㅏ, ㅓ, ㅕ, ㅗ, ㅛ ② ㅓ, ㅕ, ㅡ, ㅣ, ㅑ
- ③ ㅓ, ㅓ, ㅛ, ㅓ, ㅕ ④ ㅏ, ㅓ, ㅓ, ㅕ, ㅓ
- ⑤ ㅕ, ㅓ, ㅓ, ㅓ, ㅛ

3 다음은 단모음 체계표이다. 빈 칸에 들어갈 모음이 바르게 묶인 것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ㅕ	ㅡ	ㅓ
중모음	ㅓ		ㅕ	
저모음			ㅏ	

- ① ㅏ, ㅓ, ㅕ ② ㅓ, ㅕ, ㅓ
- ③ ㅛ, ㅓ, ㅓ ④ ㅓ, ㅕ, ㅓ
- ⑤ ㅓ, ㅕ, ㅓ

4 다음은 어떤 자음에 대한 설명인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흐름소리

- ① ㄴ ② ㄹ ③ ㅁ ④ ㅂ ⑤ ㅅ

5 다음 중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모두 가진 음운이 아닌 것은?

- ① ㄱ ② ㄷ ③ ㅂ ④ ㅅ ⑤ ㅈ

6 다음은 자음 체계표이다. 빈 칸에 들어갈 자음이 바르게 묶인 것은?

소리나는 위치 소리의 성질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 장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소리	예사소리		ㄷ, ㅅ	ㅈ	
된소리		ㅃ	ㅌ, ㅆ	ㅊ	
거센소리	ㅍ		ㅊ	ㅋ	
울림소리	꺄소리	ㅁ	ㄴ	ㅇ	
	흐름소리		ㄹ		

- ① ㅂ, ㅈ, ㅎ ② ㅌ, ㅎ, ㅂ ③ ㅂ, ㅌ, ㅎ
- ④ ㅎ, ㅌ, ㅂ ⑤ ㅂ, ㅁ, ㅎ

7 다음 낱말들을 사전에서 찾을 때, 그 순서로 알맞은 것은?

구슬, 고드름, 고수레, 겨우살이, 개암나무, 과일

- ① 개암나무, 고드름, 고수레, 겨우살이, 과일, 구슬
- ② 개암나무, 겨우살이, 고드름, 고수레, 과일, 구슬
- ③ 개암나무, 고드름, 고수레, 과일, 겨우살이, 구슬
- ④ 고드름, 고수레, 겨우살이, 과일, 개암나무, 구슬
- ⑤ 고드름, 개암나무, 고수레, 겨우살이, 과일, 구슬

 어러워요

8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안경 ② 사랑 ③ 어머니
- ④ 우주인 ⑤ 미리내

9 다음 낱말 중에서 '크고 거친 느낌의 소리'(거센소리)가 나는 낱말을 모두 고르시오.

감감하다, 푸웅, 떨그덕떨그덕, 털그덕털그덕, 부웅, 감감하다, 째째하다, 털그덕털그덕, 뿌웅

❖ 음운 ❖

1. 음향, 음성, 음운의 관계

- ① 음향(音響) :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분절적인 소리
- ② 음성(音聲) :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소리. 말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분절적인 소리
 - ㉠ 발음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발음한다.
 - ㉡ 음절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실현된다.

예) '가곡'이라는 단어에는 'ㄱ'이 세 번 쓰이고 있다. 이들 'ㄱ'은 표기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음성학적으로는 각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된다. 즉, 어두에서는 무성음 [k]로,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g]로, 어말에서는 달음소리(unreleased) [k̚]로 난다.
- ③ 음운(音韻) :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말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예) 발, 벌, 불, 볼
→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요소 : ㅈ, ㅊ, ㅊ, ㅊ

2. 음운의 종류

- ① 분절 음운 : 글자 그대로 끊어서 표기할 수 있는 음운을 말하며, 자음과 모음이 이에 속한다.
- ② 비분절 음운 : 끊어서 표기할 수 없는 음운을 말하며, 소리의 장단, 고저, 세기 등이 이에 속한다.

3. 소리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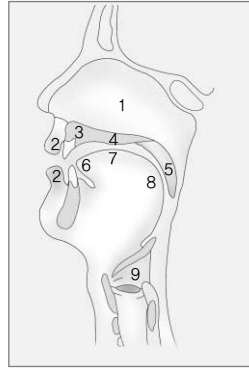
- ① 같은 모음을 특별히 길게 소리냄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에서 자음과 모음 같은 음운의 기능(비분절 음운)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 눈(眼), 눈: (雪) 말(馬), 말: (言)
 밤(夜), 밤: (栗) 성인(成人), 성:인(聖人)
- ② 긴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소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한국 + 말: → 한국말, 함박 + 눈: → 함박눈

❖ 모음과 자음 ❖

1. 발음 기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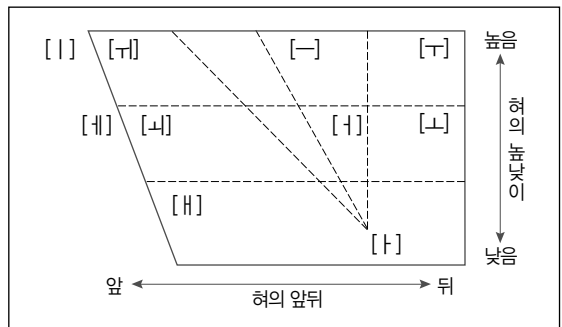
1. 코안
2. 입술
3. 윗잇몸
4. 선입천장(경구개)
5. 여린입천장(연구개)
6. 혀끝
7. 혀바닥
8. 혀뒤
9. 목청(성대)

•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가 실제로 하는 발음은 숨을 내실 때 이루어진다.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는 기관을 통해 후두에 있는, 탄력성 있는 근육으로 된 목청(성대(聲帶))을 지나게 된다. 목청이 열려 있는 틈을 성문(聲門)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말소리는 이것이 떨리면서 만들어진다. 성문을 통과한 공기는 울대마개(후두개(喉頭蓋))를 지나 목안에 이르며, 목안을 지난 공기가 입안(구강(口腔))을 통과하여 입 밖으로 나오면서 구체적인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말소리 중에는 공기의 일부가 코안(비강(鼻腔))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도 있다. 이렇게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일체의 기관을 발음 기관 또는 조음 기관이라고 한다.

2. 모음 사각도

모음이 발음될 때 입안에서 혀의 최고점 위치를 간략하게 도표화한 것





3.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 중,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파열음 :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② 마찰음 :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③ 파찰음 :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곧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소리
- ④ 비음 : 콧길을 열어 놓은 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⑤ 유음 :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경구 개음	연구 개음	목청 소리	
		안울림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ㅂ	ㄷ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4. 자음의 제약

- ① ‘ㄹ’과 ‘ㅇ[ㄴ]’은 단어의 첫소리에 쓰이지 않는다.
예) 로인(×) → 노인(○)
- ② 첫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
예) trunk → 트렁크
- ③ 모음과 모음 사이에 세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예) 값도[갑또] → ‘ㅅ’ 탈락
- ④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뉴스’와 같은 외래어나, ‘녀석’, ‘냠냠’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Q1 ‘네가’라는 말을 실제로 쓸 때에는 [니가]라고 발음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A ‘네’를 [니]로 발음하는 이유는 현대 서울말의 음성 언어에서 모음 ‘ㅐ’와 ‘ㅑ’가 변별되지 않아 ‘내’와 ‘네’가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전설 평순 중모음 ‘ㅑ’가 전설 평순 저모음 ‘ㅐ’에 가깝게 실현되며 통합되는 실정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분명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네’를 [니]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 습관을 교정하려면 ‘ㅑ’를 발음할 때, ‘ㅐ’보다 입을 더 닫고 센입천장과 앞 혀의 간격을 좁혀 발음해야 합니다.

Q2 ‘커피’를 발음할 때 ‘피’를 [fʰi]로도, [pʰi]로도 발음하던데, 어떤 것이 맞나요?

A 이러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말과 영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f]와 [pʰ]가 각각 다른 음운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f]와 [p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음운이죠. 따라서 ‘coffee’를 영어로 발음할 때에는 [f]로 발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래어 ‘커피’를 우리말로 발음할 때에는 [f]로 발음되는 음운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pʰ]와 [f]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ㅍ’으로 인식되기에 외래어 ‘커피’를 발음할 때에 ‘피’는 우리나라의 말 체계에 따라 [pʰi]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국어의 자음에는 유성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처럼 발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A 국어에도 유성음이 있습니다. 자음 ‘ㄴ, ㄹ, ㅁ, ㅇ’이 이에 속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성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영어처럼 [p]-[b], [s]-[z]처럼 짝을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우리말의 ‘ㄱ’, ‘ㄲ’, ‘ㅋ’ 등과 같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1. 음운의 변동

서로 만나는 두 음운의 소리가 비슷하게 변하거나 같아지며(동화), 어느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탈락), 한 음운으로 합쳐지기도 하면서(축약) 발음하기 좋게 음운이 변화하는 것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우리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며, 그 이외의 받침은 이 7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받침(끝소리)	발음	예	받침(끝소리)	발음	예
ㄱ, ㅋ, ㆁ, ㆁ	[ㄱ]	박[박], 밖[박], 부엌[부억], 냇[냇]	ㄹ	[ㄹ]	말[말]
ㄴ	[ㄴ]	간[간]	ㅁ, ㅂ	[ㅁ]	밤[밤], 삼[삼]
ㄷ, ㅌ, ㅊ, ㅍ, ㅅ, ㅆ, ㅈ, ㅊ, ㅎ	[ㄷ]	남[남], 날[남], 낫[남], 냇[남], 낮[남], 낮[남], 하웁[하웁]	ㅂ, ㅍ	[ㅂ]	법[법], 숲[숲]
			ㅇ	[ㅇ]	방[방]

3.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子音同化):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것

• 자음 동화의 변화 방향

순행 동화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뒷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 예) 갈날[갈랄], 담력[담녁]
역행 동화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뒷소리를 닮는 것 예) 입는[입느], 달는[달느]
상호 동화	앞과 뒤의 소리가 서로 닮는 것 예) 독립[동닙], 급류[급뉴]

② 구개음화: 자음 ‘ㄷ, ㅌ’이 ‘ㅣ’ 모음을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예) 굳이[구지], 미담이[미다지], 해돋이[해도지], 여단이[여다지], 쇠붙이[쇠부치]

•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 ‘ㅣ’모음 앞에 있는 ‘ㄷ, ㅌ’이 본래의 발음인 [ㄷ], [ㅌ]으로 발음하기보다는 ‘ㅣ’모음의 발음 위치에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4. 음운의 축약과 탈락

① 음운의 축약(A+B→C):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소리나는 것

㉠ 자음 축약 예) 축하[추카], 놓다[노타], 입히다[이피다], 그렇지[그러치]

㉡ 모음 축약 예) 그리 + 어 → 그러, 되 + 었다 → 뻤다, 먹이 + 어 → 먹여

② 음운의 탈락(A+B→B 또는 A):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아예 사라져 소리나지 않는 것

예) 날(다) + -니 → 나니, 찰 + 돌 → 차돌, 밀(다) + 담이 → 미담이, 담그 + 아 → 담가

• 자음 동화

① 자음 동화의 실제

• [ㄱ, ㄷ, ㅂ] + [ㄴ, ㅁ] → [ㅇ, ㄴ, ㅁ] + [ㄴ, ㅁ]

예) 국물[궁물], 달는[단느], 돕는 [동느]

• [ㄱ, ㄷ, ㅂ] + [ㄹ] → [ㅇ, ㄴ, ㅁ] + [ㄴ]

예) 독립[동닙], 심리[심니]

• [ㄴ, ㅇ] + [ㄹ] → [ㄴ, ㅇ] + [ㄴ]

예) 담력[담녁], 종로[종노]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예) 광한루[광할루], 칼날[칼랄]

단, 상견례[상견네], 생산량[생산녕] 등의 예외도 있음

② 자음 동화의 변화 정도

• 완전 동화: 바뀐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같을 때

예) 대관령[대괄령], 전라도[절라도]

• 불완전 동화: 바뀐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다를 때

예) 왕릉[왕느], 속리산[송니산], 동래[동내]

• 음운의 축약

① 자음 축약

•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

② 모음 축약

• ㅣ + ㅣ, ㅐ → ㅚ, ㅙ

• ㅏ, ㅓ, ㅜ, ㅠ, ㅡ + ㅣ

→ ㅞ, ㅟ, ㅟ, ㅠ, ㅡ

• ㅓ + ㅓ → ㅕ

• ㅓ, ㅖ + ㅓ → ㅖ, ㅞ

1 음운의 변동 중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편리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 ② 음운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 ③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
- ④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 ⑤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2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④ ㄱ, ㄷ, ㄹ, ㅁ, ㅂ, ㅅ, ㅇ
- ⑤ ㄱ, ㄷ, ㄹ, ㅁ, ㅂ, ㅅ, ㅈ

3 다음 중 낱말을 바르게 발음한 것은?

- ① 건강[경강] ② 냇물[냄물]
- ③ 훑고[꼬] ④ 하얗다[하야타]
- ⑤ 꽃바구니[꼬빠구니]

4 다음 중 자음 동화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 ① 먹는[명는] ② 신라[실라]
- ③ 광한루[광할루] ④ 앞마당[암마당]
- ⑤ 대통령[대통령]

5 다음 낱말들의 발음으로 알맞게 묶인 것은?

낫, 덧, 넋, 삶

- ① [낫], [덧], [넋], [삶] ② [낫], [덧], [넋], [삼]
- ③ [낫], [넋], [넋], [삼] ④ [낫], [넋], [넋], [삼]
- ⑤ [낫], [넋], [넋], [삼]

6 다음 중 음운 변동 현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독립 ② 굳이 ③ 남루
- ④ 종로 ⑤ 대관령

7 음운 변동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구개음화 - 벌이[벼치]
- ② 자음 동화 - 학문[항문]
- ③ 음운 축약 - 국화[구과]
- ④ 음운 탈락 - 남기어[남겨]
-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닭[닥]

어려워요

8 다음 <보기>의 음운 변동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보기
꽃이[꼬치], 꽃안[꼬단], 꽃과[꽤], 꽃속[썩]

- ① 서로 만나는 두 음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
- ② 뒤에 오는 음운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다르다.
-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낱말들과 그렇지 않은 낱말들이 있다.
- ④ 발음의 편리보다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뒤에 오는 음운이 모음일지라도 ‘-이’가 올 때와 ‘안’이 올 때의 음운 변동이 각각 다르다.

9 다음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해돋이[해도지], 가을걷이[가을겨지], 같이[가치]

- ① 발음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
- ② 변동의 결정적인 모음은 ‘ㅣ’이다.
- ③ 여린입천장 자리에서 발음이 된다.
- ④ ‘ㅈ, ㅊ’이 ‘ㄷ, ㅌ’보다 ‘ㅣ’와 가까운 거리에서 발음된다.
- ⑤ 자음 동화와 다른 점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법 지식 넓히기

1. 모음 동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닮아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소리나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현상

'ㅣ' 모음 역행 동화	앞 음절의 'ㅏ, ㅑ, ㅓ, ㅕ'(후설 모음)는 뒤 음절에 'ㅣ'(전설 모음)가 오면, 이에 끌려서 전설 모음 'ㅐ, ㅒ, ㅖ, ㅘ'로 변함 예) 아버지[에비], 어머니[에미], 고기[과기]
'ㅣ' 모음 순행 동화(이중 모음화)	'ㅣ'의 뒤에 'ㅏ, ㅑ'(후설 모음)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ㅑ, ㅓ'로 변함 예) 기어[기여], 미시오[미시요]

이와 같이 변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냄비, 멧쟁이'처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2. 모음 조화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으로 양성 모음 'ㅏ, ㅑ'는 'ㅏ, ㅑ'끼리, 음성 모음 'ㅓ, ㅕ, ㅗ, ㅛ'는 'ㅓ, ㅕ, ㅗ, ㅛ'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모음 동화의 일종

①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 풍당풍당 - 풍덩풍덩, 알록달록 - 얼룩덜룩

② 현대에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 이유 : 중세 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ㅡ'와 대립하던 'ㆍ'가 소멸되고, 'ㅣ'가 음성화되면서 현대 국어에 와서는 상당히 문란해졌다.

예) 가까워, 아름다워, 깡충깡충, 오뚝이

3.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올림소리가 서로 만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경음화 현상)

① 안올림소리 'ㄱ, ㄷ, ㅈ, ㅊ, ㅌ, ㅍ' + 안올림소리 → 된소리 'ㄱ, ㄷ, ㅈ, ㅊ, ㅌ, ㅍ'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국밥[국뽕], 젓소[쪼]

② 올림소리 'ㄴ, ㄹ' + 안올림소리 → 안올림소리가 된소리가 될 수도, 올림소리가 될 수도 있다.

예) 안고[안꼬] : 된소리되기, 안기대[안기대] : 유성음화

❖ 사잇소리 현상 ❖

1. 사잇소리 현상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①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

예) 밤 + 길 → [밤길], 촌 + 사람 → [촌싸람]

② 사잇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촛불(초 + 불) → [촛뿔]

③ 하지만 비슷한 조건인데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 명사도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아직 찾기가 어렵다.

예) 기와 + 집 → [기와집], 콩 + 밥 → [콩밥]

2. 한자어에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

①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예) 초점(焦點) → [초쩨]

② 다음 여섯 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곳간(庫間), 퇴간(退間), 차간(車間)

숫자(數字), 회수(回數), 셋방(貰房)

③ 한자어의 사잇소리 현상도 규칙성을 찾기 어려워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사잇소리를 넣어 발음하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방법(方法) → [방](×), 고가(高架) → [고꺼](×)

등기(登記) → [등끼](×), 간단(簡單) → [간뎨](×)

3. 그 외의 사잇소리 현상

① 앞말의 끝 '모음' + 뒷말의 시작 'ㄹ' → 'ㄹ' 첨가

예) 잇몸(이 + 몸) → [인몸], 낫날(코 + 날) → [콘날]

② 뒷말의 시작 모음 'ㅣ'나 반모음 'ㅣ' → 'ㄴ' 첨가

예) 집 + 일 → 집닐 → [집닐], 콩 + 엿 → [콩]

③ 두 단어를 한 마디로 이어서 발음할 때

예) 한 일 → [한닐], 옷 입다 → [온닙따]

4.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

- ① 나무 + 사 + 집 → [나무째] : 나무를 파는 집
 └ 나무 + 집 → [나무집] : 나무로 만든 집
- ② 고기 + 사 + 배 → [고기뻬] : 고기잡이를 하는 배
 └ 고기 + 배 → [고기배] : 물고기의 배
- ③ 횃수(回數) → [회쑤, 쑤] : 차례의 수효
 └ 회수(回收) → [회수, 휘수] : 도로 거두어들임

5.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에 대한 설명 방식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를 합성어의 '격(格)구조'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다시 말해 '김밥[김:밥]'은 '김'으로 만든(김을 말아 만든) 밥'으로 '김'은 도구격 성격을 가진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아침밥[아침:뻬]'은 '아침에 먹는 밥'으로 '아침'은 처소격의 성격을 가진다. 합성어의 격구조가 도구적인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처소적인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머리말[머리말]'은 '글의 머리에 들어가는 말'로 처소격임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빨랫줄[빨:쥬]'은 '빨래를 하기 위한 줄'로 목적격인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등 그 구조가 너무 다양하므로 설명 방식이 명쾌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Q1 똑같이 모음이 이어졌는데, 왜 '꽃이'는 [꼬치]로 '꽃 안'은 [꼬단]으로 발음이 되나요?

A 두 낱말 모두 다음 음절이 모음인데도 다르게 소리나는 것은 두 모음 사이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꽃이'에서 '이'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이고, '안'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형식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는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에 터지지 아니하고 닫힌 상태로 발음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

니다. 여기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뜻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꽃'을 발음할 때에 '꽃이[꼬치]'라고 하지 않고 []이라고 발음하고, []+[안]→[꼬단]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Q2 사이시옷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이시옷은 훈민정음 창제시 단어와 단어의 합성과정에서 원래 단어의 모양을 유지하며 두 단어의 합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였습니다. 즉 '시냇물'은 '시내의 물'이라는 뜻으로 합성된 단어로, 여기서 '사'는 관형격 조사 '의'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이시옷을 관형격 '사'이라고도 합니다. 옛말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의 모든 합성어에 사이시옷을 사용하였는데,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면서 모음 아래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의 표기를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있었던 음운 현상들은 대부분 불규칙성을 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Q3 같은 양성 모음인데도 '곱+아 → 고투', '아름다+어 → 아름답'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발음하는 위치가 비슷한 모음끼리 결합시킴으로써 발음을 쉽게 하려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모음 조화는 15세기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그 뒤 차차 약화되어 현대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나 어간과 어미의 연결 구조 등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고투'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것이고, '아름다워'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모음 조화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예가 됩니다.

Q4 '출석률'과 '출석율'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A '출석률'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 율'로 적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을 예로 들어 보면 외형률, 법률, 능률, 행렬, 운율, 비율, 내재율이 맞는 말입니다.

1. 음절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소리마디

예) 공기가 맑아서 좋다. → [공], [기], [가], [말], [가], [서], [조], [타] : 여덟 음절

① 음절의 구조 :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모음	자음 + 모음	모음 + 자음	자음 + 모음 + 자음
예) [어], [어]	예) [자], [저]	예) [업], [억]	예) [잡], [적]

② 특징

- 음절은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이다.
- 음절 수와 모음 수는 항상 일치한다.
-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때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이다. 예) 넓다 → [널], [따]

2. 어절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마디. 끊어읽기와 띄어쓰기의 단위

예) 하늘이 V 매우 V 푸르다. → ‘하늘이’, ‘매우’, ‘푸르다’ : 세 어절

3. 낱말

뜻을 지니고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자유롭게 붙을 수 있으므로 낱말로 인정함(낱말의 개수 = 어절의 개수 + 조사의 개수)

예) 너와 나는 같은 민족이다. → 너-와 나-는 같은 민족-이다. : 일곱 낱말

4.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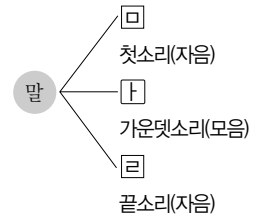
① 형태소 분석 방법

분석 방법		예) 좋은
1단계	낱말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 본다.	좋 + 은
2단계	더 나누면 의미가 없어질 때 멈춘다.	좋 = 스 + ㄴ + ㅎ(‘좋다’의 의미가 사라지게 됨)
		은 = 으 + ㄴ(연결의 문법적 의미가 사라지게 됨)

② 종류

-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하늘, 노래
 -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예) 이, 맑-, -다
- 의미나 기능에 따라
 -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 예) 하늘, 맑-
 - 문법적인 뜻을 가지는 형태소 예) 에게, -다

● 음절의 형태



음절을 이룰 때,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낱말의 특징

- ① 조사를 제외한 모든 낱말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 ② 낱말은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 형태소와 낱말의 관계

- ①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는 낱말이 된다.
 - 예) 산, 강, 사람, 밤 등
- ②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지만 낱말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
 - 예) -에, -이, -가, -이다 등
- ③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서 낱말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서로 결합하여 낱말이 된다.
 - 예) 불-, -었-, -다 : 서로 결합하여 ‘불었다’라는 낱말을 만든다.

1 다음 <보기>에서 설명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보기
문장 어절 낱말 음절 형태소

- (1) 끊어읽기와 띄어쓰기의 단위 :
- (2)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 (3)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
- (4) 뜻을 지니고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

2 다음 문장은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쓰시오.

합박눈이 펑펑 내립니다.

3 다음 <보기>에서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된 음절은 몇 개인가?

보기
넓은 별 동쪽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4 다음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으시오.

- (1) 운동장에는피약별이흑흑쏟아지고있었다.
- (2) 저녁놀을등에져서그림자가전선주만큼펼길다.

5 다음 문장을 어절과 낱말로 나누었을 때, 그 개수로 적절한 것은?

소년은조약돌을집어주머니에넣었다.

- ① 어절 - 4어절, 낱말 - 7낱말
- ② 어절 - 5어절, 낱말 - 7낱말
- ③ 어절 - 5어절, 낱말 - 8낱말
- ④ 어절 - 5어절, 낱말 - 9낱말
- ⑤ 어절 - 6어절, 낱말 - 9낱말

6 다음 중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이 아닌 것은?

- ① 하늘 ② 노래 ③ 겨울
- ④ 봄비 ⑤ 김치

7 다음 낱말의 형태소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쁘다 → 예쁘 + 다
- ② 오가다 → 오가 + 다
- ③ 높았다 → 높 + 았 + 다
- ④ 주시다 → 주 + 시 + 다
- ⑤ 사랑하다 → 사랑 + 하 + 다

8 다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지만 낱말로 인정하는 형태소는? (정답 2개)

저녁에 빵을 먹었다.

- ① 예 ② 빵 ③ 을
- ④ 먹- ⑤ -었-

 **어려워요**

9 다음 문장을 아래 기준에 맞게 나누어 쓰시오.

영수는 새 모자를 싸게 샀다.

- (1)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 (2)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 :
- (3)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 :
- (4) 문법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 :

10 다음 중 형태소 분석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산-이 매-우 푸르-다.
- ② 어제-는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 ③ 아기-가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 ④ 소년-은 소녀-에게 호두-를 주었-다.
- ⑤ 나무-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문법 지식 넓히기

❖ 음절 ❖

1. 음절의 구조

음절은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음성학적 문법 단위일 뿐이다. 따라서 음절의 구조를 찾을 때에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소리내어 읽은 소리의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 값 : 끝소리가 ‘ㄱ’으로 표기되어 있어 마치 ‘자음+모음+자음+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표기만 그럴 뿐 실제 발음은 ‘ㅅ’이 탈락한 ‘ㄴ’으로 발음된다. 결국 소리로는 [갑]으로 발음되어 하나의 자음만 남은 ‘자음+모음+자음’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 밝은 : 독립된 음절로 본다면, [발]과 [은]으로 이루어져 ‘[발]→자음+모음+자음’, ‘[은]→모음+자음’의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발음대로 표기해 보면 [발근]이 된다. 즉 ‘밝은’의 음절 구조는 ‘[발근]→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임을 알 수 있다.

❖ 낱말 ❖

① 합성어, 파생어는 모두 1개의 낱말이다. ㉠ 손질, 톱밥
 ② 숫자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쓰나, 이것은 표기법상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므로 1낱말로 취급한다. ㉡ 일억 구천육백오만 이천십삼(1낱말)

③ 형태소≤ 낱말≤ 어절

㉢ 너의 책 가져. → 형태소이면서 낱말이면서 어절
 → 특히 ‘이’의 경우는 1어절이면서(띄어 썼으므로), 1낱말이면서(관형사이므로), 1형태소이면서(지시의 뜻이 있는 최소의 형태소이므로), 1음절이면서(발음상 1글자이므로), 1음운이므로(모음 1개이므로) ‘음운≤음절≤형태소≤낱말≤어절’이라고 할 수 있다.

❖ 형태소 ❖

1.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형태소를 나눌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미(뜻)이다. 왜냐 하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를 말한다. 예를 들

어,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과 ‘먹-’은 각각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고, ‘을’과 ‘-었-,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다. 따라서, ‘밥’, ‘을’, ‘먹-’, ‘-었-’, ‘-다’를 형식 형태소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가 되지만, 모든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가 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먹-’처럼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와 대응된다. 단, 용언의 어간만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예

영희	는	사과	를	먹	었	다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해결사

Q1 ‘가셨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셨-’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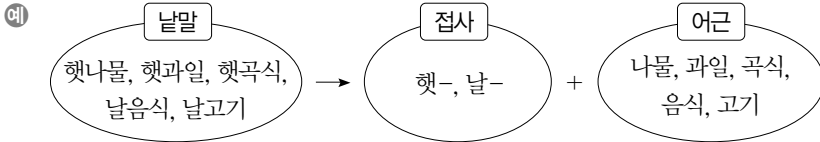
A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가셨다’는 용언이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셨다’의 기본형은 ‘가다’이기에 ‘가-+-셨-+-다’로 일차적인 분석이 되지요. 다음으로 ‘-셨-’은 ‘-시-+-었-’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왜냐 하면, ‘-시-’는 선어말 어미로서 주체 높임의 역할을 하고, ‘-었-’은 선어말 어미로서 시제(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셨-’은 ‘-시-’과 ‘-었-’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셨다			
형태소	가-	-셨-		-다
		-시-	-었-	
명칭	어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거)	어말 어미



1. 어근과 접사

- ① 어근 :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②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2. 단일어와 복합어

- ① 단일어 :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낱말 **예** 밤, 나무
- ② 복합어 :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

- 파생어 : 개 + 나리 → 개나리, 햇 + 밤 → 햇밤
- 합성어 : 밤 + 나무 → 밤나무, 손 + 발 → 손발

3. 파생어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복합어(접사 + 어근, 어근 + 접사)

① 접사 + 어근

- 개- : 참것이 아닌, 좋은 것이 아닌, 함부로 된 **예** 개살구, 개나리, 개떡
- 설- : 불충분한 **예** 설익다
- 옛- : 몰래 **예** 옛보다, 옛듣다
- 풋- : 덜 익은 것, 미숙한 것 **예** 풋고추, 풋사랑, 풋내기
- 돌- : 품질이 나쁜 것, 산과 들에서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된 것 **예** 돌참외

• 홀- : 짝이 없고 하나뿐인 **예** 홀아버

• 맨- : 아무 것도 더하지 않은 **예** 맨손, 맨발

② 어근 + 접사

- -꾼 : 어떤 일을 전문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예** 일꾼, 사냥꾼
- -꾸러기 : 버릇이 심한 사람 **예** 잠꾸러기, 심술꾸러기

4.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복합어(어근 + 어근)

①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

예 손발, 한두, 오가다, 팔다리, 서넛, 대여섯, 여닫다, 미닫다, 뛰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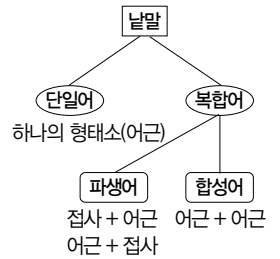
②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

예 손수건, 책가방, 손수레, 물걸레, 가죽신, 쇠뿔, 소고기, 쇠사슬

③ 어근들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예 밤낮, 춘추(春秋), 피땀, 빈말, 집안, 강산, 썩발, 바늘방석, 실마리, 보릿고개, 종이 호랑이, 쥐뿔

● 낱말의 짜임새



● 단일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며, 하나의 낱말을 이루고 있으며, 더 이상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함

- 예** 밤 ≠ 밤 + ㅏ + ㅓ
- 나무 ≠ 나 + 무

● 합성어가 되는 과정에서 음운이 변하는 경우

- ① 'ㄹ' 탈락 **예** 술 + 나무 → 소나무
- ② 'ㄹ'이 'ㄷ'으로 바뀜 **예** 이틀 + 날 → 이틀날
- ③ 어근에 'ㅂ'이 첨가 **예** 조 + 쌀 → 좁쌀

●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의 예

- ① 밤낮 : 항상
- ② 춘추(春秋) : 나이
- ③ 피땀 : 노력
- ④ 썩발 : 엉망이 되어버린 곳
- ⑤ 바늘방석 : 관용적인 표현으로 앉기에 몹시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

1 다음 <보기>에서 설명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 보기
합성어 파생어 접사 단일어

- (1)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낱말 :
- (2)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
- (3)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모여 이루어진 낱말 :
- (4)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낱말 :

2 다음 밑줄 친 접사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익다 : 몰래
- ② 풋내기 : 미숙한 것
- ③ 개살구 : 참것이 아닌
- ④ 잠꾸러기 : 버릇이 심한 사람
- ⑤ 사냥꾼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3 다음 <보기>에서 낱말 형성법에 따른 분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앞뒤, 물병, 별관 ㉡ 햇방아리, 햇보리

- ① ㉠, ㉡ - 단일어 ② ㉠, ㉡ - 파생어
- ③ ㉠, ㉡ - 합성어 ④ ㉠ - 파생어, ㉡ - 합성어
- ⑤ ㉠ - 합성어, ㉡ - 파생어

4 다음 <보기>의 낱말들을 합성어의 형성법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보기
㉠ 손발 ㉡ 손수건 ㉢ 한두
㉣ 밤낮 ㉤ 책가방 ㉥ 춘추(春秋)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5 다음 낱말 중에서 합성어가 아닌 것은?


- ① 손 + 발 → 손발 ② 비늘 + 질 → 바느질
- ③ 이틀 + 날 → 이틀날 ④ 열다 + 단다 → 여단다
- ⑤ 돌다 + 가다 → 돌아가다

6 낱말의 합성 과정에서 음운의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좁쌀 ② 따님 ③ 소나무
- ④ 부나비 ⑤ 이부자리

7 다음 합성어를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 쓰시오.

- (1) 마소 :
- (2) 꽃나무 :
- (3) 높푸르다 :

 **어려워요**

8 다음 문장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찾아 쓰시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두꺼운 털옷을 입고 오셨다.

9 다음 밑줄 친 낱말과 형성법이 같은 합성어가 들어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① 어른의 춘추(春秋)가 궁금했다.
- ② 예지는 밤낮으로 깊은 사색에 빠졌다.
- ③ 방석 위에 비늘을 꿸아 비늘방석을 만들었다.
- ④ 선조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위대한 문화 유산이다.
- 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쑥밭이었다.

문법 지식 넓히기

❖ 어근과 접사 ❖

1. 어근

형태소가 결합하여 낱말을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 합성어의 어근: 합성된 낱말의 실질 형태소
- └ 파생어의 어근: 접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 ┌ 접두사: 어근 앞에 오는 접사 **예** **뒋** + 버선
- ┌ 접미사: 어근 뒤에 오는 접사 **예** **뒋** + **개**
- ┌ 한정적 접사: 뜻만 첨가해 주는 접사
 - 예** **맨** + 손(명사 → 명사)
- ┌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
 - 예** **크** + 기(형용사 → 명사)

❖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1. 명사로 파생

- ① 명사(어근) + 한정적 접사 → 파생명사(어근의 뜻만 제한)
 - 예** **목** + **아** **진** → 모가지, **선생** + **님** → 선생님
- ② 다른 품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명사(품사의 변화)
 - 예** **슬프** + **ㅁ** → 슬픔, **지우** + **개** → 지우개
- ③ 파생명사와 명사형의 구별법: 접미사 '-(으)ㄴ/기'와 명사형 어미 '-(으)ㄴ/기'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주어가 있거나,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있으면 명사형이고, 이상의 것이 모두 불가능하면 파생명사이다. 반드시 이해해 둘 것은 명사형이란 동사, 형용사 등 용언이므로 서술어이고, 파생명사란 명사라는 것이다.
 - 예** **꾸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꾸기**가 어렵다.
 파생명사 명사형

2. 동사로 파생

- ① 동사(어근) + 한정적 접사 → 파생동사(어근의 뜻만 제한)
 - 예** **놓** + **치** **다** → 놓치다, **깨** + **뜨리** **다** → 깨뜨리다
- ② 다른 품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동사(품사의 변화)
 - 예** **일** + **하** **다** → 일하다, **출렁** + **거리** **다** → 출렁거리다

- ③ 동사(어근) + 사동접사(-이/히/리/기/우/구/추-) → 파생동사(어근의 뜻만 제한)
 - 예** **먹** + **이** **다** → 먹이다(기본형의 변화, 어간: 먹이-)

- ④ 동사(어근) + 피동접사(-이/히/리/기) → 파생동사(어근의 뜻만 제한)
 - 예** **먹** + **히** **다** → 먹히다(기본형의 변화, 어간: 먹히-)

3. 형용사로 파생

- ① 형용사(어근) + 한정적 접사 → 파생형용사
 - 예** **까** **ㅁ** **다** → 까맣다, **높** + **다** **랴** **다** → 높다랴다
- ② 명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형용사(품사의 변화)
 - 예** **가난** + **하** **다** → 가난하다, **슬기** + **롭** **다** → 슬기롭다
- ③ 관형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형용사(품사의 변화)
 - 예** **새** + **롭** **다** → 새롭다
- ④ 부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형용사(품사의 변화)
 - 예** **차근차근** + **하** **다** → 차근차근하다

4. 부사로 파생

- ① 동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부사(품사의 변화)
 - 예** **맞** + **으** → 마주
- ② 형용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부사(품사의 변화)
 - 예** **많** + **으** → 많이
- ③ 명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부사(품사의 변화)
 - 예** **진실** + **로** → 진실로
- ④ 부사(어근) + 지배적 접사 → 파생부사(의미만의 변화)
 - 예** **더욱** + **으** → 더욱이

5. 접미사의 표기 원칙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많을 때는 접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고(규칙적 접미사),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불규칙적 접미사).

규칙적 접미사	사동, 피동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음, -기), 부사 파생 접미사(-이)
불규칙적 접미사	귀떡 + 으 리 → 귀머거리, 막 + 애 → 마개, 넘 + 으 → 너무, 돌 + 으 → 도로, 참 + 안 → 차마, 박 + 아 진 → 바가지, 개굴 + 으 → 개구리



❖ 합성어의 형성 ❖

1.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① 통사적 합성어의 예

- ‘작은집’ : 형용사의 관형사형 ‘작은’과 명사 ‘집’이 결합된 것으로 명사 앞에 관형사형이 놓이는 것은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이다.
- ‘들어간다’ :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여 합친 합성어인데 이러한 단어의 배열법 또한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 목격할 수 있다.
- ‘밤낮’ : 부사의 기능을 띠고 있으나 두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2.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

①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

- ‘늦더위’ : ‘늦은 더위’가 되어야 하지만 형용사 어간 ‘늦-’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 앞에 놓여 있다. 현대 국어에는 용언의 어간이 명사 앞에 직접 놓임으로써 문장을 구성하는 일은 없다.
- ‘검붉다’ :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이라면 ‘검고 붉다’로 되어야 하지만 형용사의 어간이 어미의 매개 없이 직접 결합되고 있다.

② 비통사적 합성어의 특징

관형사형 어미 ‘은/는’이나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 지, 고’가 더 들어가도 뜻이 통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예) 접칼 → 접은 칼, 굳세다 → 굳고 세다.

3. 합성어와 구의 구별

	합성어(붙여쓰) = 1낱말	구(띄어쓰) = 2낱말 이상
예	우리 작은 형	키가 작은 형
분리성	‘작은’과 ‘형’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작은’과 ‘형’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서술성	‘작은’에 서술성이 없다.	‘작은’에 서술성이 있다.
의미 변화	‘말형이 아닌 형’을 의미	‘키가 작은 형’을 의미

Q1 ‘음채(音癡), 길채(-癡)’와 ‘문맹(文盲), 컴맹(com盲)’ 등은 합성어인가요, 파생어인가요?

A 의견상 파생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된 ‘치’와 ‘맹’은 원래 접미사가 아니라 ‘음치’와 ‘문맹’이라는 말에 쓰이던 것을 유추하여 ‘치’와 ‘맹’을 접미사처럼 활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이지요. 따라서 한자 형태소를 하나의 어근으로 보면 ‘치’와 ‘맹’을 접미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들을 파생어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상위 개념인 복합어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들에는 ‘수다맨(수다스러운 사람)’, ‘썰렁맨(분위기에 맞지 않고 매우 어색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안티족(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안티 사이트를 열고 활동하는 집단)’, ‘소호족(small office home office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 등이 있습니다.

Q2 ‘아점, 짬짜면’은 합성어인가요?

A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점, 짬짜면’은 합성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점’과 ‘짬짜면’은 각각 ‘아침과 점심’, ‘짬뽕과 자장면’을 대등하게 연결한 뒤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약어(略語)로 된 낱말들인 ‘노찾사 -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아나바다 운동 -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Q3 ‘똥배기’는 단일어인가요, 파생어인가요?

A ‘-배기’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나타내거나,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 혹은 그런 물건’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하지만 ‘똥배기, 학배기(잠자리 애벌레)’는 각각 단일 형태소로 보아 ‘-배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지요. 따라서 ‘똥배기’는 파생어가 아닌 단일어입니다.



1. 품사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단어의 각 갈래

① 단어를 나누는 기준

- 의미 :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종류별 공통성에 따른 분류
- 형태 : 단어 형태의 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
- 기능 : 문장의 구성에서 단어가 가지는 구실에 따른 분류

의미에 따라			형태에 따라	기능에 따라
품사	역할	예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연필, 선생님...	불변어	체언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냄	그, 이것, 저것...		
수사	대상의 수나 차례를 나타냄	하나, 첫째...		
동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가다, 주다...	가변어	용언
형용사	대상의 성질, 상태, 존재를 나타냄	예쁘다, 아프다...		
조사	체언에 붙어 말과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격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 줌(보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	불변어	관계언
		은/는, 을/를...		
관형사	체언에 붙어 대상의 상태를 수식함	새, 흰, 한...	불변어	수식언
부사	용언이나 관형사나 다른 부사에 얹혀 대상의 움직임, 성질, 상태를 한정함	갑자기, 몰래...		
감탄사	놀람, 느낌이나 부름, 응답을 나타냄	앗, 아이쿠...		

2. 체언

명사(名詞), 대명사(代名詞), 수사(數詞)를 묶어서 체언(體言)이라고 함

① 특징

-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명사와 수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
-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주어, 목적어, 보어)을 한다.

② 종류

명사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꽃, 자유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예 너, 그, 그것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예 하나, 첫째

● 품사

- 우리말에는 아홉 가지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다.
- 단어를 분류하는 일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단어를 나누는 기준

단어는 이름을 나타내느냐, 움직임을 나타내느냐와 같이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의미). 그리고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 그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형태). 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기능).

● 명사, 대명사, 수사의 차이점

	관형사의 수식	형용사의 수식
명사	○ 새 책	○ 새로운 책
대명사	× 새 그것	○ 새로운 그것
수사	× 새 둘	× 새로운 둘

1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 ② 우리말에는 아홉 가지의 품사가 있다.
- ③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언어들의 묶음이다.
- ④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의 묶음이다.
- ⑤ 일반적으로 의미, 기능, 형태의 세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차례대로 쓰시오.

그녀는 지금과 같은 석양 노을을 본 적이 없었다.

3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사와 결합한다.
- ② 홀로 쓰일 수 있다.
- ③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④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 ⑤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

4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도깨비는 부잣집 문 앞에서 둘째 아들을 세워 놓고,
 “여보게,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계. ㉢내
 가 들어가서 딸의 혼을 꺾어 올 테니.”
 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 갔다.
 둘째 아들이 잠시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도깨비가
 금방 나왔다.
 “딸의 혼은 어떻게 했나?”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지 않
 은가?”

- ① ㉠ - 둘째 아들 ② ㉡ - 부잣집 문 앞
- ③ ㉢ - 도깨비 ④ ㉣ - 딸
- ⑤ ㉤ - 도깨비의 손

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수사인 것은?

- ① 하루가 너무나 길다.
- 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 ③ 철수는 그것을 싫어한다.
- ④ 나는 첫 번째 줄에 앉았다.
- ⑤ 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떨어졌다.

6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생의 한 가운데서
- ② 책을 읽고 있는 사람
- ③ 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 ④ 단풍이 물든 이 산하에서
- ⑤ 노구라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7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보기>와 같이 분류했다면, 그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그는 배를 타고 떠났다.
 ㉠ : 그, 는, 배, 를 ㉡ : 타고, 떠났다

- ① 의미에 따른 분류
- ② 형태에 따른 분류
- ③ 기능에 따른 분류
- ④ 음절 개수에 따른 분류
- ⑤ 수식 여부에 따른 분류

8 다음 밑줄 친 명사 중에서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 철수는 꽃을 꺾었다.
- ②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 ③ 남대문은 국보 제 1호이다.
- ④ 나는 의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 ⑤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

문법 지식 넓히기

❖ 명사 ❖

1. 명사의 특징

- ①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 ② 조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예 철수야, 너 지금 큰덕에 할아버지 말씀을
 독립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전하러 가거라.
- ③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다.
- ④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 ⑤ 복수 접미사(‘들’, ‘네’)와 결합하여 복수가 된다.
 예 선생님들, 책상들, 은미네

2. 명사의 종류

①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붙인 이름 예 서울, 한강, 남대문...
보통 명사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 예 학교, 책상, 사랑...

②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	관형어의 꾸밈 없이도 쓰일 수 있는 명사 예 하늘, 사랑, 학교...
의존 명사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쓰일 수 있는 명사 예 바, 것, 줄, 수, 적...

③ 감정 표현 능력 유무에 따라

유정 명사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예 사람, 개, 소...
무정 명사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예 돌, 풀, 바다...

④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예 집, 사람, 책, 동물, 의자...
질량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예 물, 하늘, 마음, 공기, 사랑...

3.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점

- ① 고유 명사에는 복수에 대한 표현이 어렵다.
 예 *영희들이 마구 몰려 왔다.
- ② 고유 명사는 ‘이’, ‘모든’, ‘새’ 따위의 관형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 *이 여자가 저 영희를 때렸다.
- ③ 고유 명사는 수(數)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두 백제의 기운이 느껴진다.
- ④ 고유 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한다.
 예 우리는 장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4. 의존 명사의 종류

- ① 보편성 의존 명사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등 여러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것(것, 이, 분, 데 등)
 예 이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 ② 주어성 의존 명사 : 주격 조사와 붙어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것(지, 수, 리, 나위 등)
 예 그럴 리가 없다.
- ③ 서술성 의존 명사 :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따름, 뿐, 터, 때문 등)
 예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 ④ 부사성 의존 명사 : 부사격 조사와 붙어서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것(대로, 양, 척, 체, 듯 등)
 예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
- ⑤ 단위성 의존 명사 : 명사의 수량을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주로 수관형사 아래 쓰임(개, 원, 마리 등)
 예 이백 원이 모자라서 못 샀어.

5. 의존 명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

관형어 아래 쓰이면 명사, 체언 아래 쓰이면 조사, 서술어 아래 쓰이면 어미이다.

- 예
- | | |
|----------------|---------------|
| 아는 대로(명사) | 씻은 듯 깨끗하다(명사) |
| 너는 너대로(조사) | 구름에 달 가듯이(어미) |
| 착한 일을 하는 이(명사) | 먹을 만큼(명사) |
| 지은이, 읊킨이(접미사) | 너만큼(조사) |

❖ 대명사 ❖

1. 대명사의 종류

① 인칭 대명사 : 사람의 이름 대신 사람을 가리키는 말

구분	높임말	예사말	낮춤말
1인칭	없음	나/우리(들)	저/ 저희(들)
2인칭	어르신, 어른, 당신, 자네, 그대, 임자	너/너희(들)	
3인칭	근칭	이분/이분들	이이/이이들, 이들
	중칭	그분/그분들	그, 그이/그들, 그 이들
	원칭	저분/저분들	저이/저들, 저이들
미지칭		누, 누구(복수형 없음)	
부정칭		아무, 아무개(복 수형 없음)	
재귀칭	당신	자기, 자신	저/ 저희(들)

- 근칭(近稱) : 화자에게 가까운 사람, 대상을 가리키는 말
- 중칭(中稱) : 청자에게 가까운 사람, 대상을 가리키는 말
- 원칭(遠稱) : 화자, 청자에게서 함께 먼 사람, 대상을 가리키는 말
- 미지칭(未知稱) :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부정칭(不定稱) : 여럿 중에서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 재귀칭 : 앞에 한 번 나온 명사(= 선행사, 주로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로 '재귀 대명사'라고도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저/저희(들)'을 낮춤말로 보지 않고 예사말로 보기도 한다.

예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자기들)밖에 몰라요.

② 지시 대명사 :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
사물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아무것
처소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아무데

2. 대명사의 특징

①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있다.

예 나는 오늘 친구와 영화를 볼 생각이야.

② 대명사의 격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 네가(주격), 우리를(목적격), 그의(관형격)

③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예 나는 새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 책을 좋아한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 내겐 정말 예쁜 그녀.

❖ 수사 ❖

1. 수사의 종류

양수사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수사 예 하나, 서넛, 일, 이...
서수사	사물의 순서를 가리키는 수사 예 첫째, 서너째, 제일, 제이...

2. 수사의 특징

①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있다.

예 한나가 저기 있었네.

② 조사를 덧붙여 격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하나가(주격), 하나를(목적격), 하나의(관형격)

③ 복수를 표시할 수 없다.

예 여기 사과 둘들이 있잖나.(×)

④ 관형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예 새로운 둘은 흰 냇보다 좋다.(×)



Q1 '한 시 일곱 분'이라하지 않고, 왜 '한 시 칠 분'이라고 하는지요?

A 국어에서 '시(時)'를 말할 때에는 '한, 두, 세, 네, 다섯'처럼 고유어를 쓰고, '분(分), 초(秒)'를 말할 때에는 '일, 이, 삼, 사, 오, 육'처럼 한자어를 씁니다. 이런 현상은 관습적인 언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오래 전부터 쓰던 단위로 고유어와 어울릴 수 있었으나, '분, 초'는 근대 이래로 한자어를 쓰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시계 문화가 들어오면서 중국, 일본식으로 쓰인 단위로, '일 분', '일 초' 등이 하나의 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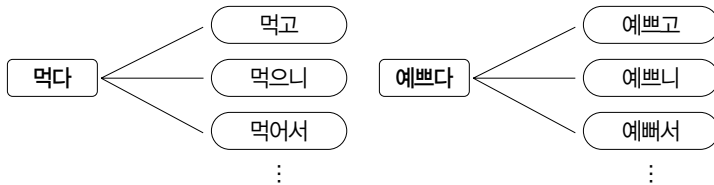


1. 용언

동사(動詞)와 형용사(形容詞)를 묶어서 용언(用言)이라고 함*

① 활용 :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그 형태가 변한다.

- 예 • 동사 '먹다' • 형용사 '예쁘다'



② 특징

- 형태 변화를 한다.
- 활용에 의해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부사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으나, 관형어의 수식은 받지 않는다.

③ 종류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오다, 읽다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름답다, 달다

2. 수식언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冠形詞)와 부사(副詞)를 묶어서 수식언(修飾言)이라고 함

① 특징

- ㉠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활용할 수 없다.
- ㉡ 수식어로서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
- ㉢ 문장 안에서 부속 성분으로 사용된다.
- ㉣ 시제와 높임법을 표시할 수 없고, 격조사와 결합될 수 없다.

예

그는	빠르게	달렸다.
㉠ '빠르게'만 가능하다.		
㉡ 피수식어인 '달렸다'를 보충한다.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없다.		
㉣ 시제와 높임법을 표시할 수 없다. ('빠르시게' (x))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빠르게이/가' (x))		

② 종류

관형사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새, 한, 모든, 이
부사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아주, 일찍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방법

① 의미상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면 동사이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이다.

- 예 • 보다 : 동작 → 동사
- 달다 : 성질 → 형용사

②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 -ㄴ-' ,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 예 • 일어나다 : 일어나 + -ㄴ- + 다 (O) → 동사
- 아름답다 : 아름답 + -는- + 다 (X) → 형용사

③ '의도'를 뜻하는 어미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이다.

- 예 • 때리 + 려 (O) → 동사
- 사 + 러 (O) → 동사
- 아름답우 + 러 (X) → 형용사
- 예쁘 + 러 (X) → 형용사

④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이다.

- 예 • 일어나라 (O) → 동사
- 읽자 (O) → 동사
- 순해라 (X) → 형용사
- 착하자 (X) → 형용사

•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을 자세히 꾸며 주는 성분이다.

1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 ②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 ③ 이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른다.
- ④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⑤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쓰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2 수식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 ② 시제와 높임을 표시할 수 없다.
- ③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 ④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 ⑤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3 다음 용언 중에서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 곱다 ② 젊다 ③ 늙다
- ④ 예쁘다 ⑤ 부드럽다

4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의 품사로 알맞지 않은 것은?

새 한복을 입고 온 아이들이 아주 많았다.

- ① 새 - 관형사 ② 입고 - 동사
- ③ 온 - 관형사 ④ 아주 - 부사
- ⑤ 많았다 - 형용사

5 다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경치가 좋다.

- ①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 ②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조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 ④ 문장 안에서 주성분의 구실을 한다.
- ⑤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

6 다음 문장에 쓰인 관형사는 모두 몇 개인지 쓰시오.

흰 갓을 쓰고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두 눈은 별빛같이 빛났다.

7 다음 문장 중에서 관형사와 부사가 동시에 쓰인 것은?

- ① 그 사람은 집으로 갔다.
- ② 저 가방이 마음에 꼭 든다.
- ③ 휴일인데도 일찍 일어났구나.
- ④ 가게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다.
- ⑤ 사과 한 개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어려워요**

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말 예쁜 꽃이구나.
- ② 은호는 글씨를 잘 쓴다.
- ③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 ④ 떠든 사람들이 선생님께 혼이 났다.
- ⑤ 긴 문장은 부분으로 나누어 외면 좋다.

9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형 어미 ‘-어라’의 결합 여부
- ② 청유형 어미 ‘-자’와의 결합 여부
- ③ 관형사형 어미 ‘-는’과의 결합 여부
- ④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의 결합 여부
- ⑤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의 결합 여부

문법 지식 넓히기

❖ 용언 ❖

1. 용언의 형태

①

용언	=	어간	+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②

용언	=	본용언	+	보조적 연결 어미		+	보조 용언
				-어/-아, -게, -지, -고			

2. 본용언과 보조 용언

① 본용언 :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용언

예 밥을 먹고 싶다.

② 보조 용언 :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며 자립성이 희박한 용언
예 밥을 먹고 싶다

③ 구별법

㉠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되었을 때 맨 앞의 것이 무조건 본용언이다.

예 밥을 먹고 싶다. → *밥을 싶다.

㉡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해도 문장에 쓰인 뜻과 다를 때 보조 용언이다.(흠문장)

예 그는 그렇게 살아 왔다. → 그는 그렇게 왔다.

(‘시간의 흐름 → 직접 걸어 오’로 의미 변화)

㉢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어도 의미 변화가 없으면 본용언이다.(겹문장)

예 • 사과를 깎아 주었다. → 사과를 깎았다. + 사과를 주었다.(본용언, 겹문장)

• 값을 깎아 주었다. → 값을 깎았다. + *값을 주었다.(보조 용언, 흠문장)

3. 어간과 어미

① 어간 : 용언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기도 한다.

예 ‘잡-다’의 ‘잡-’은 어간인 동시에 어근이다.

㉡ 어근에 접사가 붙어 어간이 되기도 한다.

예 ‘잡히다’의 어근은 ‘잡-’이고 어간은 ‘잡-’에 접사 ‘히’가 붙은 ‘잡히-’이다.

② 어미 : 용언의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 가다(가+다 : 가- → 어간, -다 → 어미)

❖ 용언의 활용 ❖

1. 규칙 활용

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활용

예 먹+어 → 먹어

②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형태 변화가 있는 활용

㉠ 모음 조화 : 어미가 양성 모음/음성 모음의 두 종류가 있어서 모음 조화에 따르는 활용

㉡ 규칙적인 탈락

• 어간 ‘ㄹ’ 탈락 : 예 울+는 → 우는

• 어간 모음 ‘-’ 탈락 : 예 쓰+어 → 쓰

㉢ 규칙적인 매개 모음 ‘으’ 첨가

예 잡+ㄴ → 잡은(‘으’ 첨가)

2. 불규칙 활용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 변화를 하는 활용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종류	바뀔 양상	예
‘ㅅ’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	잇+어 → 이어
‘ㅂ’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바뀜	눕+어 → 누워
‘ㄷ’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앞에서 ‘르’로 바뀜	듣+어 → 들어
‘ㄹ’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ㄹ’이 덧생김	흐르+어 → 흘러
‘우’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푸다’ 하나뿐임 푸+어 → 퍼

② 어미가 바뀌는 경우

종류	바뀔의 양상	예
'여' 불규칙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공부하+어 → 공부하여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 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뀜	푸르+어 → 푸르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거라'가 '-너라'로 바뀜	오+거라 → 오너라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변함	다+아 → 다오

• '-아라/-어라', '-거라', '-너라'의 관계

7차 교과서부터는 6차 교육 과정의 '-거라' 불규칙을 비현실적 문법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라/-어라' 규칙형에 대응되어 '가다, 자다, 일어나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에 붙는 것으로 본 '-거라' 불규칙은 이미 '-아라/-어라'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로 인해, '-거라/-너라'는 장년, 노년층에서나 쓰이는 세대(世代) 방언형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거라' 규칙형에 대하여 '오다'만이 '-너라'를 취하는 불규칙으로 보고 있다.

③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종류	바뀔의 양상	예
'흥' 불규칙	'흥'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흥'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파랑+아 → 파래

❖ 수식언 ❖

1. 관형사의 갈래

성상 관형사 (성질, 상태)	체언이 가리키는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줌 예 옛 모습, 흰 책, 깊은 양념
지시 관형사	지시성이 있음 예 의 사람, 전 교장 선생님
수 관형사	명사의 수를 나타냄 예 한 사람, 배 세 척

2. 부사의 갈래

① 성분 부사 : 한 문장의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

성상 부사	'어떻게'의 의미. 일반 부사,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예 날씨가 <u>꽤</u> 춥다.(일반 부사) 파도가 <u>철썩철썩</u> 친다.(의성 부사) 토끼가 <u>깡충깡충</u> 뛰다.(의태 부사)
지시 부사	장소, 시간, 앞에 나온 말을 지시하는 부사 예 <u>이리</u> 오너라.(장소 지시) <u>내일</u> 만나자.(시간 지시) <u>그리</u> 말고 집에 가자.(앞에 나온 말 지시)
부정 부사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 예 <u>안</u> 일어났다.

②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

양태 부사	화자의 태도 표시 부사(과연, 설마, 제발, 결코, 아마 등) 예 <u>과연</u> 숨씨가 훌륭해.
접속 부사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그리고, 그러나, 즉, 곧, 또는 등) 예 <u>그리고</u> 그들은 말없이 떠났다.



Q1 '젊다'는 형용사인데, '늙다'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요?

A '젊다'는 어떤 성질, 상태를 정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로, '늙다'는 주체의 움직임이 과정적, 동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로 분류합니다. '늙었다' 또한 과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사가 되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과 결합한 '늙는다' 역시 늙어 가는 진행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Q2 '이다'는 조사인데,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는 왜 조사가 될 수 없나요?

A '이다'의 부정어인 '아니다'는 활용 양상만 '이다'와 같을 뿐 자립성을 띠고 있으므로 조사가 아닌 형용사로 봅니다.



1. 관계언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조사(助詞)라고 함.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언(關係言)이라고 함

① 특징

-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 형태소이다.
-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관형사와 감탄사 외의 모든 품사에 두루 붙는다.

② 종류

① 격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주는 조사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 예) 그간 잔다.
목적격 조사	을/를 예) 나는 사과를 먹었다.
보격 조사	이/가(‘되다’, ‘아니다’ 앞에서 사용) 예) 나는 아이가 아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 예) 나는 중학생이다
관형격 조사	의 예)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 예)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호격 조사	아/야/이여 예) 비상안, 안녕!

② 접속 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와/과’, ‘(이)랑’, ‘하고’)

예) 비유와 상징에 대하여 공부했다.

③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

- 예) •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만’은 ‘한정’의 뜻, ‘도’는 ‘역시’의 뜻)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은’은 대조의 뜻)

2. 독립언

감정을 넣어 말하는이의 놀람,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感歎詞)라고 함.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독립언(獨立言)이라고 함

① 특징

- 조사가 붙지 않으며 활용하지 않는다.
- 문장에서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보인다.

② 종류

감정 감탄사	아, 아차, 아하, 아이쿠... 예) 아, 세월이 빠르구나.
의지 감탄사	자, 에라, 글썸, 천만에... 예) 자, 이제 그만 가자.
호응 감탄사	여보, 여보세요, 예, 그래... 예) 예, 저요?

● 보조사의 특징

① 보조사는 부사나 용언과도 결합한다.

예) 나는 빠리는 달리지 못했다.
너를 만나고는 싶다.

② 다른 격조사와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예) 너만이 내 희망!

● 보조사의 종류

대조	은/는
역시, 동일	도
유일, 단독	만
극단	까지, 마저
첨가	조차
출발점	부터
보편	마다
최후 선택	이나
양보	라도
강조	야말로
특수	이(야)
불만	(이)나, (이)나마

● 감탄사의 구별

① 실제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면서 감탄사가 아니다.

예) “길동아!”(명사 + 호격 조사)

② 문장의 처음에 놓인 제시어나 표제어는 감탄사가 아니다.

예) 청춘,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가!

● 그 밖의 감탄사

• 입버릇 감탄사 : 특별한 의미 없이 입버릇으로 내는 감탄사. 구어에서 자주 쓰이는 군말

예) 뭐, 아, 저, 응...

1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 ②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 ③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 ④ 용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 ⑤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준다.

2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개 ㉡가 ㉢사람 ㉣을 ㉤물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 다음 밑줄 친 조사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동호는 감만 먹었다.
- ② 아름이도 집에 갔다.
- ③ 책상 위에서 잠을 잤다.
- ④ 수영이만지 멀리 떠났다.
- ⑤ 미숙이는 친구에게 선물도 주었다.

4 다음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가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 첨가
- ② 혜영이만 홀로 남았다. - 단독
- ③ 너조차 나를 믿지 않다니. - 출발
- ④ 너도 내 처지가 되어 봐라. - 대조
- ⑤ 철수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 - 동일

5 감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형태 변화를 한다.
- ②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 ③ 문장에서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 ④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
- ⑤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

6 다음 <보기>에서 감탄사를 모두 찾아 쓰시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누군가 등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야, 너 혹시 규원이니?”라고 말을 걸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너무 놀라 “아이쿠, 깜짝이야.”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전학 간 옛날 동네 친구임을 알고, “원일야!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다.

 **어려워요**

7 다음 밑줄 친 두 단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 철수는 미국에 갔다.
(나) 저것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 ① 가변어에 속한다.
- ② 품사의 성질이 같다.
- ③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 ④ 자립성이 강하여 홀로 쓰인다.
- ⑤ 앞말에 쉽게 붙어서 의미를 제한한다.

8 다음 <보기>의 (가)와 (나)에 쓰인 ‘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배는 사과와 다른 과일이다.
(나) 영수는 배와 사과를 먹었다.

- ① (가)의 ‘와’와 (나)의 ‘와’는 같은 기능을 한다.
- ② (가)의 ‘와’와 (나)의 ‘와’는 서로 다른 품사이다.
- ③ (가)의 ‘와’는 비교의 역할을, (나)의 ‘와’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④ (가)의 ‘와’는 품사에 두루 쓰이지만, (나)의 ‘와’는 체언에만 한정되어 쓰인다.
- ⑤ (가)의 ‘와’는 두 문장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나)의 ‘와’는 두 문장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1. 조사의 단어 인정 여부

국어에는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립 형식이 아닌 의존 형식으로서 문장 속에서 독립된 성분이 되지 못한다. 즉, 조사는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단어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으나, 통사론적·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어에 가깝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

2. 조사의 생략

국어에서 격은 격조사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순에 의해 표시되기도 하므로 격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특히,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잘 생략되는데, 그것은 어순만으로도 주격과 목적격은 쉽게 판별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문법적 관계가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안긴 문장의 주어나 초점, 새로운 정보에 결합된 조사는 잘 생략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3.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하여

① '이다'가 다른 격조사와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점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이다'도 다른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앞의 체언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여 준다.
다른 점	다른 격조사들은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나, 서술격 조사는 '이다, 이면, 이니'처럼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② '이다'의 적절한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 ① 지정사(指定詞) : '이다'는 선행 성분을 지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위 '지정사(指定詞)'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하여 용언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접사 : '이다'의 '이-'를 용언이 아닌 성분을 용언으로 만들어 주는 소위 용언화 접미사로 본다면, '이다'는 접사에 포함될 수 있다.

㉞ 매개 모음 : '이다'의 '이-'를 '매개 모음'으로 볼 수 있다. '도시이다'처럼 선행 음운이 자음이거나 모음이냐에 따라 '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도시다'와 함께 '도시이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㉟ 서술격 조사 : 현행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체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격조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다'가 보여 주는, 용언과 같은 모습을 고려하여 '서술'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라 하겠다.

4. '와'의 기능

- (가)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나) 배는 사과와 다르다.

(가)와 (나)의 '와'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의 '와'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나는 배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서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접속 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와'는 '사과+와'의 형태가 용언 '다르다'와 결합하여 비교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1 '철수가 갔다.'와 '철수는 갔다.'를 비교했을 때, '는'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주어, 목적어 자리에 '은/는'이 첨가될 때에 '은/는'은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를 대치합니다. 즉 격 표지 '이/가' 또는 '을/를'이 안 나타나고 그 자리에 '은/는'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는'이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의 구실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일 형태 '은/는'이 주어 표지와 목적어 표지의 구실을 겸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에서처럼 부사어 따위에도 첨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는'은 격조사가 아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1. 외래어(外來語)와 외국어(外國語)

① 공통점과 차이점

	외래어	외국어
뜻	다른 나라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예 빵, 담배, 버스 등	다른 나라의 말 예 스포츠, 댄스, 레스토랑 등
특징	우리말처럼 느껴져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통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다. 우리말의 본 모습을 잃게 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한 예

예 키 → 열쇠, 디스카운트 → 예누리, 쇼핑백 → 시장 바구니, 레스토랑 → 식당

2. 은어(隱語)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말 **예** 뿌리시니(산삼), 대출(대리 출석), 째새(경찰) 등

- ① 특징
 - └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암호의 성격을 띠게 된다.
 - └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동료 의식과 결속력을 갖게 한다.
 - └ 외부에 알려지면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예** 왕따, 날라리 등
- ② 문제점 : 지나친 은어 사용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고립감을 줄 수 있다.

3. 비속어(卑俗語)

어떤 대상을 아주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는 말 **예** 대가리 등의 속된 말과 욕설

- ① 특징
 - └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말이다.
 - └ 친근한 관계의 사람끼리 정겨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② 문제점
 - └ 듣는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듣는이에게 불쾌감을 준다.
 - └ 원만한 인간 관계를 해치며, 정서적인 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준다.
 - └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4. 유행어(流行語)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다가 안 쓰이게 되는 새로운 말 **예** 얼짱, 공주병, 당근이지 등

- ① 특징
 - └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쓰이다가 사라지는 말이나 일부는 일상어로 자리잡아 오래 쓰이기도 한다.
 - └ 독특하고 신선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 └ ‘시대의 거울’이라고도 하듯이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다.
- ② 문제점 : 무분별한 사용은 개성이 없고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 외래어의 기원

신라 초기에는 한자를 써서 땅 이름을 우리말에 가깝도록 표기했으나 통일 신라 때에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행정 구역 명칭을 한자로 바꾸면서 우리말로 된 땅 이름은 입으로만 전해지게 되었다. 이 때부터 말로는 토박이 이름을, 표기는 한자를 사용하는 땅 이름의 이중 구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토박이 이름을 집중적이고 의도적으로 없앴던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이다.

● 영터리 외래어의 예

- 백미레[rear-view mirror] → 뒷거울
- 커닝[cheating] → 부정 행위
- 비하인드 스토리[inside story] → 뒷이야기, 비화(秘話)
- 호치키스[stapler] → 박음쇠

● 비속어가 존재하는 이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듣는이에게 점잖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비속어는 주로 놀이성이나 신기함의 추구, 또래 의식의 공유, 반항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특정한 집단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언어가 끊임없이 생겨나서 사용되고 있다.

1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래어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들어왔다.
- ② 외래어의 사용은 어휘의 수를 풍부하게 한다.
- ③ 외래어는 표준어에 속하지만, 외국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 ④ 외래어의 사용은 국어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 ⑤ 외래어는 우리말처럼 느껴져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없는 말이다.

2 은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정도 암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②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 기능을 잃게 된다.
- ③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말이다.
- ④ 어떤 대상을 알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는 말이다.
- ⑤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부의 사람들에게 강한 동료 의식을 느끼게 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쓰이다가 사라지는 말이나 일부는 일상어로 자리잡기도 한다.

4 다음 비속어들을 순화된 말로 고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깜씨 → 깜찍한 사람
- ② 쪽팔리다 → 창피하다, 부끄럽다
- ③ 토끼다 → 몰래 짹짹 도망가다
- ④ 꼴 때리다 → 어이없다, 황당무계하다
- ⑤ 방방뜨다 → 기분이 매우 좋다, 어쩔 줄을 모르다

5 다음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화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초가집 : 안녕하세요!
 선머슴 : 여기 중딩방가?
 이도령 : 아녀 아녀(도리도리)
 선머슴 : 나이는 다덜 어케되나?
 초가집 : 너 밥5취?

- ①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맞춤법을 무시하고 있다.
- ③ 표기법을 무시하고 있다.
- ④ 쓸데없이 외국말을 많이 쓰고 있다.
- ⑤ 소리나는 대로 짧게 줄여 쓰고 있다.

6 어려웁요

6 <보기>에서 은어, 비속어, 유행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고딩 ㉡ 암마 ㉢ 엽기 ㉣ 짹새 ㉤ 자식 ㉥ 공주병

	은어	비속어	유행어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7 다음은 소설의 일부분이다. 비속어에 밑줄을 그으시오.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 잠은 참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이야,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나, 이 대가릴 꺼눌 자식?”

❖ 외래어 ❖

1. 여러 가지 외래어의 예

- ① 산스크리트 어(범어) : 달마, 만다라, 보살(菩薩), 불타(佛陀), 사리(舍利), 석가(釋迦), 열반(涅槃), 찰나(刹那) → 불교 문화와 관련
- ② 영어 : 버스, 컴퓨터, 로켓, 벡타이, 챔피언, 아이스크림, 니일론, 재즈 → 새로 발명된 문물과 관련
- ③ 프랑스 어 : 망토, 루주, 샹송, 모델, 마담, 앙코르, 데생, 아카시아 → 프랑스 예술이나 패션과 관련
- ④ 그리스 어 : 로고스, 파토스 → 그리스 고대 철학과 관련
- ⑤ 이탈리아 어 : 첼로, 오페라, 템포, 아리아, 스파게티 → 이탈리아의 음악이나 음식과 관련
- ⑥ 러시아 어 : 툰드라, 페치카, 트로이카, 보드카 → 한대(寒帶) 기후 지역의 자연이나 문물과 관련
- ⑦ 만주어, 여진어 : 호미, 수수, 메주, 가위
- ⑧ 라틴 어 : 스타디움, 알리바이
- ⑨ 포르투갈 어 : 담배, 빵, 텀뿌라, 카스텔라

2.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현상

- ①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예) 아파트, 호텔
- ② 새로운 서구식 생활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 예) 윈스톱 라이프 : 한 곳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생활 문화 공간
- ③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래어를 남용하거나, 심지어 원어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외래어가 고급스럽다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3. 한자어

- ①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며 중국에서 들어온 말,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 나라로 유입된 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말 등이 있다.
 - 예)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 : 감기(感氣), 고생(苦生), 복덕방(福德房), 편지(便紙), 사돈(查頓)

② 한자어는 매우 오래 전에 들어왔고, 발음 또한 국어의 음운 체계에 적응하고 변화하여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단어들 많다.

예) 한자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 : 양말, 어차피, 모습, 감자, 가지, 자장, 라면 등

③ 한자어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 한자어는 비록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른 시기에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귀화(歸化)가 끝난 말들이다.
- 국어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들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한자어는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있는 우리말로 수용하여야 한다.

④ 한자어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

- 한자어는 고대부터 뿌리 깊은 사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유입된 말들이다.
- 한자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다.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한자어들도 노력만 한다면 ‘이름씨, 움직씨, 그림씨’ 같은 고유어로 얼마든지 바꾸어 쓸 수 있다.
- 한자어들을 추방하고 고유어로 바꾸어야만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다.

4. 고유어

- ① 흔히 순 우리말이라고 부르는 말로서, 다른 나라 말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사용한 우리말이다.
- ②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며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한다.
- ③ 고유어는 대개 의미의 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어(多義語)이다. 그 이유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5. 국어 순화(國語醇化)

① 국어 순화의 필요성

- 과도한 외래어 사용은 우리의 언어 문화를 변질시킬 수 있다.

•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다.

② 국어 순화의 방법

- 들어온 말(외국어, 외래어 등) 중에서 순화를 요하는 것들은 가능한 토박이말(고유어)로 재정리한다.
- 비속한 말은 고운말로, 틀린 말은 맞춤법과 표기법에 맞게 바르게 순화하여 쓴다.
-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 쓰도록 한다.

❖ 그 외의 어휘 ❖

1. 표준어와 방언

- ① 표준어 : 한 나라 안의 표준이 되는 말
우리 나라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사회적 조건)이 두루 쓰는 현대(시대적 조건) 서울말(지역적 조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방언(사투리) : 표준어가 아닌 말
 - ㉠ 지역 방언 : 지역에 따라 분화되는 방언
 - ㉡ 사회 방언 :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방언(은어, 유행어 등)

2. 금기어와 완곡어

- ①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는 말을 ‘금기어’라 하고, 금기어 대신에 불쾌감이 덜한 말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완곡어’라고 한다.
- ② 상황과 장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금기어를 사용하면 듣는이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완곡어가 필요하다.
 - 예 천연두 : 마마/손님
변소 : 뒷간/화장실/해우소

3. 전문어

- ①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처럼 사용하는 말을 ‘전문어’라고 한다.
- ② 전문인들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해 은어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 예 영화나트롬 : 소금(전문어와 일상어가 모두 존재)
단락(쇼트) : 전기 회로에서 둘 이상의 곳을 전기 저항이 아주 작은 도선으로 잇는 일

4. 통신 언어

① 특징

- 맞춤법과 표기법을 무시한다.
- 소리나는 대로 쓰고, 짧게 줄여 쓴다.
- 개성이 있고, 재미있는 말이 많이 만들어진다.
- 통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은어의 성격을 지닌다.

② 문제점

- 은어, 비속어, 유행어가 많다.
-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쓴다.
- 통신어를 일상 생활에서도 쓰게 된다.
- 통신을 처음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Q1 비어와 속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비어(卑語)는 상대를 얕잡아 보고 경멸하여 쓰는 말로 상말이나 하대어(下待語)라고도 합니다. 속어(俗語)보다 더 야비하고 비천한 느낌을 갖게 하며 욕설로 느끼게 하는 것도 있지요. ‘대가리, 대갈통(머리)’, ‘주둥이, 아가리(입)’, ‘뺨뿔(뺨사람)’, ‘요년’, ‘아이눔’ 등 호칭을 빗댄 것, ‘쳐먹는다(먹는다)’, ‘똥진다(죽는다)’, ‘닥쳐라(달아라)’ 등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부터는 PC통신에서 난무하는 경향을 보이며 언어 폭력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속어(俗語, slang)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통용되면서도 정통 어법에서는 벗어난 비속(卑俗)한 언어를 말합니다.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도 흔히 쓰인다는 점에서는 비어(卑語)와도 구별되고, 사용되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는 은어(隱語)와도 다르지요. ‘뽕땅(부분적인 횡령행위)’, ‘공갈(거짓말)’ 등의 말이 있지요. 속어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실제로는 비어와 은어까지 광범하게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1. 동음 이의어(同音異議語) -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를 동음 이의 관계라고 하고, 동음 이의 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동음 이의어라고 함

- ① 특징
-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서로 관련이 없다.
 - 문맥과 상황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 사전에 실릴 때에는 별개의 낱말로 실린다.

② 종류

㉠ 소리는 같으나 한자가 다른 낱말

- 예
- 이상(異壘) : 평소와는 다른 상태
 - 이상(理想) :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낱말

- 예
- 밤[밤] :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의 동안
 - 밤[밤:] : 밤나무의 열매

2. 다의어(多義語) -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

- ① 특징
- 한 낱말이 주변 의미로 인해 의미가 많아진 것이며, 의미들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다.
 -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사전에서 한 낱말 밑에 ①, ②, ③ 등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낱말로 취급된다.

②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중심 의미	낱말이 지닌 여러 의미 중에서 기본적인고도 핵심적인 의미를 말하며 '사전적 의미'라고도 한다. 예) 손을 물로 씻어라.(사람의 팔목 아랫부분)
주변 의미	낱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말하며 '문맥적 의미'라고도 한다. 예) 손이 모자란다.(일손) / 그와 손을 끊겠다.(관계)

3. 관용어(慣用語) -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

- ① 유래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 ② 중간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기 어렵다.
- ③ 일반적인 표현보다 표현 효과가 강하다.
- ④ 두 개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도 한다.
- ⑤ 그 언어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 ⑥ 일반적인 낱말로 이루어져 있으나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낱말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동음 이의어가 사전에 실린 예

- 배¹뿔 ① (척추 동물의) 위장 따위가 들어 있는 가슴과 골반 사이의 부분. ② 길쭉한 물건의 가운데 부분. ♣ ~가 불룩한 독 ③ 위장(胃腸). ♣ ~가 고프다. ④ (의존 명사적 용법)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거나 하는 횃수를 세는 단위. ♣ 한 ~에 아홉 마리를 낳다.
- 배²뿔 물 위에 떠다니며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르게 만든 탈것.
- 배³뿔 배나무의 열매.

● 다의어가 사전에 실린 예

- 뺨[- 따] (매우니·매유) 뿔 [보 불규칙 활용] ① 입 안이 화끈거리도록 알알한 맛이 있다. ② (날씨가) 몹시 춥다. ♣ 살을 에는 듯한 매운 날씨. ③ 성질이 독하거나 사납다. ♣ 매운 성미.

● 관용어와 속담

비슷한 점	관용어나 속담은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가 특별히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하나의 낱말처럼 쓰인다.
다른 점	관용어에 비해 속담은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표현 효과를 나타낸다.

1 동음 이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연하게 소리가 같아진 낱말이다.
- ② 문맥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
- ③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
- ④ 사전에 실릴 때에는 별개의 낱말로 실린다.
- ⑤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에 있는 낱말이다.

2 ㉠~㉣ 중, 의미가 같은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제 / 저녁 노을 너머로 / ㉠해가 지네요.
 어둠의 사자가 서서히 다가오면
 이 ㉡해도 다 가게 되겠지요.
 이 ㉢해의 마지막 ㉣해를 보니 / 내 마음은 설레네요.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 다음 밑줄 친 낱말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요즘에는 자녀가 넷 ㉠의상 있는 가정이 드물다.
- 갑자기 운동을 했더니 몸에 ㉡의상이 생겼다.
- 현실 ㉢의상의 것을 ㉣의상으로 삼는다.
- 목숨이 살아 있는 ㉤의상, 꿈을 버리지 말자.

- ① ㉠ - 어떤 것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많거나 높음
- ② ㉡ - 별나거나 색다름
- ③ ㉢ - 어떤 것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많거나 높음
- ④ ㉣ -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 ⑤ ㉤ - 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

4 다음 밑줄 친 낱말 중에서 짧게 소리나는 것은?

- ① 뻥이 맛있다.
- ② 별에 쏘였다.
- ③ 바른말 고운 말
- ④ 몸을 피하기 위해 굴을 폈다.
- ⑤ 먼지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다.

5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집안일 ㉡ 노래말
 ㉢ 정신을 잃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 (1) 가요제에 나갈 노래의 가사 때문에 걱정이다. :
- (2) 요즘에는 부부가 가사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
- (3) 사막 지방을 여행할 때 물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사 상태에 빠지기 쉽다. :

6 다음 밑줄 친 한자어의 의미를 쓰시오.

- (1) 한국 전쟁 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남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했다. :
- (2) 화장실에 남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하마터면 창피를 당할 뻔했다. :

7 다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낱말로 취급된다.
- ② 의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 ③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다.
- ④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⑤ 소리의 길고 짧음에 의해 의미가 구별된다.

8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의미가 중심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생선이 맛이 갔다.
- ② 그 설명은 수궁이 갔다.
- ③ 이 비누는 때가 잘 갔다.
- ④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시오.
- ⑤ 가서 오지 않는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다.

9 다음 밑줄 친 낱말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글씨를 쓰다 - 일기를 쓰다.
- ② 철이 들었다. - 철이 녹슬었다.
- ③ 다리를 건넜다. - 다리가 아팠다.
- ④ 시내를 건넜다. - 시내(市內)에 있다.
- 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 밤을 맛있게 먹었다.

10 관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래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 ② 일반적인 표현보다 표현 효과가 강하다.
- ③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 ④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낱말의 본래 의미에서 비롯된 말들이다.
- ⑤ 관용어 자체가 하나의 낱말처럼 쓰여서 관용어 중간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기 어렵다.

11 다음 중 관용어가 사용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그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 ② 오늘 내가 너의 콧대를 꺾어 주겠다.
- ③ 그렇게 비행기 태우면 진짜인지 알잖아.
- ④ 은채는 경수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 ⑤ 흥분을 잘하는 태서는 일의 앞뒤를 따지지 않는다.

12 '발'과 관련된 관용어에 대한 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발이 넓다 : 아는 사람이 많다.
- ② 발 벗고 나서다 : 적극적으로 나서다.
- ③ 발을 끊다 :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 ④ 발을 구르다 : 화가 매우 나서 다급해하다.
- ⑤ 발이 내키지 않다 :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서먹서먹하여 선뜻 행동에 옮겨지지 않다.

13 관용어와 속담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 ②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한다.
- ③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된다.
- ④ 흔히 하나의 낱말처럼 사용된다.
- ⑤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14 다음 [] 안에 들어갈 관용어로 적절한 것은?

선희는 백화점에서 그것을 본 이후로는 전부터 써 오던 카세트가 []. 그래서 어머니께 그것을 사 달라고 자꾸 졸랐다.

- ① 눈이 높다. ② 눈에 불을 켜다.
- ③ 눈에 차지 않다. ④ 눈도 깜짝 안 하다.
- ⑤ 눈에 흙이 들어간다.

15 신문 표제를 (가)에서 (나)로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가) 한국 축구팀 응원 함성, 대단히 컸다.
(나) 한국 축구팀 응원 함성, 하늘을 찌르는 듯

- ① 함축적이다. ② 인상적이다.
- ③ 표현이 간결하다. ④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휘요

16 다음 밑줄 친 낱말의 관계가 ㉠, ㉡과 같은 것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데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초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땀다 해도 시집살이 더 ㉡땀더라.

- ① 안경을 쓰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 ② 배가 아파서 맛있는 배를 먹지 못했다.
- ③ 그는 상처투성이인 다리로 긴 다리를 건넜다.
- ④ 그 선수는 말을 타고서도 시끄럽게 말을 한다.
- ⑤ 농번기 때 손이 부족하여 손을 씻는 것도 잊어버렸다.

17 밑줄 친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담이나 관용어는 와전이나 변형 과정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속담이 산업화 시대에 맞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로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속담이나 관용어는 사회적 변화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요, 꿈틀거리는 하나의 생명체임을 알 수 있다.

- ① 언어는 자꾸 변해 간다.
- ② 언어는 그 사회를 반영한다.
- ③ 속담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된다.
- ④ 속담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는다.

문법 지식 넓히기

1. 단어 의미의 종류

①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의미 예 여성 : 사람, 남성과 대립되는 말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예 여성 : 모성 본능이 있다. 꼼꼼하고 자상하다.

②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사회적 의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 선택된 단어의 종류나 말투, 그리고 문체 등에 의해서 전달됨
정서적 의미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 흔히 어조의 선택을 통해 전달됨

③ 주제적 의미와 반사적 의미

주제적 의미	말하는이나 글쓴이의 의도가 특별히 드러나는 의미. 흔히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드러남
반사적 의미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의 의미

2. 단어들의 의미 관계

① 유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에서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

- 의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의미의 차이를 일러 구별하여 말하기가 어렵다.
- 유의 관계의 단어들을 활용하면 풍요로운 문장 생활을 할 수 있다.
- 예 가끔 - 더러, 가난하다 - 빈곤하다, 얼굴 - 낯

② 반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

-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

예 해 ↔ 달, 양 ↔ 음, 뛰다 ↔ 걷다, 열다 ↔ 닫다

③ 상하 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상어어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하어어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

예 물고기 >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



Q1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동음 이의어는 문자 그대로 우연히 소리만 같지, 뜻이 다른 별개의 낱말입니다. 따라서 두 낱말 사이의 공통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다의어는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들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뜻이 있고, 의미의 유사성(類似性)에 따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脚)'와 '다리(橋)'는 동음 이의어인데, '책상다리', '지렛다리'의 '다리'는 다의어에 해당합니다.

Q2 '빛 좋은 개살구'는 속담인가요, 아니면 관용어인가요?

A '빛 좋은 개살구'는 경우에 따라서 속담이나 관용어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 의병이란 빛 좋은 개살구야. 문어 제 다리 찢라 먹는 격이지 뭐겠나.
(나) 재물 모은 사람치고 행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빛 좋은 개살구, 대궐 그보다 더한 집이든 머 하는고?

(가)의 '빛 좋은 개살구'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의 '빛 좋은 개살구'는 생략되어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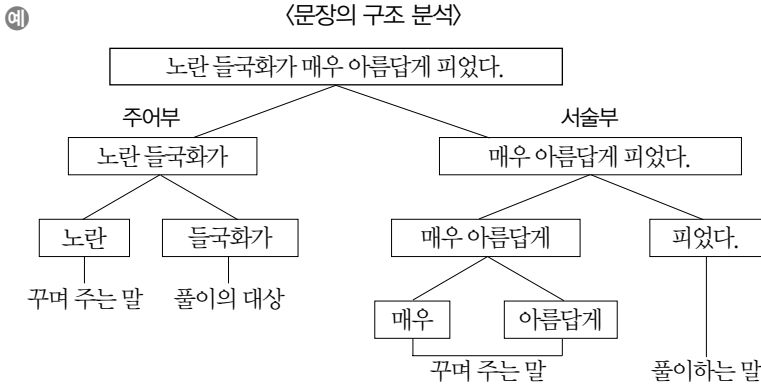
1. 문장 구조

① 문장 : 그 자체로써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계층적으로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언어 형식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 하나의 문장

② 문장의 구조 :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은 의미상 두 부분(주어부와 서술부)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문장을 연속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면,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낼 수 있다.

- ㉠ 주어부 : 행동의 주체가 되는 부분으로,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과 그것을 꾸며 주는 말로 구성된다.
- ㉡ 서술부 : 행동의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풀이하는 말과 그것을 꾸며 주는 말로 구성된다.



2.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한다.

- ① 주어 :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누가/무엇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서술어의 앞에 놓이며 필수 성분이지만 생략될 때도 있다.
 - 예 연우는 학생이다. / 꽃다발이 예쁘다. / 개미가 기어간다.
- ② 서술어 :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문장의 기동 구실을 한다.
 - 예 연우는 학생이다. / 꽃다발이 예쁘다. / 개미가 기어간다.
- ③ 목적어 : 서술어의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한다.
 - 예 철수는 밥을 먹는다. / 철수는 미회를 좋아한다.
- ④ 보어 :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으로 '무엇이', '누가'에 해당한다.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한다.
 - 예 영희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 철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 문장의 구성 요소

- 어절 < 구 < 절 < 문장
- ① 단어(單語) : 문법상의 일정한 뜻과 구실을 가지는 말의 최소 단위
 - ② 어절(語節) :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마디
 - ③ 구(句) :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절이나 문장의 한 성분이 되는 말
 - ④ 절(節)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더 큰 문장의 재료가 되는 것

● 문장의 기본 구조

- 누가/무엇이 + 무엇이다(체언 + 서술격 조사 '이다')
- 예 철수는 학생이다.
- 누가/무엇이 + 어떠하다(형용사)
- 예 단풍이 빨강다.
- 누가/무엇이 + 어찌하다(동사)
- 예 동생이 운다.

●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로, 7가지가 있음(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1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문장 성분은 7가지이다.
- ② 대체로 문장에서 서술어가 중심이 된다.
- ③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 한다.
- ④ 주어는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될 때도 있다.
- ⑤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어이다.

2 다음 중 행동의 주체가 되는 부분과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나눈 것은?

- ① 흰 눈이 수북이/쌓여 있다.
- ② 비 온 후에는/날씨가 차갑다.
- ③ 파릇한 새싹이 키가/부쩍 컸다.
- ④ 가을에는/낙엽들이 굴러 다닌다.
- ⑤ 파란 바다와 흰구름은/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다.

3 다음 문장을 분석하여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우리 강아지는 사료를 맛있게 먹는다.

- (1) 이 문장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쓰시오.
- (2) 이 문장에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어찌하고 있는지 쓰시오.

4 다음 중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구조로 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네가 나 밋었니?
- ② 그는 학생이 아니다.
- ③ 철수는 밥을 먹는다.
- ④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 ⑤ 누나는 음악을 듣는다.

5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가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서희는 늘 모범생이었다.
- ② 예지는 열심히 공부했다.
- ③ 영희는 작은 인형을 샀다.
- ④ 철수는 역시 운동을 잘한다.
- ⑤ 시계는 아침부터 멈춰 있었다.

6 다음 안에 들어갈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수는 이제 어엿한 되었다.

- ① 생략이 가능하다.
- ②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③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 ④ 일반적으로 '체언 + 조사'의 형태를 갖는다.
- ⑤ '되다, 아니다'가 주어 이외에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어려워요**

7 다음 중 목적어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는 문장은?

- ① 어디 가느냐?
- ② 너는 밥만 먹고 사느냐?
- ③ 내일 만나지는 약속뿐이었다.
- ④ 빨간 사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 ⑤ 이기는 것보다는 버티는 것이 더 어렵다.

8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2)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다.
- (3) 철수는 영화를 좋아하더니 영화감독이 되었다.

❖ 문장 ❖

1.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

① 문장

-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주성분)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며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

② 어절

- 띄어 쓰는 단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앞의 말에 붙어서 한 어절을 이룬다.

③ 구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
- 자체 내에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④ 절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
-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고,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문장 성분 - 주성분 ❖

1. 주어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성분

① 형식

㉠ 체언 + 주격 조사(이/가, 께서, 에서)

예 철수가 집에 있다.

㉡ 체언 + 보조사

예 철수만 집에 있다.

㉢ 구(句)나 절(節)

예 이 사람들이 왔다.

② 특징

㉠ 주어는 다른 성분보다 생략이 잘 된다.

㉡ 주어는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시었다. (높임 표현의 사용)

2.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성분

① 형식

㉠ 용언(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종결형

예 아기가 운다. 하늘이 푸르다. 그는 학생이다.

㉡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 연결 어미)

예 내가 성실한데 무슨 걱정이나.

㉢ 용언의 전성형(용언 어간 + 전성 어미)

• 관형사형 예 예쁜 꽃이 있었다.

• 명사형 예 돈을 주었음이 밝혀졌다.

• 부사절(파생 부사에 의한 것임)

예 철수가 말도 없이 갔다.

㉣ 서술절 예 너는 눈이 예쁘다.

㉤ '이다' 구성 : 원칙적으로는 '체언 + 이다'가 서술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체언 + 이다 예 이것이 책이다.

• 체언 + 보조사 + 이다

예 원서 접수는 내일까지이다.

• 용언의 활용형 + 이다

예 그가 성공한 때는 예순이 넘어서였다.

• 부사어 + 이다 예 그를 만난 것은 집에서였어요.

• 문장 + 이다 예 궁금한 것은 그가 합격하느냐이다.

② 서술어의 자릿수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에서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 자릿수에 의한 서술어의 종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자동사, 형용사)

주어 + 서술어

예 새가 운다. 꽃이 буд다. 날씨가 맑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서술어

주어 + 목적어/보어/부사어 + 서술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역에 밝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 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서술어(수어 동사, '삼다' 류 등)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예 부인은 청이를 양녀로 삼았다.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자릿수의 변화

같은 동사라도 문맥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진다.

예 차가 멈추었다. (한 자리 서술어)
경찰이 차를 멈추었다. (두 자리 서술어)

3.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

① 형식

- ㉠ 체언+목적격 조사(을/를)
 - 예 나는 사과를 먹었다.
- ㉡ 체언+보조사
 - 예 철수는 라면만 먹었다.
- ㉢ 명사구, 명사절, 문장 + 목적격 조사(을/를)
 - 예 나는 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② 특징

- ㉠ 조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 예 아침 먹고 나왔다.
- ㉡ 보조사 중에서 목적격 조사를 취하는 것도 있다.
 - 예 너만을 사랑해.

4. 보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대상이 되는 성분

① 형식

- ㉠ 체언+보격 조사(이/가)
 - 예 밥이 떡이 되다.
그는 중학생이 아니다.
- ㉡ 체언+보조사(-만, -도, -는/-은, ……)
- 예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② 보어의 개념과 성격

물이 얼음이 되었다./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위에서 '얼음'은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서술어 자릿수를 채워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각각 '이, (으)로'라는 조사가 쓰인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둘을 모두 보어로 보

고, '이/가', '(으)로'를 모두 보격 조사로 본다면, '집으로 가다'의 '(으)로'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Q1 '이번 주에 학교에서 기말 시험 일정을 발표할 것입니다.'의 '학교에서'는 주어라 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주어가 됩니다. 주어는 대개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하고 (예 철수가, 선생님께서), 체언에 보조사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철수는). 그 밖에 체언이 단체 무정 명사일 경우에는 '에서'가 붙어서 주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정부에서). 학계 일부에서는 '정부에서'와 같은 것을 부사어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장을 주어 (예 '공무원들이' 정도)가 생략된 표현으로 보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단체 주격으로 봅니다.

Q2 '(가) 흰 눈이 내린다. (나) 새 모자를 썼다.'에서 '흰 눈'과 '새 모자'는 구와 절 중에서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절(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구(句)는 그렇지 않지요. 원래 절이란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종결의 표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에서 '흰 눈'은 '눈이 희다'로 주술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 표지가 없기 때문에 절(관형절)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 (나)의 '새 모자'는 '모자가 새다'라는 비문이 되어 주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節)이 되지 못하고 구(句)가 되는 것이지요.

Q3 신문 기사에 난 '청소년 축구 세계 제패'에서 '제패'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가요?

A 이 신문 표제의 의미는 '청소년 축구팀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입니다. 즉, '청소년이 축구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뜻이 되지요. 따라서 '세계'는 목적어이고, '제패'는 '제패하다'라는 용언에서 '-하다'가 빠진 경우이기에 서술어입니다.

1. 부속 성분

문장은 주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자세히 꾸며 주는 성분이다.

예) 소녀의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난다.

- 주성분 : 눈동자가 - 주어 빛난다 - 서술어
- 부속 성분 : 소녀의 — 까만 - 관형어 초롱초롱 - 부사어

→ 주성분은 문장의 기본 의미를 결정짓고, 부속 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면서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① 관형어 : 주로 사물, 사람과 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 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의 부속 성분이다.

예) 소녀의 까만 눈동자 - '어떤, 무슨' 등에 해당하는 말

② 부사어 : 일반적으로 서술어를 꾸며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문장의 부속 성분이다. 그러나 때로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를 꾸며 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예) 초롱초롱 빛난다 - '어떻게, 어디서' 등에 해당하는 말

③ 관형어와 부사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관형어	부사어
공통점	꾸며 주는 역할을 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으로 쓰이지 못함 • 필수 성분이 아님 • 주로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놓임 예) <u>멋진</u> 선생님 •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음 •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예) 동생이 <u>집에</u> 있다./<u>집에</u> 동생이 있다. •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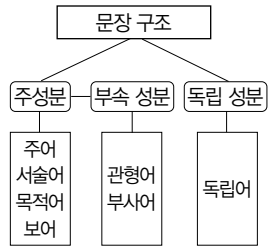
2. 독립 성분

독립 성분은 문장의 주성분, 부속 성분과 구별되는 성분이다.

① 독립어 :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 종류
 - 부름 예) 철수야, 빨리 밥 먹으러 오너라.
 - 감탄 예) 어머나, 아기가 물을 엮질렀구나!
 - 응답 예) 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 문장 성분의 종류



-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어절이 기본 단위가 된다.(품사를 분석할 때에는 단어가 기본 단위가 된다.)

● 필수 성분인 부사어

본래 부사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일부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된다.

- 예) •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 혜영이가 장미를 선생님께 드렸다.
- 교장 선생님께서 미영이에게 상장을 수여하셨다.

1 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 ② 보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 ③ 문장 안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 ④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지 못한다.
- ⑤ 주로 주성분을 자세하게 꾸며 준다.

2 다음 문장에서 각 부분의 문장 성분을 바르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 ① 차가운 - 관형어 ② 바람이 - 주어
- ③ 문틈으로 - 부사어 ④ 살며시 - 관형어
- ⑤ 들어왔다 - 서술어

3 다음 중 관형어가 쓰이지 않은 문장은?

- ① 파란 하늘이 몹시 눈부시다.
- ② 철수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 ③ 나는 친구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
- ④ 과연 너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 ⑤ 공부하던 영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4 다음 밑줄 친 낱말이 꾸며 주는 부분은?

제발, 철수야 숙제 좀 해라!

- ① 철수야 ② 숙제 ③ 좀
- ④ 해라 ⑤ 문장 전체

5 독립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수 성분이 아니다.
- ②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 ③ 뒤에 오는 대상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한다.
- ④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⑤ 문장 안에서 위치는 문장 앞이나 뒤가 일반적이다.

6 다음 중 품사와 문장 성분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철수	는	예쁜	눈	을	가졌다.
	명사	조사	형용사	명사	조사	동사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②	철수	는	예쁜	눈	을	가졌다.
	명사	조사	형용사	명사	조사	동사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③	철수	는	예쁜	눈	을	가졌다.
	명사	조사	형용사	명사	조사	동사
	주어		부사어	보어 서술어		

④	철수	는	예쁜	눈	을	가졌다.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⑤	철수	는	예쁜	눈	을	가졌다.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형용사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7 다음 문장에서 독립어를 찾고, 그것이 부름, 감탄, 응답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는지 쓰시오.

(1) 아차,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2) 아니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8 다음 중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 ① 끄다 ② 자다 ③ 주다
- ④ 먹는다 ⑤ 사랑하다

9 관형어와 부사어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가.
- ②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가.
- ③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가.
- ④ 문장의 기본 의미를 결정짓는가.
- ⑤ 꾸밈을 받는 낱말의 품사가 무엇인가.

❖ 문장 성분 - 부속 성분 ❖

1. 관형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① 형식

㉠ 관형사 :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됨

예 새 옷을 입었다.

㉡ 체언 + 관형격 조사

예 나의 작은 천사가 자고 있다.

㉢ 용언의 관형사형

예 나의 작은 천사가 자고 있다.

② 특징

㉠ 부사어는 단독으로 쓰이지만,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예 이게 그 책이니? 응, *그.

㉡ 반드시 체언 앞에만 놓인다.

예 그 책, 새 책

③ 관형사형의 기능

㉠ 관형사형 어미(-는, -(으)나, -(으)르, -던)를 통해 시간을 표현한다.

㉡ 대체로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때에는, 꾸밈을 받는 체언이 용언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되고, 관형사형은 서술어가 된다.

예 붉은 산을 보았다. - 산이 붉다.

길에서 주웠던 돈이 수포였다. - 돈을 주웠다.

내가 살았던 2003년은 - 2003년에 살았다.

④ 관형어에 의한 중의성

슬픈 곡예사의 운명

위의 문장은 '슬픈'이 수식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슬픈 곡예사'라는 의미와 '슬픈 운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은 수식어를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옮겨 놓거나, 반점(.)을 사용하면 해소될 수 있다.

• '곡예사의 슬픈 운명'이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

→ 곡예사의 슬픈 운명/슬픈, 곡예사의 운명

• '마음이 슬픈 곡예사의 운명'이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

→ 슬픈 곡예사의, 운명

2. 부사어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문장 성분

① 형식

㉠ 부사

예 잘 잔다.

㉡ 부사 + 보조사

예 몹시도 추운 날씨

㉢ 체언 + 부사격 조사

예 집으로 돌아가다. (처소)

종이로 학을 접다. (도구)

동생보다 키가 크다. (비교)

친구한테서 소식을 들었다. (출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원인)

철수와 등산을 했다. (동반)

사람으로서 못 할 일이다. (자격)

얼음으로 되다. (변화)

② 특징

㉠ 보조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취한다.

㉡ 자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나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체언을 꾸밀 때에는 어렵다.

㉢ 부정 부사어(아니, 못)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 관형어와는 달리 주어진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③ 부사어의 종류

㉠ 성분 부사어 :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

• 용언 수식 예 빨리 가자.

• 부사 수식 예 매우 빨리 달린다.

• 관형사 수식 예 아주 새 옷이다.

• 체언 수식 예 특히 너는 조심해!

㉡ 문장 부사어 :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말하는이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부사들은 특별한 말들과 호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예 과연 그 말이 정답이구나.

다행스럽게도 사고 현장에 그는 없었다.

만일 네가 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사과할게.

㉔ 접속 부사어 : 문장에서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 문장 접속 부사 :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등
- 단어 접속 부사 : 및 등

④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㉑ 부사어(체언 + 과/와) - '같다, 다르다, 닮다'

예 예지는 어머니와 닮았다

㉒ 부사어(체언 + 예/에게) - '놓다, 두다, 다가서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라

㉓ 부사어(체언 + 에게) - 수여 동사

예 예지가 너에게 책을 주었다

㉔ 부사어(체언 + (으)로) - '삼다, 변하다'

예 어머니는 예지를 양녀로 삼으셨다

㉕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 + 부사격 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서, 다니다, 부르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맛다, 적합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컫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 문장 성분 - 독립 성분 ❖

1.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장 성분

① 형식

㉑ 감탄사

예 아아, 겨울인가!

㉒ 체언 + 호격 조사(아/야/이여)

예 민중이여, 끈기하라.

㉓ 제시하는 말(표제어)

예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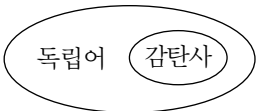
㉔ 명령어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예 조용! / 어서! / 싫어! / 차렷!

② 독립어를 생략해도 문장은 완전히 성립된다.

예 (야!) 드디어 우리들이 기다리던 소풍날이 왔다.

③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되지만, 독립어가 모두 감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독립어와 문장 부사 구분

- 독립어 : 꾸밈을 받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문장 부사 : 꾸밈을 받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예 불행히도 용기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 용기가 없는 분이어서 불행하다는 의미이므로 '불행히도'는 문장 부사이다.



Q1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다.'에서 '바로'는 '너'라는 대명사, 즉 체언을 꾸미고 있으니 관형어라고 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다.'에서 '바로'는 원래 부사로 쓰이는 것이 체언 '너'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체언 앞에서 체언의 내용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맞지만, 여기서는 '바로'를 '체언 수식 부사'로 보기에 '부사어'로 처리해야 합니다.

Q2 영어에서 둘 이상의 형용사가 쓰일 때에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듯이, 국어에서도 둘 이상의 관형어가 연결이 될 때에 일반적인 규칙이 있나요?

A 국어의 한 문장에서 둘 이상의 관형어가 연이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시 관형어 + 수 관형어 + 성상 관형어'의 순서로 자리합니다. 예를 들어 '그 두 낡은 집은 나란히 해변가를 따라서 있었습니다.'에서 '그, 두, 낡은'은 모두 관형어이면서 같이 쓰이고 있지요. 여기서 '그'는 지시 관형어, '두'는 수 관형어, '낡은'은 성상 관형어입니다. 하지만 국어에서는 어순의 규칙이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Q3 '똑바로 앉아라.'의 '똑바로'와 '여기에 앉아라.'의 '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똑바로 앉아라.'의 '똑바로'는 '앉아라'라는 동사, 즉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품사는 부사어이며, 문장 성분은 부사어입니다. 한편, '여기에 앉아라.'의 '여기'는 뒤에 조사가 오기 때문에 체언, 즉 지시 대명사이고, '여기'는 부사어입니다.

1. 높임 표현

말하는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한다.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 ① 상대 높임법: 말하는이가 듣는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계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 ②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시다', '잡수시다' 등 일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 직접 높임: 주어와 직접 높일 때 사용 **예**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 ㉡ 간접 높임: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 **예**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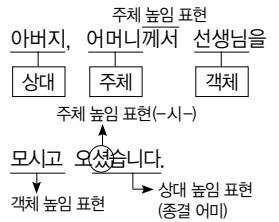
- ③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로 특수 어휘, 그 중 특수한 동사를 사용한다.

- 예**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2. 부정 표현

'안' 부정문	어떤 내용의 단순 부정, 또는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	긴 부정문	용언 '않다'에 의한 부정문 예 영희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짧은 부정문	부사 '안(아니)'에 의한 부정문 예 영희는 운동을 안 했다.
'못' 부정문	주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	긴 부정문	용언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 예 영희는 운동을 하지 못했다.
		짧은 부정문	부사 '못'에 의한 부정문 예 영희는 운동을 못 했다.
'-지 말-' 부정문	명령문, 청유문에 쓰이는 부정	명령문 예 집에 가지 말아라. 청유문 예 학교에 가지 말자.	

● 높임 표현



● 상대 높임의 형태

- 격식체
 -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 하오체(예사 높임)
 - 하계체(예사 낮춤)
 - 해라체(아주 낮춤)
- 비격식체
 - 해요체(두루 높임)
 - 해체(두루 낮춤)

● 주체 높임법 '-께서'

주체를 높일 때에는 주격 조사 '께서'가 선어말 어미 '-(으)시-'와 호응하여 쓰인다.

● '-지 말-'의 쓰임

소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등의 동사가 오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더라도 '-지 말다'를 쓰기도 한다.

- 예**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랐다.
네가 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1 다음 중 높임 표현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할아버지가 주무십니다.
- ② 아버지께서 9시에 오셨다.
- ③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 ④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 보았다.
- ⑤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2 다음 <보기>의 문장에서 상대, 주체, 객체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

보기
㉠철수야 ㉡네가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상대	주체	객체		상대	주체	객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 다음 <보기>의 문장을 높임의 단계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기
㉠그러면 그렇지.
㉡가는 대로 편지 보내마.
㉢어제는 비가 많이 왔지요?
㉣내가 너무 흥분하였던 것 같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산책 나온 셈 치십시오.
㉥이 얘기를 어찌서 계속하여야 하는 지 모르겠구려.

	격식체			비격식체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4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 (1) 어머니가 형에게 용돈을 드렸어.
- (2) 할머니는 요즘도 밥을 잘 먹는다.

5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 안에서 고르시오.

- (1) 어젯밤에 차가 끊겨서 집에 가지 (못했다, 말았다).
- (2) 우리는 그 곳에 다시는 가지 (않자, 말자)고 약속했다.
- (3) 그를 무척 만나고 싶었지만, 나는 만나지 (않기, 못하기)로 했다.

6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 (1) 오락실에 가지 않자.
- (2) 그 길은 안 구불구불하다.

 **어려워요**

7 다음 중 높임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상대, 주체, 객체)

- ①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다.
- ② 저분이 너의 할아버지이시다.
- ③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 ④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 ⑤ 할머니께서 고모에게 꾸지람을 하셨다.

8 다음 문장에서 ‘-지 말-’ 부정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

함박눈이 펄펄 내리기를 다함께 기도하자.

문법 지식 넓히기

❖ 높임 표현 ❖

1. 상대 높임법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하여 있음

- ① 상대 높임의 방법 : 일정한 종결 어미를 사용
- ② 상대 높임의 구분

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이와 듣는이 사이의 거리가 멀 때 • 심리적인 거리를 나타냄 • 공식적, 의례적, 객관적, 직접적, 권위적
비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가까울 때 • 정감적이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 • 비공식적, 일상적, 주관적, 간접적, 친화적

③ 상대 높임의 형태

격식체	하십시오체	-십시오, -나이다, -옵시다 등
	하오체	-오, -소, -구려, -리다 등
	하게체	-게, -네, -나, -는가, -세 등
	해라체	-어라, -느냐, -다, -자, -마 등
비격식체	해요체	-어요, -지요, -군요, -르까요 등
	해체	-어, -야, -지, -나 등

- ④ 공손법 : 말하는이가 특별히 자신을 낮추는 공손한 표현을 써서 듣는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손 선어말 어미 '-오-/-옵-, -삼-/-사오-, -잡-/-자오-, -자옵-' 등을 사용한다. 오늘날에는 편지, 광고문 등의 문어체에만 조금 남아 있다.

예) 법사님의 말씀을 듣^ㅅ잡고 큰 감동을 받았^ㅅ사옵니다.

2. 주체 높임법

말하는이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일 때 사용됨

① 주체 높임의 방법

- ㉠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실현

[용언의 어간] + [-(으)시-] + [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 ㉡ 일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 예) 계시다, 잡수시다
- ② 주체 높임의 적용 대상
- ㉢ 말하는이는 언제나 높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한다.

예)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시입니다.

- ㉤ 주체가 말하는이보다 낮아도 듣는이보다 높을 경우 '-(으)시-'를 쓸 수 있다. (예) 자네가 우리 공주의 스승이신군.)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체 높임법은 주체가 말하는이보다 높음이 필수적 조건이다.

③ 주체 높임법의 제한

- ㉦ 높임 대상 인물을 말하는이 자신과의 개별적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예) •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이다.

→ 공적, 객관적 서술

•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이^셨다.

→ 사적, 자신과의 친근 관계로 서술

- ㉧ 듣는이와의 관계에 따라 '-(으)시-'가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한다.

예) • 너의 아버지 돌아오셨^니?

→ 주체가 말하는이보다 높고, 듣는이보다 높다는 사실을 중시한 표현

• 너의 아버지 돌아왔니?

→ 주체가 말하는이보다 낮음을 중시한 표현

- ④ 압존법 : 듣는이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임을 하지 않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말하는이보다 높은 사람을 모두 높여 표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 ⑤ 간접 높임 :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법으로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개인적 소유물이 되는 말은 '-(으)시-'를 붙여 간접 높임으로 표현한다.

예) 그분은 귀가 밝으십니다.

-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으)시-'가 붙은 '있으시다'와 특수 어휘 '계시다'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쓰임은 같지 않다.

예)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계시다.

→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에만 쓰인다.

3. 객체 높임법

- ① 객체 높임의 방법 : 말하는이가 서술의 대상(목적어나 부사어)을 높이는 어휘를 사용
 →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계시다, 뵙다’ 등
- 예)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뭘가 드렸습니다.
 (서술의 대상-부사어) (주다→드리다)

4. 어휘 높임법

- ① 높임말 : 상대방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

직접 높임말	아버님, 선생님,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간접 높임말	진지(밥), 맥(집), 따님(딸), 차아(이), 약주(술), 말씀(말)

- ② 낮춤말 : 자기를 낮추고자 할 때 사용

직접 낮춤말	저(나), 소생(나), 어미(어머니)
간접 낮춤말	졸고(원고), 말씀(말)

→ ‘말씀’은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엔 낮춤말로, 그밖에는 높임말로 쓰인다.

❖ 부정 표현 ❖

1. ‘안’ 부정문

- ① 부정의 방법
- ㉠ 서술어가 ‘체언 + 이다’일 때
- ‘이다’ → ‘-가/-이 아니다’
- 예) 이것은 책상이다. →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
 (*이것은 안 책상이다.)
- ㉡ 서술어가 동사·형용사일 때
- 동사·형용사 어간 + ‘-지 않다’ : 긴 부정문
 - ‘안(아니)’ + 동사·형용사 : 짧은 부정문
- ② ‘안’ 부정문의 제약
- ㉠ ‘체언 + 하다’로 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체언 + 안 + 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 예) 철수는 공부 안 한다. (*철수는 안 공부한다.)
- ㉡ ‘견디다, 알다, 깨닫다’처럼 부정 의지의 표현이 어려운 동사에는 ‘못’ 부정문이 쓰인다.
- ㉢ 평서·감탄·의문문에만 쓰이고 명령·청유문에 쓸 수 없다.
- 예) *책을 읽지 않자. *책을 읽지 않아라.

2. ‘못’ 부정문

- ① 부정의 방법
- ㉠ ‘체언 + 하다’로 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체언 + 못 + 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 ㉡ 서술어가 동사일 때
- 동사의 어간 + ‘-지 못하다’ : 긴 부정문
 - ‘못’ + 동사(서술어) : 짧은 부정문
- ② ‘못’ 부정문의 제약 : 형용사에는 안 쓰는 것이 원칙이나, 형용사에 쓰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할 때’라는 뜻이며 긴 부정문을 쓴다.
- 예) 콩쥐는 예쁘지 못하다.

3. ‘-지 말-’ 부정문

- ① 부정의 방법 : 명령문은 ‘-지 말라’, 청유문은 ‘-지 말자’로 실현된다.
- ② ‘-지 말-’ 부정문의 제약
- ㉠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 예) 콩쥐야, 나쁘지 말아라.(×)
- ㉡ 평서문, 의문문에는 대체로 쓰일 수 없다.
- 예) *학교에 가지 만다.



Q1 ‘그런 말을 하면 못해요.’에서 ‘-쓰지 못하다.’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 표현 중에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의 ‘못쓰다’라는 말은 ‘바르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하다’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못쓰다’는 합성어이므로 정서법상 붙여 써야 합니다.

Q2 ‘안’과 ‘않-’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안’은 부정 부사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부정 보조 용언의 어간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용언의 앞일 때에는 부사인 ‘안’을 쓰고, 용언의 뒤일 때에는 보조 용언인 ‘않’을 씁니다. 예) 안 먹었다. 먹지 않았다.

1. 시간 표현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들을 시제(時制)라고 한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시제는 대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시	• 발화시 : 말하는이가 말하는 시점
제	• 사건시 :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았-/었-’ (-았었-/이었었-) 예 철수는 학원을 다녔었다. • 동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아까 먹은 주스가 또 먹고 싶어졌다. •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던’ 예 귀엽던 동생이 많이 컸다. • 시간 부사어(어제, 옛날 등) 예 어제 비가 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에서는 ‘-는-/ㄴ-’, ‘-’, 관형사형 어미 ‘-는’ 예 철수는 학원을 다닌다. •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없이 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귀여운 동생이 있다. • 시간 부사어(지금, 오늘 등) 예 지금 비가 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어말 어미 ‘-겠-’, ‘-(으)리-’ 예 학원을 다니겠습니다.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또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형 ‘-(으)ㄴ 것이-’ 예 여기 떠날 사람이 있다. / 선생님이 곧 오실 것이다. • 시간 부사어(내일 등) 예 내일 비가 올 것이다.

2. 피동과 사동 표현

① 능동과 피동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뉜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能動)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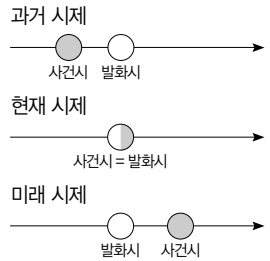
- 예** • 고양이가 쥐를 몰었다 → 능동문
- 쥐가 고양이에게 몰렸다 → 피동문

② 주동과 사동

문장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뉜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 예** • 아이가 밥을 먹는다 → 주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 사동문

• 시간 표현



• 선어말 어미 ‘-겠-’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 예** 그는 벌써 도착했**겠**습니다.
- 그 일은 꼭 성공하**겠**습니다.

• 회상 선어말 어미 ‘-더’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한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다음에는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던’이 쓰인다.

• 피동과 사동

(주동)	{ 먹다 } (능동)	{ 먹히다 } (피동)
(사동)		

• 접사에 의한 피동과 사동

접사에 의한 피동	-이-, -히-, -리-, -기-
접사에 의한 사동	-이-, -히-, -리-, -기-, -우-, -구-, -추-

1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를 나타낸 것이다.
- ②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겠-'이 있다.
- ③ 선어말 어미와 시간 부사어 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④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경우는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현재가 아닌 것은?

- ① 동생은 귀엽다.
- ② 비가 곧 내릴 것 같다.
- ③ 옆집 꼬마는 유치원에 다닌다.
- ④ 노래하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 ⑤ 지금 그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3 다음 문장에서 '어제'를 '내일'로 고칠 때, 밑줄 친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쓰시오.

어제 천둥 번개가 쳐서 무서웠다.
→ 내일 천둥 번개가 치면 () .

4 다음 <보기>의 시에서 밑줄 친 말의 시제가 다른 하나는?

보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 능동 ㉡ 피동 ㉢ 주동 ㉣ 사동

- (1)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 (2)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

6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개에게 물렸다.
- ② 나무가 썩었다.
- ③ 하수구가 막혔다.
- ④ 종이가 찢어졌다.
- ⑤ 환자에게 약을 먹였다.

7 다음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
→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 .

어려웁요

8 다음 중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옷에 먼지를 문혔다.
- ② 의자의 높이를 높혔다.
- ③ 철수네는 토끼를 먹인다.
- ④ 철수에게 한복을 입혔다.
- ⑤ 미영이는 철수를 속였다.

9 다음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사동문에서 밑줄 친 것의 문장 성분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 ④ 관형어 ⑤ 부사어

❖ 시간 표현 ❖

1. 과거 시제

- ① 회상 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
- ㉠ 흔히 종결 어미 ‘-라, -냐, -군(요)’의 앞에서 나타난다. → ‘-더라’, ‘-더냐’, ‘-더군(요)’
 - ㉡ 주로 과거 회상의 의미를 지닌다. 단, 주어가 말하는 이(1인칭) 자신일 때에는 종결형에서 쓰이지 않는다.
 - 예 그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 나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 ② ‘-았었-/-었었-’의 쓰임
- ㉠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절의 의미를 뚜렷이 한다.
 - ㉡ ‘-았었-/-었었-’이 쓰인 문장에는 과거 관련 시간 부사어가 자주 나타난다.
 - 예 나는 지난 겨울에 네가 살던 곳을 갔었다.
 - ㉢ ‘-았었-/-었었-’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쓰인다.
 - 예 차범근은 젊은 시절 축구 선수였었다.
- ③ 과거 시제 사용의 특수한 경우
-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완결/완결 지속’(현재), ‘실현 인식’(미래)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 ㉠ 완결(현재)
 - 예 나는 조금 전에 왔고 경숙이는 지금 왔어.
(방 안에 막 들어서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 뚜렷하게 과거를 나타낸다고보다 이미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 동작의 완결 지속(현재)
 - 예 너, 누구 닮았니? /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 ㉢ 실현 인식(미래)
 - 예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넌 내일 학교 가면 혼났다.
또 넘어졌니? 이렇게 흥터가 많으니 너 이 다음에 장가는 다 갔다
→ 확신하는 사건이나 사태에 쓰여, 실현될 것에 대한 ‘실현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현재 시제

- ① 특징
- ㉠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현재 시제 표시 형태가 따로 없다. (기본형과 일치함)
 - ㉡ 의문문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느-’가 쓰인다.
 - 예 콩쥐는 무얼 먹고 사느냐?
 - ㉢ 발화시 관련된 부사적 표현에 의해 뒷받침된다.
 - 예 지금, 현재, 요즘 등
 - ㉣ 관형사형 어미에 의한 시제는 상대적 시제이므로 발화시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 예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시제이나,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읽는’은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이다.)
- ② 현재 시제 사용의 특수한 경우
- ㉠ 보편적 진리 예 지구는 돈다
 - ㉡ 확실한 미래 예 내일 이도령과 만나다

3. 미래 시제

- ① 선어말 어미 ‘-겠-, -(으)리-’의 쓰임
- ㉠ ‘-(으)리-’는 중세 국어에서 활발히 사용되다가 현재는 드물게 쓰이고, 근대 국어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겠-’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 ㉡ ‘-겠-, -(으)리-’의 의미

미래와 추정	예 어서 가자. 학교에 늦겠다.
미래와 의도	예 이곳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
의지	예 내일 가겠다. 내일 가리다.
확신, 강조	예 출발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리라.

- ② ‘-(으)ㄹ 것이-’의 쓰임
- ㉠ 관형사형 어미 ‘-(으)ㄹ’ + 의존 명사 ‘것’
 - ㉡ ‘-겠-’과 같이 미래 뿐 아니라 추정·추측·의지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겠-’에 비해 다소 간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 예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오겠습니다)

4. 동작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① 완료상 :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는 양상

예 자장면을 다 먹어 버렸다.

② 진행상 : 동작의 진행을 표시하는 양상

예 바람이 세계 불고 있다.

❖ 피동과 사동 ❖

1. 피동문 만들기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에게/에’ 외에 ‘에 의해(서)’가 붙기도 한다.

① 파생적 피동문 : 능동사의 어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짐

예 능동문 :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피동문 :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② 통사적 피동문 : ‘-되다’,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서 만들어짐

예 이것은 저것과 관련된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2. 사동문 만들기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① 파생적 사동문 : 주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서 만들어짐

예 주동문 : 팔쥐가 짐을 졌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사동문 : 콩쥐가 팔쥐에게 짐을 지웠다.
 새로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② 통사적 사동문 : ‘-게 하다’ 로 실현됨

예 차를 뮌추게 했다.

3.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구분하기

(가)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나)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① (가)와 같이 대개 파생적 사동문은 주어가 객체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내고,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낸다.

② (나)와 같은 경우에는 파생적 사동문이든 통사적 사동문이든 모두 간접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Q1 “내일 떠난다.”에서 ‘떠난다’의 시제는 무엇인가요?

A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할 때에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떠난다’는 발화시 이후의 사건시인 미래 시제입니다.

Q2 “콩쥐는 오늘 학교에 결석했다.”에서 ‘결석했다’의 시제는 무엇인가요?

A 위의 문장은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입니다. 이와 같이 ‘-았/-었-’이 과거를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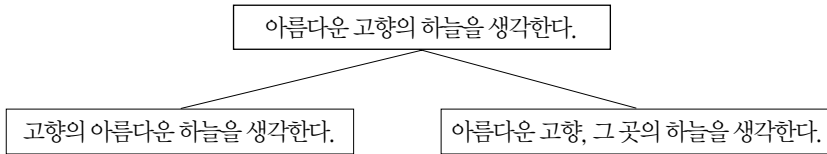
Q3 ‘정답을 맞추다.’와 ‘정답을 맞히다.’ 중 어떤 것이 어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A 먼저 ‘맞추다’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시험을 본 후에 시험의 답을 정답이나 다른 사람의 답과 비교해 볼 때는 ‘맞추다’가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예 시험이 끝나자 아이들은 서로 답을 맞추어 보느라 바빴다.

한편,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정답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나 퀴즈에서 제시한 답이 정답과 일치하게 할 때는 ‘맞히다’가 어법에 맞는 표현이지요. 예 아이는 수수께끼의 답을 맞히지 못했다.

1. 문장의 중의적 표현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표현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이 때에 의미를 한정해 주는 문맥이나 상황이 있다면, 중의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2. 중의적 표현의 종류

① 어휘적 중의성

다의어에 의한 중의성	예 그는 손이 크다. → 씹씹이가 크다. / 신체의 일부인 '손'의 크기가 크다.
동음 이의어에 의한 중의성	예 이것은 배이다. → 신체의 일부인 복부 / 선박 / 배나무의 열매

② 구조적 중의성

수식어 중복에 의한 중의성	예 손이 작은 철수와 영희 → 손이 작은 철수와 손이 작은 영희 / 영희와 손이 작은 철수
주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예 아내는 남편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 →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이를 사랑한다. /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
수(數)를 나타내는 품사에 의한 중의성	예 5명의 아군이 10명의 적군을 쏘았다. → 5명의 아군이 각각 적군 10명씩을 쏘았다. / 5명의 아군이 쏜 적군이 모두 10명이다.
부정하는 대상에 의한 중의성	예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 버스를 탄 것은 내가 아니다. / 내가 탄 것은 버스가 아니다. / 나는 표만 끊었고 버스를 타지 않았다.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	예 이것은 할머니의 그림이다. → 내가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다. /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다. /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다.

3. 중의성의 제거

- ① 정보의 추가 예 저 눈 좀 봐라. → 저 평평 쏟아지는 눈 좀 봐라.
- ② 심포의 사용 예 잘생긴 삼촌의 친구 → 잘생긴, 삼촌의 친구
- ③ 어순의 조절 예 나는 영희와 철수를 만났다. → 영희와 나는 철수를 만났다.

● 중의적 표현의 기능

긍정적 기능	문학 작품의 표현미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부정적 기능	의미 해석에 혼동을 가져와 의사 소통을 방해한다.

● 비유적 중의성

보조 관념이 갖는 속성의 다양함으로 인한 중의성

- 예 나는 왕이다.
→ 우두머리이다. /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 왕의 역할을 맡았다.

● 중의성 제거 방법

동음 이의어에 의한 중의성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이름 동의어)로 바꾼다.

- 예 나는 부지를 보았다.
→ 나는 아버지~~와~~ 아이들을 보았다.

1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그녀는 눈을 보며 이야기한다.
- ②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다.
- ③ 파란 바다의 흰 갈매기를 그렸다.
- ④ 부지런한 철수와 순이가 오고 있다.
- ⑤ 예쁜 소녀의 눈은 무척 슬퍼 보였다.

2 다음 문장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철수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 ① 오늘 철수는 버스를 탔지, 택시를 타지 않았다.
- ② 오늘 철수는 택시를 타지 않고 내일 탈 것이다.
- ③ 오늘 철수는 택시를 잡기만 했지, 타지는 않았다.
- ④ 다른 사람은 택시를 탔는데, 철수는 타지 않았다.
- ⑤ 다른 날은 철수가 택시를 탔는데, 오늘은 타지 않았다.

3 다음 문장을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은?

- ① 저 배 좀 보아라. → 저 맛있는 배 좀 보아라.
- ② 멋진 선생님의 애인 → 멋진, 선생님의 애인
- ③ 철수가 가지 않았다. → 철수까지 가지 않았다.
- ④ 나는 어머니와 선생님을 만났다. → 어머니와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 ⑤ 예지는 미영이와 길동이를 보았다. → 예지는 미영이와 함께 길동이를 보았다.

4 다음 문장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이 차다

- ① 만월이다. ② 만기가 되다.
- ③ 만삭이 되다. ④ 기간이 넘었다.
- ⑤ 달빛이 차갑다.

5 다음 문장이 중의적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쁜 소녀의 인형 : 수식어의 중복에 의해
- ② 이것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 조사 '의'에 의해
- ③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 부정하는 대상에 의해
- ④ 영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주어의 개수에 의해
- ⑤ 3명의 선생님이 학생 12명을 만났다. : 수(數)를 나타내는 품사에 의해

 **어려워요**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집은 여느 집과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린 동생이 왕이고**, 또 하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왕을 보러 한 분도 빠짐없이 친척들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은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분들은 오셔서 가실 때까지 그 왕과만 이야기하고, 그 왕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불만을 말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소리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왕을 보았다. 너무나 집이 조용했기에 나는 그 왕에게 물었다.

“친척분들 오시지 않았니?”

그러자 들뜬 목소리로 왕은 대답했다.

㉡**“응, 다 오시지 않았어.”**

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생은 우두머리이다.
- ② 동생은 왕처럼 군림한다.
- ③ 동생은 왕의 역할을 맡았다.
- ④ 동생은 왕처럼 떠받들어진다.
- ⑤ 동생은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7 ㉡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쓰시오.

문법 지식 넓히기

❖ 중의적 문장의 종류 ❖

1. 수식의 모호성(수식어의 중복)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은 가까이 놓여 있을 수록 수식 관계가 분명해진다.

예쁜 그녀의 어머니는 꽃집에서 장미를 샀다.

→ ‘예쁜’이 ‘그녀’를 꾸미는지, ‘그녀의 어머니’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 그녀가 예쁠 경우
 - 예쁜 그녀의, 어머니는 꽃집에서 장미를 샀다.
- ㉡ 그녀의 어머니가 예쁠 경우
 - 그녀의 예쁜 어머니는 꽃집에서 장미를 샀다.

2. 비교 구문의 모호성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되는 대상이 불분명하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

큰오빠는 언니보다 나를 더 예뻐한다.

- ㉠ ‘언니’와 ‘나’가 비교 대상임(오빠가 예뻐하는 사람)
 - 큰오빠는 언니와 나를 예뻐한다. 그러나 나를 더 예뻐한다.
- ㉡ ‘오빠’와 ‘언니’가 비교 대상임(나를 예뻐하는 사람)
 - 큰오빠와 언니는 둘다 나를 예뻐한다. 그러나 큰오빠가 나를 더 예뻐한다.

3. 의존 명사 구문의 모호성

무의미한 의존 명사를 사용하거나, 지시 대명사의 지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 걷는 방법이 이상함
 - 그가 걸음이 이상하다.
- ㉡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함
 -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4. 병렬 구문의 모호성

‘와/과’가 홑문장에 단어 접속 조사로 쓰였는지, 겹문장에 문장 접속 조사로 쓰였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농촌 총각과 섬 처녀는 결혼하기 어렵다.

- ㉠ 단어 접속 조사(홑문장)
 - 농촌 총각과 섬 처녀는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 어렵다.
- ㉡ 문장 접속 조사(겹문장)
 - 농촌 총각도 결혼하기 어렵고, 섬 처녀도 결혼하기 어렵다.

5. 부정확한 단어의 사용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에 속한다.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 ‘이상’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지 못하게 되었다.
- ㉠ 커피 한 잔은 마셔도 괜찮지만 두 잔 이상은 해롭다.
 - ㉡ 커피는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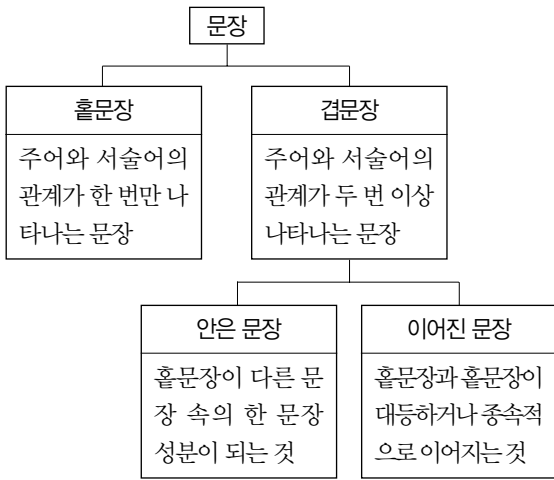
6. 문장 성분 간의 모호성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모호하여 중의적 문장이 된 경우로 삽표를 사용하여 의미가 명확한 문장으로 고칠 수 있다.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 판매원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손님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 ㉠ 판매원이 웃으며 인사를 함
 -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 ㉡ 손님이 웃으며 들어옴
 -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 문장의 짜임 ❖ - 교과서 외 문법 지식



1.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을 안긴 문장이라 하며, 이 홀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은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①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으)ㄴ, -기’는 안긴 문장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 ㉠ 예 • 그 일은 하기가 쉽다.(주어)
-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목적어)
-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부사어)

②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 ㉠ 예 이 책은 내가 읽은 / 읽는 / 읽을 / 읽던 책이다.

③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아)서’에 의하여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 예 • 그들은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이 읽고 있다.
-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길이 비가 와서 질다.

④ 서술절을 안은 문장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술절은 절 표시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를 보인다.

- ㉠ 예 • 정아가 얼굴이 예쁘다.
-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⑤ 인용절을 안은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것으로,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때에는 직접 인용절에 ‘라고’가 붙고,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할 때에는 간접 인용절에 ‘고’가 붙는다.

- ㉠ 직접 인용절
 - ㉠ 예 영희는 당당하게 “무슨 일이지?”라고 말했다.
- ㉡ 간접 인용절
 - ㉠ 예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2.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홀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고, -(으)며, -(으)나, -지만’ 등에 의하여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 한다.

- ㉠ 예 •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나열)
- 그는 갔으나, 예술은 살아 있다. (대조)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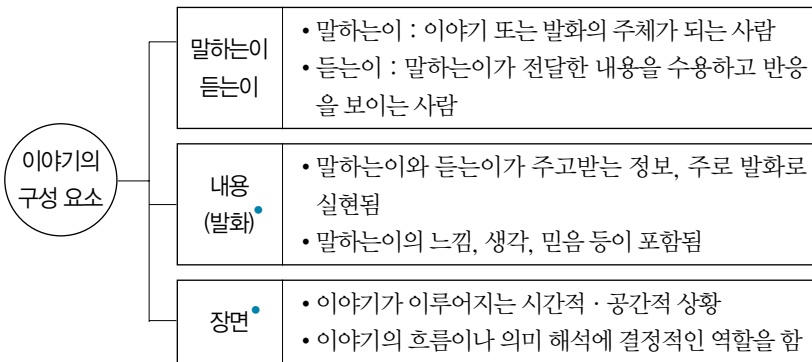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 ㉠ 조건, 가정 : -(으)면, -거든, -더라도
 - ㉠ 예 이 모자가 좋으면, 네가 가져라.
- ㉡ 이유, 원인 : -(아)서, -(으)므로, -(니)까
 - ㉠ 예 콩쥐는 모자가 생겨서, 무척 기뻐했다.
- ㉢ 의도 : -(으)려고, -고자
 - ㉠ 예 너에게 주려고, 나는 선물을 샀다.
- ㉣ 배경 : -는데
 - ㉠ 예 콩쥐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왔다.
- ㉤ 양보 : -(으)르더라도
 - ㉠ 예 그가 안 올지라도, 우린 여기에 있을 것이다.

1. 이야기 - 대화나 연설과 같이 한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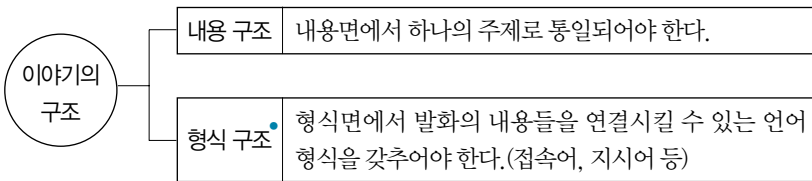
①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이야기는 하나 이상의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 이상의 발화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말하는이, 듣는이, 내용, 장면’의 네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될 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② 이야기의 구조

발화를 단순히 모아 놓았다고 하여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의 연속체가 이야기기가 되려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발화가 연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야기를 형성할 수 없다.

예 나는 걸을 수가 없어. 서울의 집 값이 가장 비싸. 사과는 익혀 먹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집에 가고 싶어.

㉡ 발화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고, ‘그것은, 그리고’ 등과 같이 내용을 연결해 주는 언어 형식이 존재하여 이야기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예 소방관 아저씨는 고층 빌딩에서도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는 기구를 소개했어요.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 커다란 화물차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사다리가 연결되면서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 위로 화물을 싣는 곤돌라 같은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 이야기와 발화의 관계

- ① 이야기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 ② 단순한 발화의 집합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
- ③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 “불이야!”

● 장면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존재하기 위한 시간적 · 공간적 조건

- ① 대화 :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
- ② 독백 : 말하는이만 존재하고 듣는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전화(채팅) :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 형식 구조의 필요성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지시어를 사용한 표현이 앞뒤의 내용을 더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 예
-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한 여학생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그 여학생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 형식 구조는 이야기의 내용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내용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2. 상황에 맞게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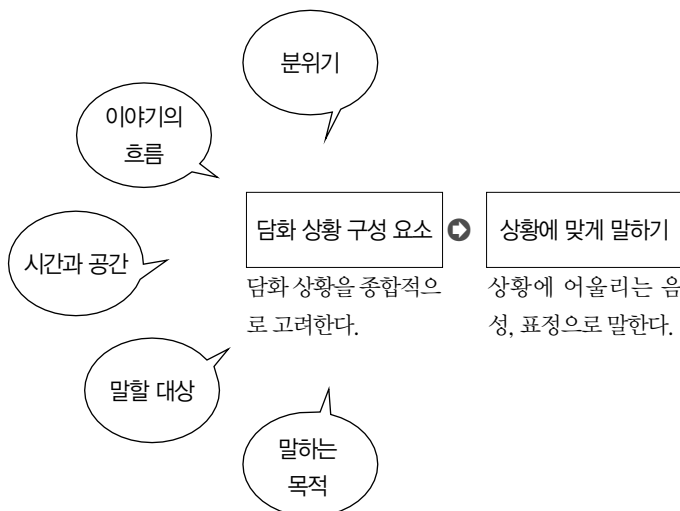
우리는 언제나 일정한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 말하는 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담화 상황 구성 요소

말하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 설명하기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듣는이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 설득하기 : 듣는이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 친교나 정서 표현하기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시간적 · 공간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장소에서 언제 말을 하는지 고려한다. •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 고려한다.
말할 대상(듣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이와 어떤 관계인지 고려한다. • 듣는이의 상황은 어떠한지 고려한다.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듣는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한다. • 듣는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고려한다.
이야기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 화제는 무엇인지 고려한다. •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내가 말한 뒤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고려한다.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고려한다.

② 상황에 맞게 말하는 과정

- 담화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어울리는 내용을 선정한다.
-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한다.
- 상황과 내용에 어울리는 음성, 표정 등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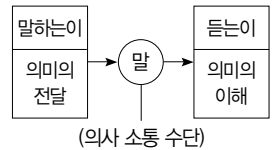
● 이야기와 담화

7차 교육 과정의 문법에서는 종래의 '이야기'를 '담화'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학교에서 6차의 '이야기'의 개념과 용어가 일반화되었기에 '담화'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다.

●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

- ① 공적인 말하기 : 격식을 필요로 하는 말하기
 - ② 사적인 말하기 : 특별한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기
- 예) 연설하기, 설명하기, 보고하기, 토론하기 등
- 예) 대화, 축하, 감사, 위로의 말하기 등

● 말의 구실



1 다음 중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내용 ② 장면
- ③ 듣는이 ④ 말하는이
- ⑤ 표현 방법

2 다음 민지의 이야기가 어색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민지 : 소방관 아저씨는 고층 빌딩에서도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는 기구를 소개했어요. 고층 빌딩에서도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는 기구는 이동이 가능한 커다란 화물차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사다리가 연결되면서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 ① 듣는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②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④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지 않았다.
- ⑤ 설명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3 다음 중 이야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불이야!
- ② 놀지 말고 공부하랬잖아!
- ③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렸어.
- ④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구나. 딸기는 빨갱다.
- ⑤ 너는 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럼 저기 있는 새 이름은 뭐야?

4 다음 안에 들어갈 지시어와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민희 : 너 혜숙이가 일등했다는 소리 들었니?
 순희 : 응 소리, 학교에 자자해.
 민희 : 사실은 일등이 아니라던데…….

- ① 이, 그래서 ② 저, 하지만
- ③ 그, 그런데 ④ 저, 그러나
- ⑤ 그, 따라서

5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
- ② 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 ③ 듣는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 ④ 친교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 ⑤ 말하기의 여러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6 다음 상황에서 사오정이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어느 날 사오정의 집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했다.
 “조용히 해! 너는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내가 들어온 건 쥐도 새도 모른다. 자, 죽을 준비해!”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꾸하였다.
 “밥은 안되나요?”

- ① 강도가 말할 목적은 무엇인가?
- ② 격식을 갖추어 말을 해야 하는가?
- ③ 말을 주고받는 빠르기는 어떠한가?
- ④ 지금 강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 ⑤ 강도는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7 다음 말하기 유형 중에서 격식을 필요로 하는 말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설하기 ② 보고하기 ③ 위로하기
- ④ 토론하기 ⑤ 인터뷰 응하기

8 다음 상황에서 삼촌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조카 : 삼촌, 컴퓨터 화면의 글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삼촌 : 그건 말야…….

- ① 조카의 이해력은 어느 정도인가?
- ② 조카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③ 조카가 컴퓨터를 쓰는 시간은 언제인가?
- ④ 조카는 컴퓨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⑤ 조카는 컴퓨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문법 지식 넓히기

❖ 이야기 ❖

1. 이야기의 표현과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

① 지시 표현 :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지시하는 표현. 지시란, 언어가 언어 외적 현실의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 또는 언어와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을 연관지어 주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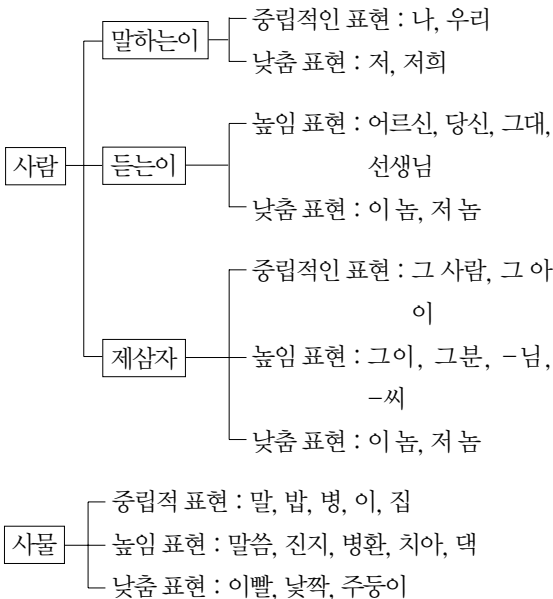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지시 부사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지시 형용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예 철수와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 조금 늦을 것 같다.
→ 장면(시청 앞)이 고려되어야 지시 표현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② 높임 표현

우리말은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우리말에서 높임 표현은 일반적으로 참여자 사이의 관계, 즉 상하 관계 및 친소(친함과 친하지 못함) 관계를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

① 높임 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예



① 높임 표현의 기능

• 예의를 갖추어 말할 수 있다.

예 할아버지, 밥 먹어. →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 격식을 갖추어 말할 수 있다. 평소에 반말을 쓰던 사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예 같은 반 친구들끼리 토론을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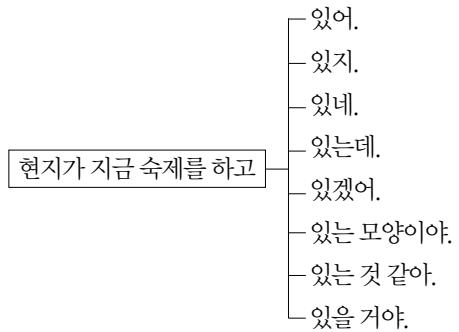
나는 영희의 의견에 반대해. (×)
저는 김영희 학생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

• 거리감을 두기 위한 전략이 된다.

예 평소에 반말을 썼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갑자기 '그동안 즐거웠습니다.'라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말을 할 경우

③ 심리적 태도

이야기의 내용은 말하는이가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수반하여 발화하기도 한다. 즉, 말하는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태를 단정, 확인, 추정하며 자신의 의지 등을 드러낼 수 있다.



위 표현들에는 모두 '현지가 숙제를 하고 있다.'는 동일한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문장이 전달하는 느낌은 다르다. 즉, '단정, 확인, 감탄, 사실의 전달, 사실의 추정' 등 다양한 느낌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국어에서는 주로 용언의 어미로 실현된다.

예 • 형석아, 여기 있던 빵 네가 먹었어?

- 형석이가 빵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말하는이의 단순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 형석아, 여기 있던 빵 네가 먹었지?
- 형석이가 빵을 먹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말하는이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난 발화이다.

④ 생략 표현

㉠ 특징

- 이야기의 장면이 주어지면 일정한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 이야기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등을 표시해 주는 격조사가 흔히 생략될 뿐만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까지도 생략될 수 있다.(특히, 국어에서는 주어가 자주 생략됨)

예 영숙 : 순이 어디 갔어요?(주격, 부사격 조사 생략)
민지 : 학교(주어와 서술어까지도 생략)

- 생략된 성분은 맥락을 참고하여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 생략 표현이 일어나는 이유

- 경제성 :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말을 줄이려는 특성
- 정보성 : 중요한 말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말은 생략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려는 특성

예 아내 : (여보,) 책상 좀 치워달라고 했잖아요.

남편 : 아참! (내가) (책상을 치우는 것을) 깜빡 잊었어, 미안해.

아내 : (여보,) 빨리 (책상을) 치우세요.

❖ 상황에 맞게 말하기 ❖

1. 이야기의 유형

말하기				
상황	공식적 말하기		비공식적 말하기	
	혼자 말하기	상대와 말하기	혼자 말하기	상대와 말하기
목적				
설득 설명 (정보 전달)	연설 강의	토의, 토론, 회의, 인터 뷰 옹하기	대화	
정보 수집		인터뷰 하기		
친교 및 정서 표현	식사(式儀) 구연(口演)	극본대로 말하기	독백	

2. 상황에 맞게 말하기의 유의점

① 설명하기

-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 말한다.

② 설득하기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다.
-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밝힌다.

③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 솔직하고 친근한 자세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가벼운 인사말부터 시작하여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화제에 대하여 말한다.

④ 위로하는 말하기

-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면서 정성스럽게 말한다.
- 설명이나 훈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⑤ 축하와 감사하는 말하기

- 인사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 걸치레나 상투적인 표현은 피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말한다.



01 인터넷 상에서 말하는 '채팅'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은 기존의 일반적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언어 소통 공간입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 생활을 말하는데, 통신 언어는 문자 언어 생활과 음성 언어 생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채팅'은 참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자 언어의 특성이 짙지만, 참여자가 서로의 발화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음성 언어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므로 '채팅'은 문자 언어로 표현되면서도 음성 언어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또다른 언어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1. 발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

① 특징

- 이야기를 이루는 각각의 문장이다.
-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필요한 의사 소통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하나의 발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② 발화의 기능

	예
정보 전달(안내)	우리 회사는 신입 사원을 모집합니다.
명령	지금 운동장으로 나오너라.
질문	선생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청	모두 앉아 주세요.
위로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경고	교통 사고가 많은 곳이니 조심하십시오.
선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속	내일은 꼭 맛있는 걸 사 가지고 올게.
칭찬	너는 축구를 참 잘하는구나.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제안	안전띠를 맵시다.
비난	놀부는 정말 지독한 형이야.
협박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

③ 발화의 형식과 기능

발화의 표면적 형식과 발화의 기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발화의 표면적 형식과 발화의 기능이 같은 경우

예 이 책의 제목이 뭐지? (형식 : 의문문 → 기능 : 질문)

㉡ 발화의 표면적 형식과 발화의 기능이 다른 경우

예 • 우리, 함께 공원으로 놀러 가지 않을래? (형식 : 의문문 → 기능 : 제안)

• 줌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형식 : 의문문 → 기능 : 요청)

㉢ 문장의 종결에 따른 발화의 일반적인 기능

- 평서문 : 정보 전달, 진술 예 향숙이가 집에 간다.
- 감탄문 : 감탄 예 향숙이가 집에 가는구나!
- 의문문 : 질문 예 향숙아, 집에 가니?
- 명령문 : 명령 예 향숙아, 집에 가거라.
- 청유문 : 요청, 권유 예 향숙아, 집에 가자.

● 발화와 생각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말이 생각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이 바로 발화이다.

원희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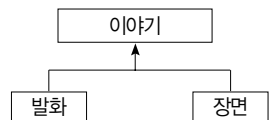
① 생각

- 원희가 내 짝이 되면 좋을 텐데.
- 어디에서 왔을까? 집이 어디지 물어 봐야지.
- 아는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겠다. 같이 놀아 줘야겠어.

② 발화(말)

- “원희야, 내 짝이 되지 않을래?”
- “원희야, 집이 어디야? 같은 방향이면 나와 같이 다니자.”
- “원희야, 우리 운동장에서 피구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 이야기, 발화, 장면의 관계



● 문장의 종결

문장의 종류	종결 어미
평서문	~다.
감탄문	~나!
의문문	~까?, ~요?
명령문	~라.
청유문	~자.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면 발화의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 ① 직접적인 방법 : 직접 '선언,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등의 발화의 도를 드러내는 방법

발화	발화 형식	발화의 기능
창문 좀 닫아.	명령문	명령의 기능
창문 좀 닫아 줄 수 있겠니?	의문문	요청의 기능
창문 좀 닫아 주면 안 될까?		

→ '명령'보다는 '요청'의 발화가 듣는이에게 거부감이 적다.

- ② 간접적인 방법 :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발화	발화의 기능
방이 많이 지저분하구나.	방을 청소하라는 '요청'의 간접적 표현
방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더라.	
방이 깨끗하면 훨씬 넓어 보일 텐데.	

→ 간접적 방법에서 발화의 의미는 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 간접적인 표현이 수행되는 경우

— 명령이나 요청 등 듣는이가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
— 듣는이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거나 듣는이와 말하는이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 ㉡ 간접적인 표현의 효과

— 듣는이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 대화시 사교적인 분위기를 증진시켜 준다.
—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갈등을 최소화해 준다.
—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의 표현을 도와 준다.

- ③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할 때 유의할 점

-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한다.
- 듣는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동작 언어 - 억양과 어조

발화시에는 음성 언어와 동작 언어가 동시에 행해지므로 발화의 기능에 맞는 적절한 동작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① 억양 : 소리 높낮이의 이어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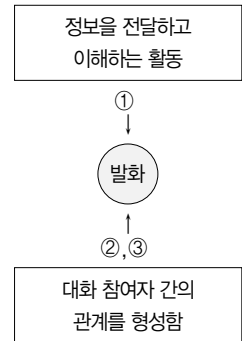
- 문법적 기능 : 문장의 끝을 올리면 의문문, 내리면 평서문이다.
- 말하는 이의 태도 결정 : 하강 억양은 완결을 의미하고, 상승 억양은 완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② 어조 : 말의 가락

끝을 올리면 의문, 끝을 내리면 사실, 끝을 끊으면 감탄, 끝을 끌면 회의이다.

●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해야 하는 이유

- ①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이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 ② 발화는 듣는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③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면 듣는이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 적절한 의사 소통을 위한 발화의 요건

- ① 주어진 상황 (시간적, 공간적 배경 및 분위기)을 고려한다.
- ②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서로의 처지나 발화 의도를 고려한다.
- ③ 내용을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말한다.
- ④ 대화를 통일성 있게 진행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1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를 이루는 각각의 문장이다.
- ② 듣는이의 행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 ③ 발화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 ④ 발화의 형식에 따라 발화의 기능이 정해진다.
- ⑤ 말하는이가 자신의 생각을 문장 단위로 실현한 것이다.

2 다음 중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에 맞게 말한다.
- ②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한다.
- ③ 듣는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한다.
- ④ 되도록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⑤ 어떻게 표현할지 신중하게 결정한다.

3 다음 발화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같이 놀이터에 갈래?

- ① 약속 ② 질문 ③ 제안
- ④ 경고 ⑤ 협박

4 다음 발화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은?

오늘부터 파격 할인

- ① 졸업을 축하해.
- ② 우리 공놀이하러 나가자.
- ③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 ④ 다음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을게요.
- ⑤ 지금부터 우리 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다음 중 발화와 그 기능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 ① 불조심 - 선언
- ② 노약자석 - 경고
- ③ 전방 100m 화장실 - 약속
- ④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 명령
- ⑤ 밝은 얼굴로 인사합시다. - 칭찬

6 다음 발화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교실 좀 청소해라.

- ① 교실이 많이 지저분하구나.
- ② 교실이 더러워져서 큰일이네.
- ③ 교실 청소는 꼭 네가 하도록 해.
- ④ 교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 ⑤ 교실이 깨끗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지 않나?

7 간접적인 표현으로 발화를 했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듣는이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 ② 대화시 사교적인 분위기를 증진시켜 준다.
- ③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④ 말하는이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⑤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의 표현을 도와 준다.

 **어려워요**

8 다음 발화를 아래 조건에 맞게 고쳐 쓰시오.

창문을 닫아라.

- 발화 형식 : 평서문
- 발화 기능 : 요청
- 표현 방법 : 간접적 표현

9 다음 중 발화의 기능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어디로 가세요?
- ② 모두 안전띠를 맵시다.
- ③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 ④ 함께 돕는 것이 어떨까요?
- ⑤ 좋은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1. 문장의 의미와 발화의 의미

국어 생활은 문자 언어 생활과 음성 언어 생활로 나뉜다. 문자 언어 생활과 음성 언어 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을 마주하느냐 아니냐'이다.

- 문장과 발화의 의미 차이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은 얼굴을 마주 본 상태에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면의 부재를 메우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교하게 조직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 문장의 의미는 음운, 어휘, 통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그 의미가 파악된다.
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화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소통하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생략된다. 그 결과 문자 언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나 생략 및 축약 표현이 많다. • 발화의 의미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 발화는 문자 언어에서 인용 부호(" ")가 붙는다.

2. 발화의 표면적 형식과 기능

- ① 하나의 표면적 형식(문장의 종결 :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발화되는 순간, 표면적 형식 이외에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 ② 발화는 발화 자체뿐 아니라 장면과 분위기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된다.
 - ③ 의문문의 기능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
 -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 등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정중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공손한 인상을 준다.
 - 청유나 명령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공손 표현 방식이다.
- 예) 밥 좀 더 주시겠어요?

3. 장면에 따른 발화의 이해

실제 발화 장면에서 발화는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발화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해석에 관여한다.

- ① 장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예)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 나(내) : ? 이것 : ? (장면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 ②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 발화의 해석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 기영 : 너 오전에 어디 있었니?

민수 : 도서관에 있었어.

기영 : 그럼 어제 들어온 책은 정리했겠구나.

→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민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③ 듣는이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 여자 : 저 다음에 내려요.

남자 : 그런데요?

→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함께 내려 주기를 원하였는데 남자가 여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경우에 따라서는 거부한 것일 수도 있음) 서로 다른 발화를 하는 것이다.



Q1 하나의 문장은 늘 같은 발화의 기능을 하나요?

A) 같은 문장이어도 상황에 따라 발화의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잘했다.'라는 말은 칭찬의 기능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에는 반어적 표현으로 비난의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같은 문장인데 발화의 기능이 다를 때는 둘의 동작 언어와 장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화는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1. 표준어

교육적, 문화적인 통일을 위해 각 나라마다 표준이 되게 정한 말

① 우리말의 표준어 정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조건 시대적 조건 지역적 조건

② 표준어 정의의 필요성 : 원활한 의사 소통과 국가 발전 및 국민 화합을 위해서이다.

2.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① 자음

㉠ 발음이 변하여 거센소리로 굳어진 것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 **끄나풀(○) ← 끄나불(×), 나팔꽃(○) ← 나발꽃(×), 부엌(○) ← 부억(×)**

㉡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 **강낭콩(○) ← 강남콩(×), 사글세(○) ← 삭일세(×), 고삿(○) ← 고살(×)**

㉢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 **돌(○) ← 뚝(×), 빌리다(○) ← 빌다(×), 둘째(○) ← 두째(×)**

㉣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양, 숫염소, 숫쥐'만은 '숫-'을 사용한다.

예) **㉣** **수평(○) ← 숫평(×), 수나사(○) ← 숫나사(×), 수놈(○) ← 숫놈(×)**

② 모음

㉠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 사돈, 삼촌'은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예) **㉠** **강충강충(○) ← 강충강충(×), 오뚝이(○) ← 오뚝이(×)**

㉡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 **시골내기(○) ← 시골나기(×), 꽃내기(○) ← 꽃나기(×), 냄비(○) ← 남비(×), 동맹이치다(○) ← 동당이치다(×)**

㉢ 모음이 단순화되어 널리 쓰이는 단어는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적는다.

예) **㉢** **미루나무(○) ← 미류나무(×), 으레(○) ← 으례(×), 여느(○) ← 여늬(×)**

㉣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 **꼭쟁이(○) ← 꼭정이(×), 미숫가루(○) ← 미숫가루(×), 상추(○) ← 상치(×)**

㉤ '웃'과 '윗-'은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예) **㉤** **윗눈썹(○) ← 웃눈썹(×), 윗니(○) ← 웃니(×), 윗목(○) ← 웃목(×)**

㉥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는 '글구'를 버리고 '글귀'를 표준어로 한다.

예) **㉥** **구절(句節)(○) ← 귀절(×), 문구(文句)(○) ← 문귀(×), 시구(詩句)(○) ← 시귀(×)**

● '둘째'와 '두째'

'둘째'가 십 단위 이상의 차례를 나타내는 수에 쓰일 때에는 '두째'로 쓴다.

예) 열두째(열두 개째의 뜻), 스물두째(스물두 개째의 뜻)

● '수-' 결합의 예외

'수+양', '수+염소', '수+쥐'에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세 단어에만 '숫-'의 형태를 취한다.

● '-장이'와 '-쟁이'

장인(匠人)을 의미하는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미장이(○) ← 미쟁이(×), 멧쟁이(○) ← 멧장이(×)

● '위-', '윗-', '웃-'의 구별

① 위-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예) 위쪽, 위층

② 윗- : 위와 아래가 대립이 되는 말에서 예) 윗눈썹 → 아랫눈썹, 윗목 → 아랫목

③ 웃- :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말에서 예) 웃어른 → 아랫어른, 웃웃 → 아래웃

3. 표준 발음

언어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초월하여 널리 통용되는 발음으로 표준어에 대한 실제 발음

- ① 표준 발음법의 총칙 :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표준 발음법의 의의 : 개인의 발음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도와 준다.

4. 표준 발음법 규정

① 모음의 발음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 예외 :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가지어 - 가져[가져], 찌어 - 쩌[찌], 다치어 - 다쳐[다치] • ‘예, 례’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시계[시계/시계], 지혜[지혜/지혜]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무늬[무니], 희망[히망], 유희[유히]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이’는 [ㅣ]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	---

② 소리의 길이

- ㉠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 첫눈[첫눈], 참말[참말]
- ㉡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예) 감대[감:따] - 감으니[가므니], 밭대[밭:따] - 밭으면[밭뜨면]
 -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예) 감대[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대[꼬:다] - 꼬이다[꼬이다]

③ 받침의 발음(p.12 ‘(2) 음운의 변동’ 참고)

- ㉠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ㅌ]으로 발음한다.
- ㉡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뒷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예) 깎아[까개], 옷이[오시], 낮이[나지], 꽃을[꼬출], 쫓아[조차], 밭에[바테]
- ㉢ 받침 뒤에 모음이 ‘ㅏ, ㅓ, ㅗ, ㅛ, ㅕ’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뒷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예)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젖어미[저더미], 맛없다[마뎡따], 걸옷[거둔]
- ㉣ 한글 자모는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긴소리 발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 /-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예) 보아 → 봐[봐:], 기어 → 거 [겨:], 되어 → 돼[돼:]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쩌, 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또 ‘가 + 아 → 가, 서 + 어 → 서’처럼 같은 모음끼리 만나 모음 하나만 빠진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ㄹ’ 발음의 예외

① ‘밭-’ :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한다.

예) 밭다[밭따], 밭소[밭쏘], 밭지 [밭찌]

② ‘넙-’ : ‘넙-’은 [넙-]로 발음하지만,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한다.

예) 넙다[넙따]/넙적하다[넙찌카다], 넙죽하다[넙쭈카다]

● 한글 자모의 발음

디근이[디그시]	디근을[디그슬]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차웃이[차으시]	차웃을[차으슬]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티웁이[티으시]	티웁을[티으슬]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1 표준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것이다.
- ②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주는 말이다.
- ③ 국가 발전 및 국민 화합을 위한 것이다.
- ④ 교육적, 문화적인 통일을 위해 각 나라마다 표준이 되게 정한다.
- ⑤ 우리말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2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상추 ② 삭월세 ③ 살갱이
- ④ 강남콩 ⑤ 괴팍하다

3 다음 단어를 표준어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

- (1) 으례 :
- (2) 미싱가루 :
- (3) 동당이치다 :

4 다음 중 표준어가 바르게 쓰인 문장은?

- ① 따뜻한 옷목에서 잠이 들었다.
- ② 산춘과 놀이 공원에 가기로 했다.
- ③ 좋은 글귀가 있어서 공책에 적었다.
- ④ 어제 사촌 동생의 똥잔치에 갔다 왔다.
- ⑤ 마당에는 나밭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5 다음 중 '-장이'의 쓰임이 바른 것은?

- ① 몇장이 ② 미장이 ③ 욕심장이
- ④ 수다장이 ⑤ 거짓말장이

6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표준어에 대한 실제 발음이다.
- ②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 ③ 개인의 발음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한다.
- ④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초월하여 널리 통용된다.
- ⑤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까지도 표준 발음의 대상이 된다.

7 다음 중 결박침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훤대[할따], 훤고[할꼬]
- ② 뵤대[박따], 뵤고[발꼬]
- ③ 뵤대[막따], 뵤고[말꼬]
- ④ 뵤대[밥따], 뵤고[밥꼬]
- ⑤ 넙대[넙따], 넙고[넙꼬]

8 다음 중 발음을 바르게 한 것은?

- ① 옷이[오디] ② 꽃을[꼬들]
- ③ 겉옷[거] ④ 감대[감대]
- ⑤ 시계[시계]

어휘원료

9 'ㅣ' 모음 역행 동화가 굳어져 표준어가 된 단어들로 묶인 것은 ?

- ① 괴기, 새내기 ② 개구쟁이, 냄비
- ③ 바람, 서울내기 ④ 애기, 소금쟁이
- ⑤ 풍각쟁이, 땡기다

10 다음 문장을 표준어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

미류나무 가지 우에 배암이 포아리를 틀고 있다.

❖ 표준어 ❖

1.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현재의 '표준어 사정 원칙'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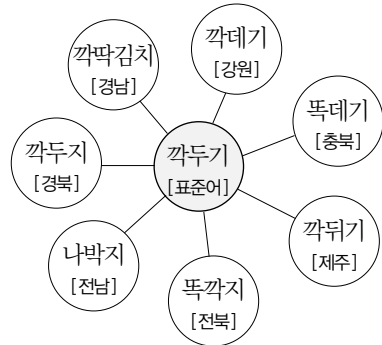


〈1988년 '문교부 고시안'〉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이다.
 - ㉢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에서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 ㉣ '서울말'은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 지역에는 엄연히 서울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 ① 1988년 개정의 실제적인 대상
-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고형(古形)이 된 것
 - 예 허위대 → 허우대
 - 1933년에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 예 시귀, 시구 → 시구
 -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로 자리를 굳혀가던 것
 - 예 빈자떡 → 빈대떡

2. 표준어와 방언

언어의 통일과 규범의 제시를 위하여 여러 방언 중에서 하나를 골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표준어와 방언은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표준어와 방언의 기능

표준어	공식적 언어 생활 기능, 정치·사회·교육의 평준화 기능
방언	사적 언어 생활 기능, 친교적 기능, 지역 문화의 통합 기능

3. 그 밖의 표준어 규정

①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준말

-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김(○) ← 기음(×), 파리(○) ← 포아리(×),
무(○) ← 무우(×), 뺨(○) ← 배암(×)

-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또한 명사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예 귀이개(○) ← 귀개(×), 돛자리(○) ← 돛(×),
아래로(○) ← 알로(×)

-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예 놀 - 노을, 막대기 - 막대, 망태기 - 망태,
서두르다 - 서둘다

②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고어 :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난봉(○) ← 봉(×), 애달프다(○) ← 애답다(×),
자두(○) ← 오얏(×)

㉡ 한자어

•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앞담배(○) ← 앞초(×), 잔돈(○) ← 잔전(×),
흰죽(○) ← 백죽(×)

•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개다리소반(○) ← 개다리밥상(×),
겸상(○) ← 맞상(×), 칫솔(○) ← 잇솔(×)

㉢ 방언 :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멧계(○) ← 우렁쟁이(×), 귀밑머리(○) ← 꺾머리(×)

㉣ 단수 표준어 :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담배꽂초(○) ← 담배꼬투리, 담배꽂치, 담배꽂추(×)

㉤ 복수 표준어 :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가뭄 - 가물, 멀찌감치 - 멀찌가니 - 멀찍이

❖ 표준 발음법 ❖

1. 표준 발음법 원칙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갑만], [갑씨], [갑쓸], [갑씨] 등으로 서울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서울말에서는 종종 ‘눈:[雪]’과 ‘눈[眼]’을 모두 짧게 발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 합리성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이는 지금까지 규칙적이기 때문에 짧게 발음하는 어법을 규정화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것이다.



Q1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로 통일한다고 하였는데, 왜 ‘글귀’는 ‘글구’가 아니라 ‘글귀’가 표준어인가요?

A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와 ‘귀’로 발음의 혼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입니다. 다만, ‘글귀’의 경우에는 한자 ‘句’의 혼과 음이 ‘글귀 구’이기 때문에 예외로 둔 것입니다. 한자의 혼과 음은 ‘글귀 구’로 인정하고, 표준어는 ‘글구’라고 하면 혼동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Q2 ‘-으로서’와 ‘-으로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으로서’는 신분, 지위, 자격이나 사실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고, ‘-으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1. 한글 맞춤법

정의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할 기준과 약속
목적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 소통
대상	표준어

2. 맞춤법 규정

- ① 낱말의 형태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 ㉠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
- 예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 ㉡ ‘어법에 맞게 적는다’ : 소리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낱말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기의 약속이다.
- 예 살믄(×) → 삶은(○), 그러케(×) → 그렇게(○), 일찍이(×) → 일찍이(○)
- ② 띄어쓰기 : 맞춤법 규정에서는 띄어쓰기를 ‘낱말은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을 쓸 때에는 이 규정을 지켜 가며 바르게 써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 띄어쓰기 규정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 예 오늘은 V 가족과 V 함께 V 빙어잡이 V 여행을 V 떠났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예 꽃이, 꽃마지, 꽃밭에, 꽃처럼, 꽃으로만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예 한 개, 한 대, 한 돈, 한 마리, 한 벌, 한 살, 한 자루, 한 채, 한 켤레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예 두시 삼십분 오초, 삼학년, 2003년 12월 25일, 16동 503호
 -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예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예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교사 및 학생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한글맞춤법(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가 새로 개정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우리 나라 현행 어문 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고 (두 음절로 된 6개 한자어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붙이기로 함), ‘가정란/가정난’ 등으로 혼용되어 쓰이던 것을 두음 법칙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가정란’으로 적도록 하였다. 띄어쓰기 규정에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하였고,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하였다. 수의 표기에 있어서도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한 것 등이 있다.

● 어법에 맞게 적는 이유

소리대로 적으면 표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뜻을 파악하기 힘들어 독서 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예 ‘같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가치]가 되어 ‘함께’, ‘그 정도로’의 뜻(같이)과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의 뜻(가치) 중에서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렵다.

● 일찍이

‘일찍 + -이’로 이루어진 말이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할 때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예 더욱이, 오탁이

-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 잘도 놀아만 V 나는구나.
-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 네가 되버들어 V 보아라.
-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 그가 올 듯도 V 하다.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좋은 점

- 낱말의 경계를 잘 알 수 있다.
- 쉬어 읽어야 할 곳을 찾기 편해 읽기에 편하다.
-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③ 문장 부호

㉠ 문장 부호의 필요성

-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억양이나 느낌을 살릴 수 있다.
- 읽는이가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문장 부호의 종류

종류	의미	예
· (온점)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에 씀	• 나는 내심 그녀의 찬사를 기대했다. • 2004. 5. 14.
?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낼 때 씀	• 오늘 비가 올까? • 집에 몇 시에 갈 거니?
!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씀	• 아, 달이 밝구나! • 이게 누구야!
, (반점)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休止)를 나타내는 쉼표로,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짝을 지어 구별할 때,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등에 씀	• 애야, 이리 오너라.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슬픈, 곡예사의 운명
“ ” (작은 따옴표)	따온 말 중에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할 때에 씀	• “하늘이 무너져도 ‘숫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한번 분위기를 잡아 볼까?’
“ ” (큰따옴표)	대화, 인용 등을 나타낼 때 씀	•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 “그래, 좋다.”라고 말했다.
…… (줄임표)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날 때 씀	• 기가 막혀서……. • “빨리 말해!” / “…….”
: (쌍점)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씀	• 문장 부호 : 마침표, 쉼표, 따옴표 등 • 65 : 60(65점 대 60점)

●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문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읽기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범이다.

㉠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금방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띄어 쓸 때와 안 띄어 쓸 때의 의미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 은희가 큰 집으로 들어 갔다.

은희가 큰집으로 들어 갔다.

첫 문장에서 ‘큰’이 관형어로 ‘집’을 꾸며 주는 것이므로 실제 모양이 큰 집에 들어 갔다는 뜻이고, 다음 문장에서 ‘큰집’은 합성어로 큰 아버지 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큰 집’은 두 단어이고, ‘큰집’은 한 단어인 것이다.

● 문장 부호

마침표	온점 · 고리점 .
물음표 ?	느낌표 !
쉼표	반점 , 모점 ~ 가운뎃점 · 쌍점 : 빗금 /
따옴표	큰따옴표 “ ” 겹낫표 「 」 작은따옴표 ‘ ’ 낫표 『 』
이음표	줄표 — 불임표 - 물결표 ~
드러냄표	드러냄표 ° 와 ·
안드러냄표	숨김표 ××와 ○○ 빠짐표 □ 줄임표 ……

1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② 문장 부호도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③ 대상은 한글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낱말이다.
- ④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약속이다.
- ⑤ 소리나는 대로 적되, 낱말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2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은?

- ① 제가 썼습니다.
- ② 뒷맛이 영 씹쓸하다.
- ③ 교실 안으로 드리갔다.
- ④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 ⑤ 우리 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3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말들로만 배열된 것은?

- ① 떡볶기, 햇별, 있음
- ② 얼음, 밟히다, 육개장
- ③ 해도지, 분수, 맛있다
- ④ 승낙, 나날이, 백분률
- ⑤ 장난꾼, 오투기, 문히다

4 띄어쓰기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②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④ 각 단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
- ⑤ 수를 적을 때에는 '천(千)' 단위로 띄어 쓴다.

5 다음 중 단위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 ① 사과한개 → 사과 한개
- ② 신세결레 → 신 세 결레
- ③ 16동503호 → 16동 503호
- ④ 연필한자루 → 연필 한 자루
- ⑤ 두시삼십분오초 → 두시 삼십분 오초

6 다음 낱말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나무 ② 짐꾼 ③ 삶은
- ④ 그렇게 ⑤ 하늬바람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버스를 탈 수 밖에 없다.
- ② 집에 일찍 들어가야한다.
- ③ 난로에 불이 꺼져만간다.
- ④ 누나는 비상중학교에 다닌다.
- ⑤ 사만 육천 오백 칠십원을 받았다.

8 안에 알맞은 문장 부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강아지 똥 곁에 앉아 주둥이로 콧 쪼아 보더니 튼똥 침을 뱉고는

“똥, 똥, 똥……. 예그 더러워 ”

하고 종알대다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어려워요

9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마음을 조렸다.
- ② 거북이는 너무 늘이다.
- ③ 이제 밥만 얕히면 되겠구나.
- ④ 농사는 나에게 힘이 부치는 일이다.
- ⑤ 진열대에 예쁜 목걸리가 놓여 있었다.

10 다음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곰곰히 생각하고 대답해 줄게.

문법 지식 넓히기

1. 한글 맞춤법의 역사와 원칙

역사	기본 원칙
훈민정음 (1443)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한글 맞춤법 (1988)	1.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

- ① 우리말을 ‘한글’로 옮겨 적는 방법에는 어법대로 적는 것과 소리나는 대로 적는 두 가지가 있다.
- ②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 ③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조선어학회의 노력으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표의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서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④ 현행 한글 맞춤법은 1988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의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2. 한글 맞춤법 통일안(1993년)과 한글 맞춤법(1988년) 사이에 변화가 생긴 이유

- ① 언어 변화를 표기법에 반영하였다.
 - 예) 과거에는 ‘가까워’로 적었는데 모음 조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현실음을 따라 ‘가까워’로 바꾸었다.
- ② 표기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 예) ‘理科’는 ‘잇과’로 쓰나, ‘이과’로 쓰나 한국인의 발음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잇소리를 표기하려는 표음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내과, 치과, 이과, 문제점, 서무과, 요리법’ 등에도 모두 사이시옷을 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했다.

3. 표의주의와 표음주의

- ① 표의주의(表意主義)
 - 장점 : 어법대로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독서를 할 때 인지 효과가 높다.
 - 단점 : 원형을 적다 보니 발음과 괴리를 보이는 표기가 많아진다.
- ② 표음주의(表音主義)
 - 장점 : 소리대로 적으므로 쓰기에 편하다.
 - 단점 : 동일 단어라도 발음 환경에 따라 달리 적으므로 독해할 때 불편하다.
- ③ 한글은 음운 문자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반영하되,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4. 외래어 표기법

- ①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규정이다.
- ②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③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예) ‘f’ → ‘ㅍ’(페밀리, 필름, 필)
- ④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 예) 컴퓨터, 커피숍, 초콜릿
- 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 파리, 버스, 재즈, 서비스
- ⑥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 예) 카메라(캐머러), 피자(피자)

❖ 그 외의 한글 맞춤법 ❖

1. 총칙 / 2. 자모

3. 소리에 관한 것

- ① ‘ㄷ’ 소리 받침 :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예) 덧저고리, 덧자리, 웃어른
- ② 모음 : ‘계, 레, 메, 페, 헤’의 ‘ㄱ’은 ‘ㄱ’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ㅋ’로 적는다.
 - 예) 혜택, 사례, 계집, 핑계, 폐품

한글 맞춤법 해설사

③ 겹쳐 나는 소리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예) 딱딱, 쓱쓱쓱, 푹푹푹

4. 형태에 관한 것

① 체인과 조사 : 체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체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내려 적지 않는다.)

예) 떡이, 떡을, 떡에 / 손이, 손을, 손에

② 어간과 어미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먹다, 먹고 / 자다, 자고

•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에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적지 않는다.

예) 넘어지다, 일어나다 / 드러나다, 사라지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고,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③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이'가 붙은 파생 명사 예) 높이, 다듬이
- '-음/-ㅁ'이 붙은 파생 명사 예) 걸음, 앞, 만들
- '-이'가 붙은 파생 부사 예) 굳이, 길이
- '-히'가 붙은 파생 부사 예) 익히, 밝히

④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국말이, 꺾꽂이, 꽃잎

•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반질고리(바느질~), 삼질날(삼질~), 손가락(술~)

⑤ 준말

•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예) 어제저녁 → 엿저녁, 온가지 → 온갓

• 체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게

5. 띄어쓰기 / 6. 그 밖의 것

Q1 '우리의 바람은 통일이다.'와 '우리의 바람은 통일이다.' 중에서 어떤 말이 맞나요?

A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가요.'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한다'의 의미를 지닌 '바람(바라다)'을 써야 합니다. '바람'은 '별이나 습기를 받아 빛이 변하다'의 의미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은 통일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Q2 '웬'과 '웬'은 각각 어떤 때에 쓰나요?

A 한때 유행어로 떠돌던 '어머, 웬 일이니?'는 많은 사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의 자막처리조차 '웬 일이니?'와 '웬 일이니?'를 혼용하여 쓰기도 하죠. '웬'은 '어떠한, 어찌된'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로 '웬만큼' '웬길' '웬 일' 등에 쓰입니다. '웬지'는 '왜인지'의 준말로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웬지 기분이 가라앉는다.'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등에 쓰입니다.

Q3 '되다'와 '돼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되다'라는 말은 있지만, '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돼'는 '되어'의 축약형이기 때문이지요. '돼' 대신에 '되'로 바꾸어 써도 어색하지 않으면 '돼'를 쓰면 된답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입니다. '된다(○) → 되언다(×), 됐다(×), 됐다(×) → 되었어(○), 됐다(○)', '안 되겠니(○) → 안 되어겠니(×), 안 돼겠니(×)', '안 되요(×) → 안 되어요(○), 안 돼요(○)'

Q4 '가여운'이 맞나요, '가연운'이 맞나요?

A '가여운'과 '가연운'은 복수 표준어로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잃은 가여운 아이'도 맞고, '부모를 잃은 가연운 아이'도 맞는 표기입니다.



1. 남북한의 언어

	남한	북한
명칭	표준어	문화어
정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쓰는 말

2. 남북한의 언어 차이

① 발음의 차이

	표준어	문화어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을 인정한다. 예) 노동, 여자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로동, 녀자
자음 동화	자음 동화를 인정한다. 예) 심리[심니], 향로[향노]	자음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심리[심리], 향로[향로]
된소리	된소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 가공적[가공적], 지점[지점]	된소리가 잘 나타난다. 예) 가공적[가공쩍], 지점[지점]

② 억양, 어조의 차이

	표준어	문화어
억양	• 대체로 낮은 억양으로 말한다.	•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이 반복된다. • 낮은 소리, 굽은 소리, 깊은 소리 등 소리에 변화를 준다.
어조	•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 단어나 어절을 끊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 명확하고 또박또박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고 드센 인상을 준다.

③ 어휘의 차이 -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

	표준어	문화어
고유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 인물화, 한복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 사람그림, 조선옷
의미 변화	원래의 형태에 따른 기본 의미를 유지한다. 예) 동무 : 친한 친구	원래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가 있다. 예) 동무 : 이념이나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
외래어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볼펜, 노크	대체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예) 원주필, 손기척

● 의미 변화의 다른 예

① 아버지

• 표준어 : 친부모

• 문화어 : 김일성

② 선동

• 표준어 : 대중의 감정을 부추기
어 움직이게 하는 것• 문화어 :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 고무, 총동하는 것

③ 승리

• 표준어 : 겨루어 이김

• 문화어 : 혁명 투쟁의 앞길을
환히 비춰 주는 것→ 이런 의미 변화는 사회의 이
념과 정치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어휘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 북한 외래어 표기의 예외

최근 북한에서는 스포츠 분야에
쓰이는 용어를 '국제 공용어'라
하여 외래어 그대로 표기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빨간딱지	레드카드
차냥기	슈트(숫)
두번치기	드리블
심판공	잠프볼

3. 남북한 언어의 장단점

① 표준어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효과적이다. • 국제적인 의사 소통에 효과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으로 고유어의 영역이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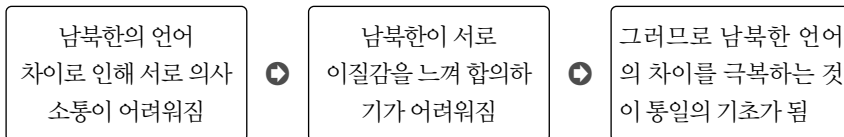
② 문화어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어를 살리고 새로운 우리말을 많이 만들어 어휘가 풍부하다. • 대체로 우리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국제 학술 세미나 등 국제적인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 고유어만으로 단어를 만들려다보니 억지스러운 단어가 많다.

4.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생긴 이유

- 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뒤, 많은 세월이 흘렀다.
- ② 남한과 북한의 이념과 정치 체제, 언어 정책이 다르다.
- ③ 지역적 차이로 인한 방언의 차이가 존재한다.

5.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



→ 언어란 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통해 민족적인 결속을 다지고, 남북한의 정서적 차이를 극복하여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6. 남북한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남한	북한
각각 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 범람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 • 북한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도구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 문화를 개방하여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언어의 실상을 파악하고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 언어 학자들의 교류를 비롯한 남북한 인사들의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 학술 교류 및 언어학 대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언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교류한다. • 남북한 공동 연구 기관을 통하여 언어 순화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통합 사전을 편찬하여 활용한다. 	

● 남한과 다르게 사용하는 북한의 낱말들

문화어	표준어
가두녀성	가정주부
인민학교	초등 학교
직매점	상점
바람압력	풍압
가슴쓰리기	위통
오목샘	보조개
얼죽음	반죽음
들어온 말	외래어

→ 남한말은 한자어가 많고, 북한말은 고유어가 많다.

● 남북한의 언어 정책

남한의 언어 정책은 언어의 자율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데 비해, 북한의 언어 정책은 주체 사상을 언어에 결합시키는 등 인위적이고 처방적인 성격을 띤다.

● 남북한 언어 차이의 결과

- ①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
- ②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
- ③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적 격차가 커졌다.

1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이고, 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2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로 옳은 것은?

예	표준어	문화어
십리	[십니]	[십리]

- ① 한자 사용의 여부 ② 두음 법칙의 인정 여부
- ③ 자음 동화의 인정 여부 ④ 모음 동화의 인정 여부
- ⑤ 구개 음화의 인정 여부

3 표준어와 그에 해당하는 문화어를 잘못 연결한 것은?

- ① 노크 - 손기척 ② 불펜 - 원주필
- ③ 한복 - 옛날 옷 ④ 보조개 - 오목샘
- ⑤ 인물화 - 사람그림

4 다음 빈 칸에 표준어와 문화어의 발음을 쓰시오.

	표준어	문화어
염원	[염원]	[(1)]
백리	[(2)]	[백리]
가공적	[가공적]	[(3)]

5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 ① 남북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 ② 남북한의 통합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 ③ 남북한이 분단된 지 50여 년이 흘러서
- ④ 언어가 다르면 한민족이라고 할 수 없어서
- 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웠어요

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어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농구 용어를 살펴보자. '자유투'는 '별넣기'라고 하고, '골밑 슛'은 '룬밋넣기', '워킹 반칙'은 '걸음어 김'이라고 한다. 야구 용어도 알아듣기 힘들다. '투수'는 '넣는 사람'이라 하고, '내야수'는 '안마당지기', '타자'는 '치기수'라고 한다.

- ① 국제적인 의사 소통에 효과적이다.
- ② 북한의 이념과 정치 체제를 확고하게 한다.
- ③ 새로운 말을 만들어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
- ④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영역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 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효과적이다.

7 다음은 북한 신문에 실린 광고글이다. 밑줄 친 낱말을 남한말로 바꾸었을 때,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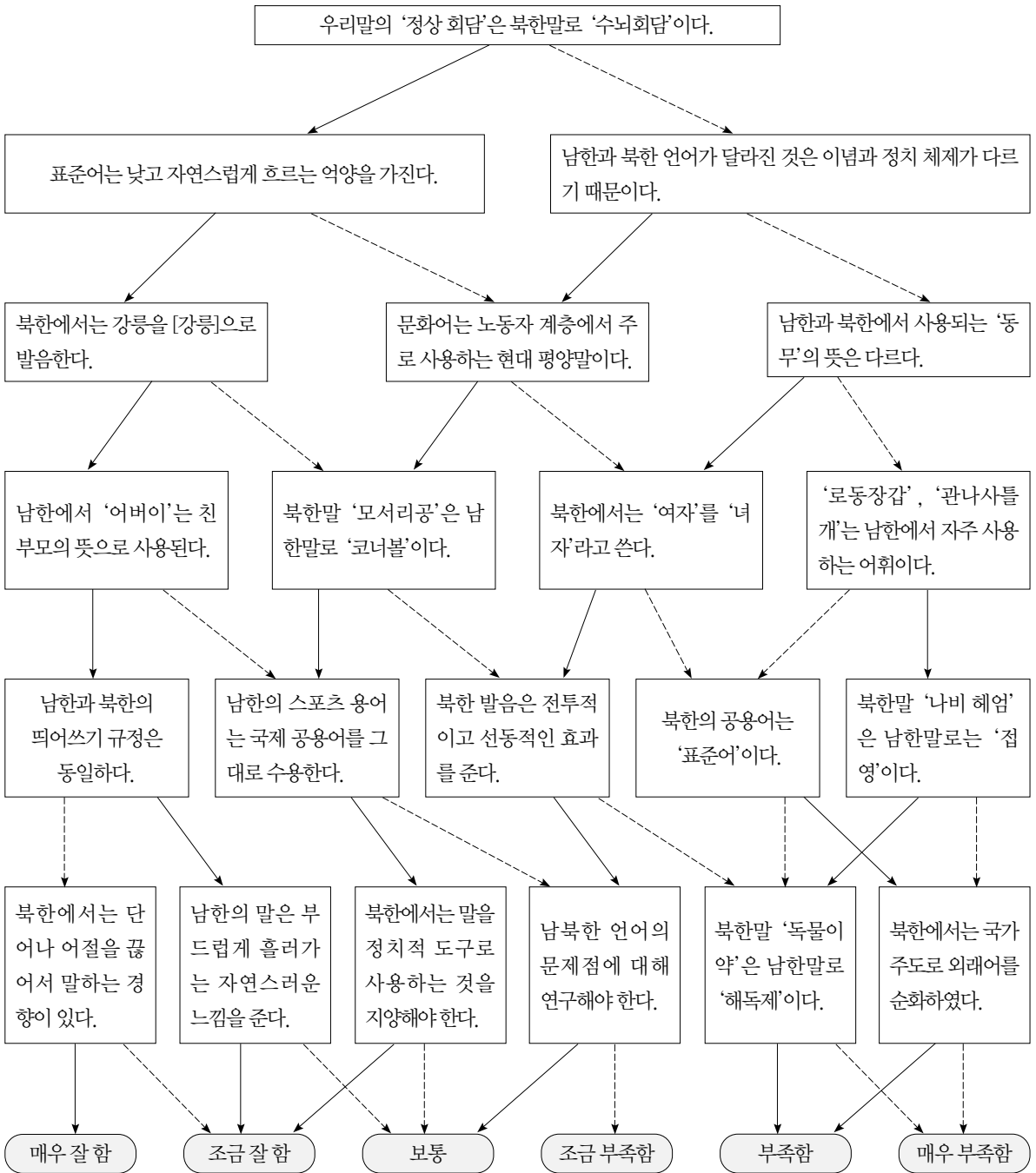
언제나 흥성거리는 매대

청년거리에 새로 지은 씨리카트벽돌살림집 아래 층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직매점에는 질 좋고 쓸모있는 여러가지 8월3일인민소비품들이 많이 들어와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들로 홍성거립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세타, 모자, 양말 등 각종 뜨개제품들을 비롯하여 베개, 방석, 목수건, 로동장갑, 목털장갑……(하략)

- ① 씨리카트벽돌살림집 → 실리케이트 벽돌로 지은 가정집
- ② 직매점 → 구내 매점
- ③ 8월3일인민소비품 → 정부 구호품
- ④ 홍성거립니다 → 바쁘입니다
- ⑤ 목수건 → 목화수건

다음 항목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를 따라가시오.



1.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				5쪽
1 ㉓	2 ㉔	3 ㉕	4 (1)㉞ (2)㉟ (3)㊱	
5 ㉒	6 ㉑	7 ㉖		

- 일본인 종업원이 철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철수가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사회성)
- ㉒는 언어의 자의성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즉, 언어는 말소리인 형식과 내용인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만약 소리와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면, 한국의 [사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과]라고 발음을 해야 할 것이다.
 ① : 법칙성, ③ : 기호성, ④ : 사회성, ⑤ : 역사성
- ① : 노년층과 청소년층의 말은 발음, 어휘, 문법 등에서 차이가 난다.
 ② :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사회 구조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③ :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억양, 어휘, 문장 유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④ : 언어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⑤ : 같은 지역에서도 사회적인 신분, 학력,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없어지기도 한다. (언어의 역사성)
- '나'와 '친구'는 언어의 친교적 기능에 해당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① :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국어의 언어적 특징에서 역사성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③, ⑤ : 또,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겨났을 때, 그것에 맞는 언어가 없기에 한 낱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게 될 것이다.
 ④ : 그리고 옛말과 지금의 말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옛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쉬울 것이다.
-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런데 대화에서 '진영'이는 '지우개'를 거꾸로 '개우지'로 바꾸어 표현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언어의 사회성이 파괴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 계속 모르는 말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
- ② : 대화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고를 내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
- ③ :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상대방과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 ④ : 구체적인 대상이나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대화를 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 ⑤ : 개인이 임의대로 바꾼 말이므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2. 말소리

(1) 음운과 음운 체계					9쪽
1 ㉒	2 ㉓	3 ㉕	4 ㉔	5 ㉑	
6 ㉓	7 ㉔	8 ㉕	9 푸웅, 털그덕털그덕, 캄캄하다		

- 음운은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에 따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
- 국어의 단모음 수는 모두 10(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개이다.
- 단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은 'ㅜ, ㅠ, ㅡ, ㅡ', 평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ㅡ, ㅣ'로 나뉘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은 'ㅣ, ㅑ, ㅓ, ㅕ, ㅛ', 후설 모음은 'ㅡ, ㅓ, ㅕ, ㅛ, ㅜ'로 나뉜다.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
- 울림소리 중에서 유음 'ㄹ'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스-쓰
 ① : ㄱ-ㄱ-ㅋ, ② : ㄷ-ㄷ-ㅌ, ③ : ㅂ-ㅃ-ㅍ, ④ : 스-ㅆ-ㅌ
-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조음 위치)와 소리의 성질(조음 방법)로 나눌 수 있다.

- 5 소년은 V조약돌을 V집어 V주머니에 V넣었다. → 5어절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낱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어절에 조사의 개수를 포함시키면 낱말의 개수가 된다. 조사는 3개(은, 을, 에)이다. 따라서 낱말의 개수는 8개가 된다.(낱말의 개수 = 어절의 개수 + 조사의 개수)
- 6 ④ 봄비 = 봄 + 비
→ 2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 7 ② 오가다 → 오 + 가 + 다
- 8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낱말로 인정한다.
- 9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혹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가 일치하고, 형식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일치한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싸-, 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용언의 어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가 된다.
- 10 ① 산-이 매우 푸르-다.
② 어제-는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③ 아기-가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④ 소년-은 소녀-에게 호두-를 주-었-다.

(2) 단어의 형성		20쪽
1 (1) 단일어(2) 접사(3) 합성어(4) 파생어	2 ①	
3 ⑤ 4 ④ 5 ② 6 ① 7 (1) 말		
+ 소 (2) 꽃 + 나무 (3) 높 + 푸르	8 합성어 - 털옷, 파	
생어 - 선생님	9 ③	

- 1 낱말은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 2 '설-' : 불충분한
- 3 합성어는 어근이 두 개 이상인 낱말, 그리고 파생어는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붙어 있는 낱말을 뜻한다. '앞 + 뒤', '물 + 병', '별 + 판'은 합성어이고, '햇- + 병아리', '햇- + 보리'는 파생어이다.
- 4 ㉠, ㉡ :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
㉢, ㉣ :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

㉠, ㉡ : 어근들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 5 ② : 파생어, ①, ③, ④, ⑤ : 합성어
- 6 ① : 조 + 쌀 → 좁쌀(어근에 'ㅂ'이 첨가)
② : 딸 + 님 → 따님
③ : 솔 + 나무 → 소나무
④ : 불 + 나비 → 부나비
⑤ : 이불 + 자리 → 이부자리
- } '르' 탈락
- 7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8 털옷은 어근(털) + 어근(옷)으로 된 합성어이고, 선생님은 어근(선생) + 접사(님 :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9 밑줄 친 광음(光陰)은 해와 달로 시간, 또는 세월을 뜻한다. 즉, 두 개의 어근이 완전히 융합하여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합성어를 말한다.
③ : 바늘방석은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앞기에 몹시 어색하고 불편할 때 쓰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바늘로 된 방석을 가리킨다.
① : 춘추(春秋) - 나이, ② : 밤낮 - 항상, ④ : 피팜 - 노력, ⑤ : 축발 - 엉망이 되어버린 곳

(3) 품사 - 1		24쪽
1 ③ 2 그녀-대명사, 적-명사	3 ④	
4 ④ 5 ⑤ 6 ⑤ 7 ② 8 ①		

- 1 우리말은 의미에 따라 아홉 가지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 2 '그녀'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대명사)이고, '적'은 자립성이 없어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 3 체언은 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 4 ㉠은 부자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5 ⑤ : 수사, ① : 명사, ② : 명사, ③ : 대명사, ④ : 관형사
④의 '첫'은 '번째'를 수식해 주고 있는 수관형사이다. 수사와 관형사의 구별 방법은 문장에 나타날 때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될 수 있으면 수사이고, 아니면 관형사이다.

- 6 ⑤ : 대명사, ①~④ : 명사
 7 ‘그 - 체언 - 불변어’, ‘는 - 관계언 - 불변어’, ‘배 - 체언 - 불변어’, ‘를 - 관계언 - 불변어’, ‘타고 - 용언 - 가변어’, ‘떠났다 - 용언 - 가변어’. 따라서 ㉠과 ㉡는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8 ① : 보통 명사, ②~⑤ : 고유 명사

(3) 품사 - 2					28 쪽
1 ⑤	2 ④	3 ③	4 ③	5 ⑤	
6 2개	7 ②	8 ②	9 ①		

- 용언은 가변어로,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 수식언은 부속 성분으로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③ : 동사, ①, ②, ④, ⑤ : 형용사
 동사는 움직임, 즉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로 시간의 정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늙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動的) 개념으로 파악하여 동사로 취급한다.
- ③ : 동사. ‘온’의 기본형은 ‘오다’이다.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에 해당한다.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안에 들어갈 말이 부사임을 알고 부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안에 들어갈 낱말은 ‘좋다’라는 말을 꾸며 주어야 한다. ‘좋다’는 용언에 속하고 용언을 꾸며 주는 것은 부사이다. ①, ② : 용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 체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이다. ‘헌’은 ‘갓’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두’는 ‘눈’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② : 저 - 관형사, 꼭 - 부사, ① : 그 - 관형사, ③ 일찍 - 부사, ④ : 나날이 - 부사, ⑤ : 한 - 관형사
- ② : 부사, ① : 형용사, ③ : 동사, ④ : 동사, ⑤ :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지만, 부사 ‘잘’은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그리고 명령형 어미 ‘-어라’의 결합 여부, 청유형 어

미 ‘-자’와의 결합 여부, 관형사형 어미 ‘-는’과의 결합 여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의 결합 여부,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는가 여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3) 품사 - 3					32 쪽
1 ④	2 ④	3 ③	4 ②	5 ③	
6 야, 아이쿠	7 ①	8 ③			

-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 조사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실질 형태소이다.
- ③ : 격조사, ①, ②, ④, ⑤ : 보조사
- ① : 출발점, ③ : 첨가, ④ : 역시, 동일, ⑤ : 대조의 뜻을 지닌 보조사이다.
- 감탄사는 조사가 붙지 않으며, 활용하지 않고, 문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는 체언, ⑤는 수식언(관형사, 부사)의 특징이다.
- ‘야’는 부름을 나타내고, ‘아이쿠’는 느낌(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원일야!’처럼 실제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면 감탄사가 아니다.
- (가)의 ‘갔다’는 동사이고, (나)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그러나 (가)의 ‘갔다’도 활용을 하고, (나)의 ‘-이다’도 활용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가)의 ‘와’는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나)의 ‘와’는 앞말과 동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4. 단어의 의미(어휘)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35 쪽
1 ①	2 ④	3 유행어	4 ①	5 ④	
6 ③	7 자식, 자식아, 대가릴 까늘 자식				

- 우리 나라에 외래어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때는 신라 때이다.

- 2 ④는 비속어에 대한 설명이다.
- 3 유행어는 독특하고 신선한 표현(유행어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 4 껌씨는 얼굴이 까만 사람의 속어이다.
- 5 이 대화는 우리말로 이루어지고 있다.
- 6 • 은어 - ㉠ 고딩(고등학생), ㉡ 째새(경찰)
• 비속어 - ㉢ 압마, ㉣ 자식말
• 유행어 - ㉤ 엽기, ㉥ 공주병
- 7 김유정의 소설인 '봄봄'의 일부분이다. 상대방을 얄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말하는 말을 찾아본다.

(2) 동음 이의어, 다의어, 관용어					39쪽
1 ⑤	2 ③	3 ②	4 ⑤	5 (1)㉠	
(2)㉠	(3)㉡	6 (1) 남쪽(南)	(2) 남자(男)	7 ⑤	
8 ⑤	9 ①	10 ④	11 ⑤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⑤	17 ④	

- 1 ⑤는 다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 2 ㉠, ㉡ : 태양, ㉢, ㉣ : 1년
- 3 ㉠ 이상(異狀) : 평소와는 다른 상태
- 4 ⑤ : '눈'은 짧게 소리나고, 나머지는 길게 소리난다.
① [밤:] : 밤나무의 열매, [밤] :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의 동안
② [별:] : 별목의 곤충 가운데 개미류를 제외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별] :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억눌러 그 잘못을 깨닫도록, 자유를 억제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일
③ [말:] :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 언어, [말] : 말과의 포유동물
④ [굴:] : 땅이나 바위가 깊숙하게 뚫린 곳, [굴] : 굴과의 조개
⑤ [눈] : (사람이나 동물의) 물건을 보는 감각 기관, [눈:] : 기온이 0℃ 이하일 때 대기의 상층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땅에 내리는 흰 결정체
- 5 (1)歌詞 (2)家事 (3)假死
- 6 소리는 같으나 한자가 다른 낱말로 동음 이의어이다.

- 7 다의어는 한 낱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의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이다. ⑤는 동음 이의어에 해당한다.
- 8 ⑤ :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움직이다.
① :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
② :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③ :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
④ : 건강에 해가 되다.
- 9 ① : 다의어, ②~⑤ : 동음 이의어
①의 '쓰다'는 동음 이의어이면서 다의어이다. 문맥에서의 뜻을 살펴보아 동음 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10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낱말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11 ① 손에 땀을 쥐다 :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② 콧대를 꺾다 : 상대방의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꺾어 기를 죽이다.
③ 비행기 태우다 : 추켜세우는 척하다.
④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 몹시 안타깝게 기다리다.
- 12 ④ 발을 구르다 :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
- 13 관용어에 비해 속담은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며, 속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표현 효과를 나타낸다.
- 14 ③ 눈에 차지 않다. : 마음에 들지 않다.
① 눈이 높다. :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안목이 높다.
② 눈에 불을 켜다. :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다.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④ 눈도 깜짝 안 하다. :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다.
⑤ 눈에 흙이 들어가다 : 죽어 땅에 묻히다.
- 15 관용어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인상적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함축적이고 간결하여 표현 효과가 크다. 반면 일상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강한 느낌이 드나 표현 효과가 떨어진다.
- 16 ①~④ : 동음 이의어, ⑤ : 다의어
<보기>의 ㉠ '맵다'는 '맛이 맵다'라는 뜻이고, ㉡ '맵다'는 '매우 힘들다'라는 뜻이다. 즉, ㉠과 ㉡은 서로 간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관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맵다의 중심적 의미는 '맛이 알알하다'이고, 주변적 의미에는 '몹시 춥다'(맵게 부는 바람),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맵게 쏘아보는 눈초리)', '연기의 기운으로 목구멍이나 눈이 쓰라리다(매운 냄새)'가 있다.

⑤의 첫 번째 손은 '노동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손은 '사람의 신체 부분'을 의미하는 다의어이다.

- 17 이 글에서의 속담은 비록 표현하는 단어들은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속담이나 관용어에 쓰이는 단어는 그 사회의 변화 모습을 담을지라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5. 문장

(1) 문장 성분 - 1 43쪽

1 ⑤ 2 ⑤ 3 (1) 우리 강아지(2) 사료를 맛있게 먹는다. 4 ② 5 ③ 6 ① 7 ②

8 (1) 고와야, 곱다(2) 살지만, 아니다(3) 좋아하더니, 되었다

- 1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어이다.
- 2 ① : 흰 눈이 / 수북이 쌓여 있다. ② : 비 온 후에는 날씨가 / 차갑다. ③ : 파릇한 새싹이 / 키가 부쩍 컸다. ④ : 가을에는 낙엽들이 / 굴러 다닌다.
- 3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는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문장을 연속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면,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낼 수 있다.
- 4 ②는 '주어 + 보어 + 서술어'의 구조이다.
- 5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에는 부사어, 관형어,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①, ②, ④, ⑤의 밑줄 친 낱말은 모두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고, ③의 '인형을'은 목적으로 주성분이다.
- 6 보어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 7 목적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때로 '을/를'

이 생략될 수도 있다. 또 '을/를'이 생략되는 대신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 8 서술어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개의 서술어가 나올 수 있다.

-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관형어 주어 서술어 관형어 주어 서술어
- (2)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서술어
- (3) 철수는 영화를 좋아하더니 영화감독이 되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서술어

(1) 문장 성분 - 2 47쪽

1 ⑤ 2 ④ 3 ④ 4 ⑤ 5 ③

6 ① 7 (1) 아차 - 감탄(2) 아니오 - 응답 8 ③

9 ④

- 1 문장의 부속 성분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다.
 - ① : 부사어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 ② : 부사어만 보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 ③ : 관형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 앞에 오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지 않다.
 - ④ : 부사어만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
- 2 '살며시'는 용언 '들어왔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 3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따라서 뒤에 오는 낱말이 체언이면서 그 말을 꾸미고 있는 것을 찾는다.
 - ① : '파란'이 '하늘'을 꾸미고 있다.
 - ② : '시골'이 '풍경'을 꾸미고 있다.
 - ③ : '친구의'가 '가방'을 꾸미고 있다.
 - ⑤ : '공부하더니'이 '영미'를 꾸미고 있다.
 - ④의 '과연', '정말', '빨리'는 모두 부사어이다.
- 4 이 문장에서 '제발'은 전체 문장을 꾸며 주는 문장 부사어에 해당한다. 꾸며 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직접 연결해 보면 그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발'은 각 구성 성분을 꾸며 주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 5 독립 성분은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③처럼 뒤에 오는 대상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 6 품사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어이고, 문장 성분을 나눌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절이다. 철수 : 명사, 는 : 조사, → 철수는 : 주어 / 예쁜 : 형용사 → 관형어 / 눈 : 명사, 을 : 조사, → 눈을 : 목적어 / 가졌다 : 동사 → 서술어
- 7 독립어는 주로 반점(,)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찾기 쉽다. (1)의 '아차'는 감탄을, (2)의 '아니오'는 응답의 기능을 하고 있다.
- 8 부사어는 문장에서 부속 성분에 속하지만, 서술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소위 '필수적 부사어'가 그것이다.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③ '주다'는 목적어뿐만 아니라 받는 대상인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②는 완전 서술어로 주어 외의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①, ④, 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9 관형어와 부사어는 모두 부속 성분으로서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④는 차이점이 아니다.
- ① :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부사어이다.
 ② :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
 ③ :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부사어이다.
 ⑤ : 꾸밈을 받는 낱말이 용언일 때는 부사어, 체언일 때는 관형어이다.

(2) 문법 요소 - 1 51쪽

1 ② 2 ① 3 ① 4 (1) 어머니가 → 어머니께서, 드렸어 → 주셨어(2) 할머니는 → 할머니께서는, 밥을 → 진지를, 먹는다 → 잡수신다(드신다) 5 (1) 못했다(2) 말자(3) 않기 6 (1) 오락실에 가지 말자. (2) 그 길은 구불구불하지 않다. 7 ③ 8 내리기를, 기도하자

- 1 ① : 할아버지께서 주무십니다.
 ③ :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④ :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여쭙어 보았다.

- ⑤ :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다.
- 2 문장에서 주체는 그 문장의 주어이고,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이다. 그리고 상대는 듣는이를 가리킨다.
- 3 상대 높임의 단계를 묻는 문제이다. ㉠-해체, ㉡-해라체, ㉢-해요체, ㉣-하계체, ㉤-하십시요체, ㉥-하오체이다.
- 4 (1) 어머니께서 형에게 용돈을 주셨어.
 (2) 할머니께서는 요즘도 진지를 잘 잡수신다(드신다).
- 5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은 '안' 부정문으로, 주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은 '못' 부정문으로 실현된다. 명령문, 청유문에는 '-지 말-' 부정문이 쓰인다.
- 6 (1) 청유문에는 '-지 말-' 부정문이 쓰인다.
 (2) 짧은 부정문은 어색하다.
- 7 ③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인 객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다.
- 8 '-지 말-' 부정문은 대부분 명령문, 청유문에 쓰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등의 동사에 쓰이기도 한다.

(2) 문법 요소 - 2 55쪽

1 ⑤ 2 ② 3 무서울 것이다(무섭겠다)
 4 ④ 5 (1)㉡ (2)㉢ 6 ⑤ 7 채웠다
 8 ③ 9 ⑤

- 1 •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 현재 시제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미래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 2 ②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되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은 동사에 '-ㄴ'을 ④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었고, ⑤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였다.
- 3 시간 부사어가 '어제'(과거)에서 '내일'(미래)로 바뀌었으므로 '무서웠다'는 미래를 의미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무섭겠다' 또는 결합형 '-(으)ㄹ 것이-'를

사용하여 ‘무서울 것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 4 • 현재 - ㉠, ㉡, ㉢, ㉣
• 미래 - ㉤
- 5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 6 ⑤는 피동 표현이 아닌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다.
① : 물 + [리] + 었 + 다, ② : 꺾 + [이] + 었 + 다, ③ : 막 + [히] + 었 + 다, ④ : 찢 + [어]지다

- 7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이 때 새로운 주어가 생겨난다. 주동문의 경우 서술어가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상관없으나, 사동문에서 서술어는 항상 타동사(사동사)로 바뀐다.

- 8 ③의 ‘먹이다’는 ‘사육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
① : 묻 + [히] + 었 + 다, ② : 높 + [히] + 었 + 다, ④ : 입 + [히] + 었 + 다, ⑤ : 속 + [이] + 었 + 다

- 9 철수가 책을 읽었다.
(내가)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읽게 했다.)
위의 문장에서 주동문의 주어인 ‘철수가’는 사동문의 부사어인 ‘철수에게’로 바뀌어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게 된다.

(3) 중의적 표현 59 쪽

1 ③	2 ②	3 ③	4 ④	5 ④
6 ④	7 전부 오르지 않았다. 일부만 오셨다.			

- 1 ① :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과 사람의 눈[눈]을 포함한 문장이다.
② :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은 것과 선생님이 학생

들을 보고 싶은 것을 포함한 문장이다.
④ : ‘부지런한’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철수만인지, 철수와 순이 둘 다인지 확실하지 않다.

- ⑤ : ‘예쁜’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소녀인지 소녀의 눈인지 확실하지 않다.
- 2 부정에 의한 중의적 표현은 중의성을 제거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각 문장 성분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오늘’, ‘철수는’, ‘택시를’, ‘타지’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②의 경우 ‘오늘’을 부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정보의 추가, 삽표의 사용, 어순의 조절, 보조사의 사용 등이 있다.
① : ‘배’의 중의적 표현을 먹는 배로 한정했다.
② : ‘멋진’의 수식 범위를 삽표로 ‘선생님의 애인’으로 한정했다.

- ④ : 어머니와 함께 만난 것인지, 어머니와 선생님을 각각 만난 것인지에 대하여 어순을 통해서 한가지 의미로 한정했다.
⑤ : 미영이와 함께 보았던 것인지, 미영이와 길동이를 각각 보았던 것인지를 ‘함께’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여 의미를 한정했다.

그러나 ④의 경우는 철수에 대한 부정만 제거되었지, ‘가지’라는 부정에 대하여는 여전히 중의적 의미가 남아 있다.

- 4 ‘달이 차다’는 동음 이의어에 의한 중의적 표현이다. 그러나 ‘기간이 넘었다’와 ‘기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 5 ④는 주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적 표현이다. 즉, 영수와 영희가 결혼을 한 것인지, 영수와 영희가 각각 따로 결혼한 것인지에 대한 중의성이다.
- 6 ㉠은 비유적 중의성에 해당한다. 문맥 속에서는 ‘왕처럼 군림한다.’ 보다는 ‘왕처럼 떠받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적절하다.

- 7 ㉡은 부정에 의한 중의적 표현이다. 즉, ‘전부 오르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오셨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럴 때 ‘다는 오르지 않았어.’와 같이 보조사 ‘는’을 추가함으로써 ‘일부만 오셨다.’라는 의미로 한정할 수 있다.

6. 이야기

(1) 상황에 맞게 말하기					64쪽
1 ⑤	2 ②	3 ④	4 ③	5 ①	
6 ①	7 ③	8 ③			

- '말하는이, 듣는이, 내용, 장면'의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될 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접속어, 지시어 등 발화의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이야기의 형식 구조). 그런데 민지의 이야기에서는 '고층 건물에서도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는 기구'를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 이야기가 어색하다.
- ④ :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지만 발화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① : 하나의 발화가 이야기가 되는 경우이다.
- 듣는이가 알고 있는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킬 때에는 '그' 계열의 지시어를 쓴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다르므로 역접의 접속사(그러나, 그런데)를 써야 한다.
- 담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 소통이다. 즉, 말하는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 사오정은 강도가 무엇 때문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③ : 위로하기는 특별한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기(사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
- 듣는이가 조카이므로 듣는이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

(2) 발화의 기능					69쪽
1 ④	2 ④	3 ③	4 ⑤	5 ④	
6 ③	7 ④	8 ㉞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등		
9 ①					

- 발화의 표면적 형식과 발화의 기능이 다른 경우도 있다.
-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적절한 표현 방법을 골라 써야 한다.
- 발화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함께 놀이터에 가자고 하는 내용이므로 제안의 기능을 하고 있다.

- 선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① : 축하, ② : 제안, ③ : 칭찬, ④ : 약속
- ① : 경고, ② : 선언, ③ : 정보 전달, ⑤ : 제안
- ③ : 교실을 청소하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 간접적인 표현은 말하는이와 듣는이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달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말하는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과 말하는이와 듣는이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조건에 맞추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쳐 써 본다.
- ① : 질문, ②~⑤ : 제안

7.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73쪽
1 ②	2 ①	3 (1) 으레 (2) 미숫가루 (3) 동덩이			
치다	4 ③	5 ②	6 ⑤	7 ⑤	
8 ⑤	9 ②	10 미루나무 가지 위에 뱀이 꼬리를 들고 있다.			

-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주는 말은 방언이다.
- ② : 사글세, ③ : 살쟁이, ④ : 강낭콩, ⑤ : 괴팍하다
- (1) 모음이 단순화되어 널리 쓰이는 단어는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적는다. (2)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3)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 중에서 표준어로 삼는 경우이다.
- ① : 윗목, ② : 삼촌, ④ : 돌, ⑤ : 나팔꽃
- '-장이'는 장인을 의미하는 기술자에게 쓰이는 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쟁이'로 쓴다. ① : 멧쟁이, ③ : 육십쟁이, ④ : 수다쟁이, ⑤ : 거짓말쟁이
-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 ⑤ : 넓대널때
①, ④, ⑤ : 겹받침 'ㅼ, 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다만,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고, ‘넓-’은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 [넙-]으로 발음한다. (예) 넓죽하다[넙쭈카다]

②, ③ : 결합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ㄱ’앞에서는 [ㄹ]로 발음한다.

- 8 ① : 옷이[오시], ② : 꽃을[꼬출], ③ : 겉옷[거돌], ④ : 감대[감따]
- 9 ① : 괴기(×) → 고기(○), ③ 바람(×) → 바람(○), ④ 애기(×) → 아기(○), ⑤ : 땡기다(×) → 땡기다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꽃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멧쟁이, 소금쟁이, 닭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 10 미류나무 → 미루나무, 우에 → 위에, 배암 → 뱀, 포아리 → 파리

(2) 한글 맞춤법 78쪽

1 ③	2 ③	3 ②	4 ⑤	5 ①
6 ②	7 ④	8 ,/!./?()	9 ④	

10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해 줄게.

-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이다.
- ③ :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떡볶기 → 떡볶이, ③ : 해도지 → 해돋이, ④ : 백분률 → 백분율, ⑤ : 오푸기 → 오펝이
-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① 사과 √한 √개
- ② : ‘집꾼’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집꾼’으로 적어야 한다.
- ① : 탈 수 밖에 → 탈 수밖에, ② : 들어가야한다. → 들어가야 한다. ③ : 꺼져만간다. → 꺼져만 간다. ⑤ : 사만 육천 오백 칠십원 → 사만 육천오백칠십원
-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억양이나 느낌을 살릴 수 있다.

- 9 ① : 조렸다 → 졸였다, ② : 늘이다 → 느리다, ③ : 앉히면 → 안치면, ⑤ : 목거리 → 목걸이
- 10 곰곰히 → 곰곰이, 줄께 → 줄게

8. 남북한의 언어 차이

(1) 남북한의 언어 차이				83쪽
1 표준어, 문화어	2 ③	3 ③	4 (1) 념	
원(2) 뺑니(3) 가공떡	5 ⑤	6 ③	7 ①	

- 표준어와 문화어의 정의이다.
- 표준어는 자음 동화를 인정하는데, 문화어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 : 한복 - 조선옷
- (1) 표준어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나, 문화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표준어는 자음 동화를 인정하나, 문화어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문화어는 표준어보다 된소리가 잘 나타난다.
-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통일의 기초가 된다.
- ① : 국제적인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② : 북한의 스포츠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④ : 전문 용어를 풀어 쓰게 되어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⑤ :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 ② : 직매점 → 상점, ③ : 8월3일인민소비품 → 생활 필수품, ④ : 흥성거립니다 → 북적거립니다, ⑤ : 목수건 → 목도리



다음 항목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를 따라가시오.

